

2006년 30호

경북의사회지

특집 사연이 있는 사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의사회의 발자취

경북의사회지

1971년 대구시의사회보와 병행하여 발행
 1993년 창간호~2000년 제24호까지 매분기별 발행
 2001년 제25호~현재까지 매년 1회 발행(제27호부터 경북의사회지로 명칭변경)



경북의사회보(1971년)



창간호(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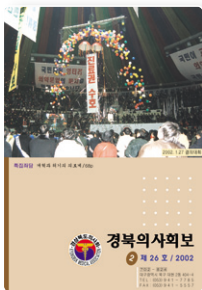
제14호(1996년)



제24호(2000년)



제25호(2001년)



제26호(2002년)



제27호(2003년)



제28호(2004년)



제29호(2005년)



제30호(2006년)

회원명부



1988년 발행



1992년 발행



1995년 발행



1999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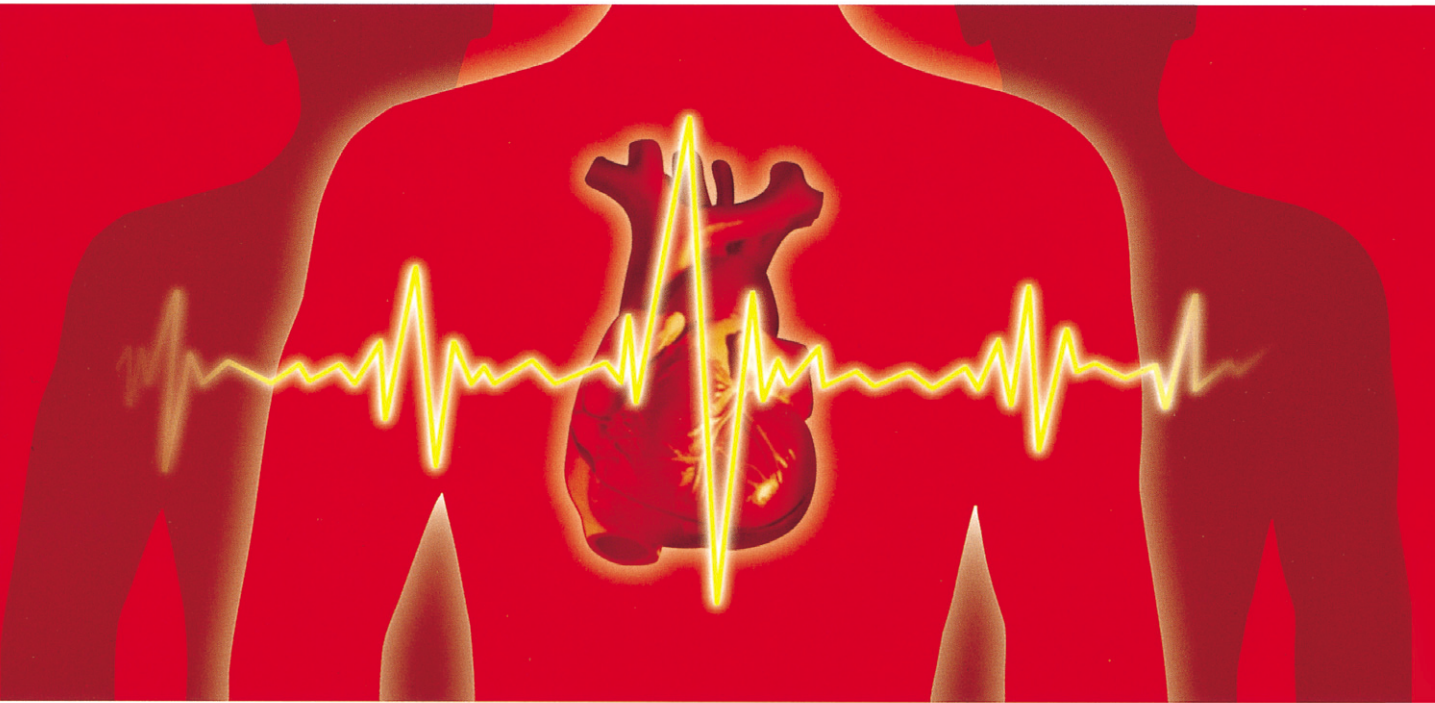


2003년 발행

고지혈증 치료의 새로운 선택기준

심바틴정

Simvastatin 40mg/20mg/10mg



고지혈증 치료의 1차 선택제 - 심바틴정

심바틴의 우수성

- Total-C, LDL-C, VLDL-C, TG 농도저하 및 HDL-C 농도상승 작용의 우수한 효과
-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총사망률 30%, 허혈성 발작 위험률 34%, 심근경색 발병 위험률 37% 감소
- NIDDM 환자의 혈중 콜레스테롤치 저하로 심장질환의 위험성 감소

심바틴의 광범위성

- 고지단백혈증, 고중성지방혈증에도 뛰어난 효과발현

심바틴의 입증된 효과

-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Ref) Am J Cardiol 2000 Aug 15;86(4): 406-11, Indian Heart J 2001 Mar-Apr;53(2):172-6, Metabolism 2001 Mar;50(3):355-9, Arch Intern Med 1999;159:2661-7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www.dong-wha.co.kr

Strong Recommendation for Your Patients

리바로®

리바로®는 뛰어난 Efficacy! Safety!
두가지 모두를 만족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드리겠습니다.

Efficacy New Statin 리바로®는 LDL-C를 40% 감소시키고, HDL-C를 11%상승시킵니다.¹

Safety 리바로®는 CYP450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병용투여에도 안전합니다.²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

리바로® 정 2mg

(Pitavastatin Calcium)

EDI code : A02107691

Good Statin! Better Lipid! Best Life!



표지설명

2005년 5월 22일(일)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된
제27회 경북의학회 행사중
단체줄넘기

CONTENTS

발간사 변영우

축사 이원기

축사 김재정

임원 및 위원 명단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법률 · 세무고문 / 회지편집위원

경북의사회 윤리위원 / 선거관리위원

시 · 군의사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사무직원

사진 중국 桂林에서 / 윤태권

시

강가에 나와 앉아 / 손장락

풍경 혹은 귀향 · 그림자 새메 / 김의홍

박꽃 / 안길룡

이 즈음은 / 최해곤

003

수필

004

인생은 배와 같고 꽃같이 아름답다! / 추성수 020

005

산재병동 친구 / 전경홍 022

007

인생 거꾸로 살기 / 성기태 025

009

고엽과 추억 / 윤용삼 026

010

6시간의 롤러코스트 / 정만진 028

011

참된 봉사 / 이석균 034

012

수능시험보는 아들에게 / 이봉구 036

014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사공정규 037

015

산행기 카니발루 등정기 / 반계돈 039

016

여행기 048

017

달밤 물디브 바다에는 메밀꽃이 잔잔하게 048

018

피어납니다 / 안길룡 048

019

보고서 052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 전민 052

행사후기

고군산군도를 배를 타고 관광을 한 후 / 김장희 056

회고록

영 · 호남 친선교류 20년을 회고하며 / 신은식 058

유머

의학제 삼행시 062

특집 *사연이 있는 사진* 066

화보

회무소식 078

회원동정

성명서 · 결의문 089

부록 시 · 군별 병원명단 120

편집후기

123

128

130



의사윤리 선언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의사 본연의 사명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동료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존중하고 협조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의 길을 구현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은 의료환경을 온 국민과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드높인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지켜 의업의 존재 의미와
의사의 존엄성을 확립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의사협회

발간사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변영우



“ 의사회지 지령 30호, 의사회장 6년, 참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경북의사회지 제3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회지를 발간하여 오늘 30호까지 이르게 됨은 전적으로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회장으로 재선되어 6년 동안의 회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한결같이 도와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소책자의 형태로 의사회지의 업무를 알리는 정도의 회지에서 다양한 장르와 형식으로 170면이 넘는 경북의사회지로 발달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사회지는 우리 의사회지의 기록이자 의사 회원들의 문예발표 지이기도 합니다. 시, 수필, 소설, 논문 그리고 사진과 서예에 이르기까지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는 작품들이 모여 우리 회지를 빛나게 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경북의사회원님들의 작품 수준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전문 작가들이 만든 어느 작품보다 우리의 동료, 우리의 애환을 그린 작품들이라 애착과 감동이 더욱 큼니다. 소중한 작품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과 그것을 적절히 편집하여 맛을 더해주신 편집위원님들께 무엇이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에 힘입어 6년이란 짧은 세월동안 경북의사회장의 직

책을 무사히 수행하고, 의협 부협회장의 중책까지 맡은 후, 영예롭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회원 여러분과 저를 도와 열심히 회무를 집행해 주신 임원 여러분의 덕분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평생을 두고 그 고마움을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의료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사생활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다른 집단보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북의사회장을 물러나더라도 이런 우리의 현안을 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지난 6년간의 경북 의사회장 시절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할 때는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을 해주시고, 제가 잘 할 때는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큰 빛을 지고 떠납니다.

저의 임기 6년 내내 알찬 내용과 편집으로 어느 다른 지역 보다 뛰어난 의사회지를 만들어 주신 정만진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출판사 선진 애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회지 지령 30호, 의사회장 6년, 너무나 고맙습니다.

2006. 3.

축사

경상북도의회 사회대의원회
의장 이원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사다난했던 닭의 해가 지나가고, 희망찬 丙戌年이 밝았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부지런하며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개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인류와 함께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살아온 동물입니다.

개의 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선생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제30호 경상북도 의사회지”의 발간을 축하하며, 임기를 마치려는 시점에서도 끝까지 애써주신 정만진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이 온통 각종 선거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덟 분의 도지사님과 도의원, 서울을 비롯한 수많은 시장님과 시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우연의 일치이긴 합니다만, 우리 의료계도 꺼져가는 의사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3년을 이끌어 갈 의사들의 수장인 의협회장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변영우 회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의료계와 우리를 위하여 큰 십자가를 지려고 목하 열심히 뛰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뜬 구름 잡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두가 훌륭하신 분들로서 누구 한 사람 나무랄 데 없는 탁월한 분들이므로, 한분의 회장님을 뽑은 후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다 함께 의협에 들어와 상임이사를 맡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요.

이제 곧 온 산과 들에는 조물주의 섭리에 따라 개나리와 목련이, 자운영과 민들레 등 온갖 식물들이 새 생명을 준비할 것이고, 자기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듯이 우리 의사를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고 단념이 한 건물 안에 모여 각자의 빼어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면, 100년의 의협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한의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허망한 꿈이라면 차선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선거동안 무성했던 잡초 같은 말과 소문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선거에 들어가기 여덟 분의 후보자들이 의협회관에 모여 약속한 대로 뒷말 없이 깨끗한 승복을 하여, 우리 의사들의 높은 지성과 신사정신을 꼭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책이 세상에 나올 때쯤이면 8대1의 경쟁에서 뽑힌 한분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로 단결할 것이며, 8만 의사의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며 환자의 질병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거룩한 의료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경북의 의사들이여!

뿔속 깊이 간직한 선비의 유산을 지켜 갑시다.

대한의 의사들이여!

그대들의 앞날에 영광 있어라.

2006. 3.

축사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김재정



“경북의사회의 헌신적이고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올해 30호를 맞이한 경북의사회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면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3년 5월에 출범한 제33대 의협 집행부는 주어진 임기를 다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를 비롯한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출범 첫해인 2003년 10월, 의사를 한 날 의료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총액예산제 도입 바로 전단계조치인 외래 DRG 전면시행을 초기 단계에서 원천봉쇄한 것이 가슴 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강보험의 틀을 깨는 데 역점을 둔 결과, 회원들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했던 야간진찰료 적용시간을 6시로 환원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잘못된 100분의 100 본인부담제도와 정부의 일방적인 약제비 부당환수조치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수가 협상에서도 나름대로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2005년도 수가 협상에서는 사

상 처음 의원급 진찰료만 별도로 2% 인상시키는데 성공했으며, 2006년도에는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수가계약을 통해 3.59%의 수가인상분과 종별계약의 기틀을 다져놓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만을 이유로 강행하려했던 급성호흡기감염에 대한 심사원칙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인정여부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것도 주요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내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을 실시토록 했으며, 약사회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을 저지시켜왔습니다.

현행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퍼 보건복지부내에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가 개설되었고, 시민단체와 의협 등 관련단체가 주축이 되어 불법의료행위감시단이 3월 3일부터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대국회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쏟아 부어, 부당한 독립간호사법과 물리

치료사법을 봉쇄시키고 있으며, 현재 논의중인 의료분쟁조정법도 의료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투약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의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약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입법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을 위해 힘써온 일들을 모두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인터넷 의협신문 서비스를 개시하고 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쓰나미를 비롯하여 파키스탄 대지진 참사, 북한 용천폭발 사고 때의 헌신적인 의료지원 활동은 세계적인 귀감이 되었으며, 2005년 9월 시마오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의료계를 위해 의협에 보내주신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기까지는 여러분의 단결된 힘과 아낌없는 성원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북의사회지 제3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회원 모두의 건승과 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변영우 회장



정만진 부회장



이석균 부회장



김옥배 부회장



이영현 부회장



이미숙 부회장



백승인 기획이사



이봉구 기획이사



이경섭 학술이사



천종욱 재무이사



김장희 법제이사



이경수 보험이사



조성범 보험이사



전민 의무이사



김광만 공보이사



김용탁 정책이사



김대환 정책이사



김종호 정책이사



송재영 정책이사



조현숙 정책이사



송준석 정책이사



하상호 감사



유성호 감사



정능수 감사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 임원명단(제39대)

(2003. 4. 1~2006. 3. 31)

직 위	성 명	의 원 명	전 화	주 소
회 장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경주시 사정동 101-27
부 회 장	정 만 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0-647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이 석 균	청십자의원	(053) 815-7077	경산시 중방동 538-3
	김 옥 배	김옥배정형외과의원	(054) 452-5665	구미시 원평1동 534-8
	이 영 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 770-8203	경주시 석장동 1090-1
	이 미 속	이화산부인과의원	(054) 857-7659	안동시 남부동 169-20
기획이사	백 승 인	백승인소아과의원	(054) 746-0002	경주시 성건동 340-22
	이 봉 구	이피부과의원	(054) 742-1494	경주시 동부동 141
학술이사	이 경 섭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 770-8266	경주시 석장동 1090-1
재무이사	천 종 욱	천내과의원	(054) 771-0503	경주시 동부동 113-3
법제이사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보험이사	이 경 수	이경수내과의원	(054) 471-1674	구미시 황상동 280-9
	조 성 범	한빛연합소아과의원	(054) 742-5848	경주시 성동동 179-3
의무이사	전 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054) 247-7861	포항시 북구 죽도1동 103-1
공보이사	김 광 만	지곡그린의원	(054) 221-49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9
정책이사	김 용 탁	김용탁산부인과의원	(054) 743-6688	경주시 성동동 143-8
	김 대 환	베드로내과의원	(054) 331-5522	영천시 금로동 584-3
	김 종 호	김종호신경정신과의원	(054) 282-75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104-14
	송 재 영	송재영외과의원	(054) 373-0111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78-60
	조 현 속	계림내과의원	(054) 742-8931	경주시 성동동 72
	송 준 석	연세가정의원	(054) 775-5563	경주시 감포읍 감포3리 383-12
감 사	하 상 호	하상호 · 김남주산부인과의원	(054) 273-366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8-30
	유 성 호	평화산부인과의원	(054) 552-5959	문경시 점촌동 53-2
	정 능 수	동산연합의원	(054) 861-007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49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이 원 기 의장



김 홍 조 부의장



김 교 성 부의장

○ 의장단명단(제12대)

(2003. 4. 1~2006. 3. 31)

직 위	성 명	의 원 명	전 화	주 소
의 장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부 의 장	김 홍 조	김홍조외과의원	(054) 452-4239	구미시 원평2동 158-8
	김 교 성	김내과의원	(054) 632-0999	영주시 영주4동 531-4

○ 중앙(의협)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전 화	주 소
중앙이사	이 석 균	청십자의원	(053) 815-7077	경산시 중방동 538-3

○ 중앙(의협) 대의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전 화	주 소
정대의원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포항시 북구 죽도 1동 41-7
	정 만 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0-647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안 길 롱	안외과의원	(054) 432-9999	김천시 남산동 16-5
	장 의 현	장의현비뇨기과의원	(054) 453-5424	구미시 원평1동 371-4
	오 세 진	오세진비뇨기과의원	(054) 241-6969	포항시 북구 죽도2동 53-21
	권 세 흥	권방사선과의원	(054) 855-8444	안동시 서부동 72-2
교 체 대 의 원	전 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054) 247-7861	포항시 북구 죽도1동 103-1
	송 재 영	송재영외과의원	(054) 373-0111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78-60
	조 영 호	조정형외과의원	(054) 634-3375	영주시 영주2동 536-2

경상북도의사회

법률·세무고문



김인수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정연경 변호사



서한규 변호사



김태계 변호사



주영일 세무사

구분	성명	근무처	전화	주소
법률고문	김인수	김인수법률사무소	(053) 742-3100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74-1 성광빌딩 401호
	김상윤	김상윤법률사무소	(054) 246-0300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8-4
	정연경	정연경법률사무소	(054) 742-9222	경주시 동부동 141
	서한규	서한규법률사무소	(054) 437-7447	김천시 삼락동 1243
	김태계	화산합동법률사무소	(054) 859-0634	안동시 정하동 244-3
세무고문	주영일	세무사주영일사무소	(054) 742-1218	경주시 성동동 417-1

경상북도의사회

회지 편집위원

직위	성명	의원명	전화	주소
위원장	정만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0-647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위원	김광만	지곡그린의원	(054) 221-49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9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054) 856-7111	안동시 동부동 74
	이경수	이경수내과의원	(054) 471-1674	구미시 황상동 280-9
	이덕영	하양중앙내과의원	(053) 856-4567	경산시 하양읍 금락2리 1-10

경상북도의사회
윤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의 원 명	전 화	주 소
위원장	신 은 식	신정형외과의원	(054) 247-3397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부위원장	유 동 명	유동명정형외과의원	(054) 859-6737	안동시 동부동 152
위원	정 만 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0-647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안 길 룡	안외과의원	(054) 432-9999	김천시 남산동 16-5
	김 지 흥	김지흥정형외과의원	(054) 277-75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8-1
	김 종 국	경북정형외과의원	(054) 452-1985	구미시 원평1동 1064-4
	손 병 옥	손병옥내과의원	(053) 815-7900	경산시 중방동 862-3
	권 세 홍	권방사선과의원	(054) 855-8444	안동시 서부동 72-2
간 사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경상북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의 원 명	전 화	주 소
위원장	최 유 근	최유근안과의원	(054) 854-5775	안동시 남문동 202-2
위원	손 병 옥	손병옥내과의원	(053) 815-7900	경산시 중방동 862-3
"	이 웅 렬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054) 555-4797	문경시 점촌동 245-9
"	김 종 국	경북정형외과의원	(054) 452-1985	구미시 원평1동 1064-4
"	김 지 흥	김지흥정형외과의원	(054) 277-75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8-1
"	성 후 식	한동대선린병원	(054) 245-5818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간 사	박 재 영	경상북도의사회	(053) 941-7785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경상북도의회

시·군 의사회장



권영철 포항회장



김장희 경주회장



정근재 김천회장



최현욱 안동회장



김동욱 구미회장



이재석 영주회장



이석주 영천회장



이철우 상주회장



강찬규 문경회장



장기호 경산회장



김교준 군위회장



한성탁 의성회장



정철 청송회장



류수영 영양회장



권영대 영덕회장



박해동 청도회장



백두현 고령회장



방종경 성주회장



이원석 칠곡회장



차광국 예천회장



전우진 봉화회장



임호식 울진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시·군 의사회장

(2006. 3. 현재)

시군별	성명	의원명	전화	주소	비고
포항시	권영철	권영철정형외과의원	(054) 274-3636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5-8	
경주시	김장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김천시	정근재	김천신경정신병원	(054) 432-5040	김천시 응명동 957	
안동시	최헌욱	동산정형외과의원	(054) 858-8151	안동시 태화동 205-5	
구미시	김동욱	조은의원	(054) 455-4080	구미시 원평2동 96-1	
영주시	이재석	서울산부인과의원	(054) 636-9901	영주시 하망동 324-17	
영천시	이석주	녹십자외과의원	(054) 331-7071	영천시 야사동 182-6	
상주시	이철우	이내과의원	(054) 536-5757	상주시 서성동 117-5	
문경시	강찬규	강찬규내과의원	(054) 552-9777	문경시 점촌동 241-19	
경산시	장기호	사랑애의원	(053) 814-8071	경산시 옥산동 731-1	
군위군	김교준	성누가의원	(054) 382-9911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390-2	
의성군	한성탁	한사랑의원	(054) 834-8275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16-1	
청송군	정철	대구의원	(054) 873-1407	청송군 청송읍 월막2리 357-3	
영양군	류수영	영남의원	(054) 683-3465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232-1	
영덕군	권영대	권외과의원	(054) 734-4663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655-8	
청도군	박해동	박해동외과의원	(054) 371-6555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51-29	
고령군	백두현	고령백의원	(054) 954-3669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성주군	방종경	덕산의원	(054) 933-0644	성주군 성주읍 경산8리 713-4	
칠곡군	이원석	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054) 973-1147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0-2	
예천군	차광국	제일의원	(054) 652-2989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67-46	
봉화군	전우진	동산의원	(054) 673-6388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36-35	
울진군	임호식	누가의원	(054) 782-4979	울진군 북면 부구리 칠보프라자 B-102	
울릉군	정만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0-647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경상북도의사회
사무직원



박재영
경상북도 사무국장



권순길
경상북도 대리



김태희
경상북도 대리



김두중
포항시 사무국장



김은명
포항시 간사



이지형
경주시 간사



윤진영
안동시 간사



박민희
구미시 간사



김명숙
영천시 간사



최보화
경산시 간사

구 분	직 책	성 명	전 화	휴 대 폰	주 소
경 상 북 도 의 사 회	사무국장	박재영	(053) 941-7785	011-512-0435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대 리	권순길	(053) 941-7785	011-9365-7268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대 리	김태희	(053) 941-7785	016-520-8200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포항시의사회	사무국장	김두중	(054) 281-0990	016-502-9786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간 사	김은명	(054) 281-0990	010-3128-1250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경주시의사회	간 사	이지형	(054) 774-9991	017-530-9992	경주시 서부동 255-31
안동시의사회	간 사	윤진영	(054) 857-6911	011-9578-6406	안동시 북문동 470(안동의료원 내)
구미시의사회	간 사	박민희	(054) 457-7646	011-9589-2280	구미시 원평동 534-8
영천시의사회	간 사	김명숙	(054) 337-8022	010-8213-1116	영천시 창구동 1(영천문화원 2층)
경산시의사회	간 사	최보화	(053) 812-0030	016-519-7658	경산시 중방동 538-18(열린약국 2층)



중국 桂林에서

1999년 8월 중국 桂林에서 배를 타고 陽朔으로 가서 일박 후 버스를 이용하여 다시 桂林으로 가던 중 경치에 홀려서 차를 세워 촬영한 장면



윤 태 권
윤소아과의원 · 안동

시 Poem

강기에 나와 앉아



손장락
손의원 · 안동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 본다
멀리 태백산 황지에서 왔다했는가
멈추어 괴이지 않고
그 먼 길을 흘러 내려 가는구나
기다리는 바다로
자정의 마음이 있어
눈이 시리도록 그렇게 물빛이 맑았나 보다

좁은 하늘 아래 산골짜기 지나오다
탁 트인 마을 앞도 지나오고
보고 들은 이야기 노래되어 흐르니
어린 아이 조잘 대는 이야기처럼 정겨워
여울 발치의 모래톱에 앉아
안개에 젖어 가며
너의 노래 듣는다

보이는 것 모두 안개 속에 잠겨 들고
무성한 갈대숲에는 흰 갈대꽃
느껴지지 않은 강바람에도 물결치며
강물 되어 구비치 흐른다
조약돌 하나 좇아 들어
아무런 뜻 없이
소리 내어 흐르는 여울물에 던져본다

흔적이란 모두 삼켜 버리고
강물은 외곶으로 흘러 간다
내일이면 구름 되어
천둥치고 비로 내릴지라도

시 Poem

풍경 혹은 귀향



김의홍
김의홍산부인과의원 · 구미

같은 길을
두 번 다시
갈 수 있을까

지친 흔적들
젖은 세월 아래

삶의 뼈들이
어수선하게
숨겨진듯
드러나 있다

어려운 귀향은
언제나 따뜻하다

정말 그럴까

그림자 새떼

날아 오를까
저 새떼들처럼

석양의 하늘을
새떼 같은
익명의 그림자가

헛된 바람처럼
말 없이 사라지며
날아 오른다

무슨 그림자나
그림자 같은
미지의 새떼나

모두 다 희다
아니 검다

분명해?
확실해?

시 Poem

박꽃



안길룡

안외과의원 · 김천

열 여섯에 시집보내
 산후끝에 죽은딸이
 서럽다 서러워러.
 소쩍새가 우는 달밤
 둘러친담 싸리끝에
 소복입고 피어나는 꽃
 천갈래 만갈래 애미의 맺힌 한이
 한잎 두잎씩 찢어지며 꽃이핀다.
 해도 싫고
 정도 싫다
 삼작단고 들어 앉아
 웃으며 운다
 울면서 꽃이핀다.
 박꽃이 핀다
 한잎 두잎씩 찢어지며 꽃이핀다
 박꽃이 핀다.

시 Poem

이 즈음은

「무사안 일, 평범이 가장 어려운 삶의 형식임을 알 것 같다.」



최해곤

최해곤성형외과의원 · 경주

비슷한 꿈을 앓다 헤어진 누군가 혹시 내 소식 묻거든
고향에 머물러 나무처럼 지낸다고 전해주게.

자랄때는 항상 배가 고파 먹거리에 열중하다
어느 봄날 문득 천지가 꽃으로 뒤덮혀 꿈속에 빠졌는데
무더운 장마비로 무섭게 걸자라
가지가지 허영에 들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선줄에 들어서야 늦게 변명의 시간이 일개운 부끄럼으로
경주에 엮드려 참회한다고 전해주게.

생성평창에서 수축소멸로 가는 한살이는 불확실성만 확실했고
만날 동안만 잠시있고 헤어져있는 내내 없는 그대
항시 꿈꿔온 진정한 자유마저 그대를 부정하는 현실이 덧없어
삶과 주검이 한덩어리로 어우러진 천년고도 무수한 고분처럼
조금씩 곁이 깎이고 속이 비며 나이만 먹고 있다고 전해주게.

인생은 배와 같고 꽃같이 아름답다.

추성수 추이비인후과의원 · 포항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란 속담이 있고, 스님의 법문에도 “인생의 길은 바른길이 아니고 구불구불 구부러진 길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다. 인생길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끝이 있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노의(老醫)는 죽지 않고 경험과 기술이 축적될 뿐이다.’라고 외치고 싶다. 인생은 먼 길을 향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다.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군의관을 거쳐 개업한지 어언 51년이나 되었다.

나는 이 기나긴 의사생활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 오래 기억에 남는 몇 가지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예는 1960년대 초 70대 노인이 밤 9시 경에 문을 두드리며 내원하였다. 낮잠을 자다가 귀에 벌레가 들어가서 통증이 심했지만 가족들이 외출 중이라 참고 견디다 밤에 병원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보통 벌레가 아니라 동그란 물장구 벌레라서 제거하기가 어려웠다. 치료비로 100원을 요구하였는데 60원 밖에 없다며 그것만 내 놓고 갔다. 그런데 이 환자가 3일 후에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하고 말았다. 나의 잘못이 있는가를 가리기 위하여 해부를 한 결과 심장이 일반인보다 3배나 커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 예는 3세 아기가 사과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다. 사과를 먹다가 사과 조각이 기도에 걸려 사망한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부모가 아기를 거꾸로 들고 배를 압박하던지 아니면 등을 두드려 토하게만 했던들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부모들을 위한 응급처치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예는 옛날에 유 소아에게 많이 발생했던 법정전염병인 디프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 병은 후두부에 이막이 생겨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분초를 다투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50년대에는 이 병이 많았다. 당시에도 예방접종이 시행되었으나 가난한 시골구석까지 미치지 못했었다. 60년대 이후로는 이 병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을 보고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

다. 아마도 젊은 의사들은 말로만 들었지 디프테리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5,6십 년대에는 국방장관이 승낙해주면 군의관도 야간 개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포항의 골목 안길에 개원하여 부모형제와 처자식과 생활하였다. 그러다 2003년에 신축 개원하여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바쁘고 즐겁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였기에 사회보전에 이바지 하고 힘들이지 않고 봉사를 실천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직업이 아니던가?



아내도 전통다도와 전통예절을 공부하여, 전에 하던 병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정다래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연합회 전통다래원을 열었다. 아내의 희망대로 후배들에게 전통과 예절을 가르치게 되었으니 이 또한 노년의 즐거움이자 행복이 아닌가? 오래 오래 계승되기를 바란다.

이 해도 며칠 남지 않은 달력을 쳐다보니 인생을 보는 것 같이 쓸쓸하게 느껴진다.

삶이란 무엇이며 어떤 가치가 숨어 있는 것일까?

이 나이가 되었어도 한 마디로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펼쳐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빛나는 가치를 남긴 사람일수록 열심히 그리고 생을 깊이 사랑하였다는 것이다.

인생을 전쟁터로 보지 말고 아름다운 꽃의 열매와 꿀로 보고 살자.

산재병동 친구

전경홍 동산가정의학과의원 · 문경
한국문인회회원 / 한국추천작가회원



간 호과장의 안내로 산재병동 작품 전시회를 관람하게 되었다. 전시장은 아름다운 축하 화분들이 진열된 2층 병실로비와 복도공간 그리고 널찍한 전시실로 되어 있었다. 전시실에는 민속공예품, 서예, 시, 수필, 시조, 도자기, 표구액자, 병풍, 사진, 한옥과 물레방아, 팔각정, 날아갈 듯한 기와집, 그 외에도 정교하고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수많은 수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정성이 듬뿍 깃들여 있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는 많은 관람객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

서 들려왔다.

과거 60년대~80년대까지 경북 문경, 강원도 등 전국 광산에서 종사했던 광부들의 작품들이다. 자기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는지 환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나는 마음이 숙연해지고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저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뚜렷했다.

이곳 산재병원에는 장기입원환자가 270여명이라 한다. 호흡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데도 39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작품 중에는 서울 근로문화제에 입상한 작품도 있었고, 대구·경북 전시회 입상작과 고가에 판매하기로 예약된 작품들도 있어 상당한 수준이었다.

마지막 전시실에서 진폐 환자들의 X-선 흉부사진을 보는 순간에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호흡곤란을 느꼈다. 석탄 광산 막장 어두운 공간에서 광부 헬멧에 가스등불을 비치며 작업하는 현장을 재현한 화면을 보는 순간, 과거 검시하러 가서 석탄 덩어리에 압사한 사체를 검안하던 일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지 그 현장을 보는 듯 가슴이 섬뜩하였다. 그 어두운 과거를 안고 오늘 이 병동은 그들의 신음소리로 채워져 있는 듯했다. 관람을 마치고 조출하게 차린 영접실에서 직원들과 작품제작자들과 차를 나누었다. 그리고 9년째 입원가료 중인 친구가 있는 0000호 병실로 갔다. 상체가 약간 올려진 침대에 누워 창밖을 내다보던 친구가 문소리에 돌아보며 반겼다.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는 중이야. 나도 낙엽처럼 힘없이 바람이 가는 대로 굴러갈 거야.” 친구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친구가 궁금해하는 동창들의 소식을 전하다보니 거의 반 시간이 지났다. 갈 때마다 친구는 더욱 숨을 가빠하고 있었다. 더 오래 머물면 친구를 힘들게 할 것 같아 다음을 약속하며 병실을 나오려고 하였다. 그 때 친구는 “내가 언제까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애잔한 표정을 짓는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는 하였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병실복도를 지나갈 때 각 병실마다 호흡곤란 환자들의 신음소리며 산소 호흡기의 작동소리는 더욱 마음을 침울케 하였다.

사실 진폐증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정치 경제적 구조와 권력관계가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는 주된 에너지원으로 탄광의 개발을 독려했다. 당시는 성장 제일주의적 경제개발이라는 데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할지라도 광산감독들의 처방은 검은 마스크를 벗고 몸을 청결하게 씻으며 기름진 삼겹살을 먹고 막걸리 한 사발 마시면 탄먼지가 모두 제거된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국민들 다수가 보릿고개의 곤경을 겪어야했으며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었다. 이곳에도 사십여 개 광산에 수천 명에서 일만 명이상 광부들이 종사하였다. 오랜 광부생활에서 퇴직 후 서서히 느끼는 호흡장애로 의료기관을 찾고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인 진폐증이라는 판정에 아연실색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에 평생을 바친 산업전사들에게 공로훈장수여는커녕 진폐증으로 불행한 삶을 주어지게 하더니? 국가의 산업재해 보상은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전국에는 진폐증에 걸린 수많은 환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정기적인 검진은 하지만 진폐증과 동시에 합병증이 있어야 입원요양을 하게 된다. 그 중 10%도 안 되는 일부 환자만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요양을 받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환자들은 요양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자가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진폐환자 대부분은 노령상태에 있고 경제적인 자립능력도 없으며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전국에는 산재병원이 27곳 있다하니 불행한 환자와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은 누가 알아주랴?

석탄은 과거에 우리를 가정과 산업공장의 중요한 에너지였음을 부인할 자가 있는가? 근현대화와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풍요로운 혜택은 기업, 산업체, 국민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갱도 내에서 안전사고,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자들의 유족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신체적 불구자로 여생을 보내는 전직 광부들이 내 주위에도 몇 사람이 있다. 차차 노쇠해지면서 진폐증은 입원가료 하여도 시한부인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치유회복의 소망이 없기에 심적인 불안과 정신적 우울증에 시달리기 쉽다. 안타까운 일이다. 끝내는 보호자들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릴 때 자기에게 다

가을 임종을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길 없다는 것이다. 장기간 입원 요양생활은 좌절의 푸념과 탄식의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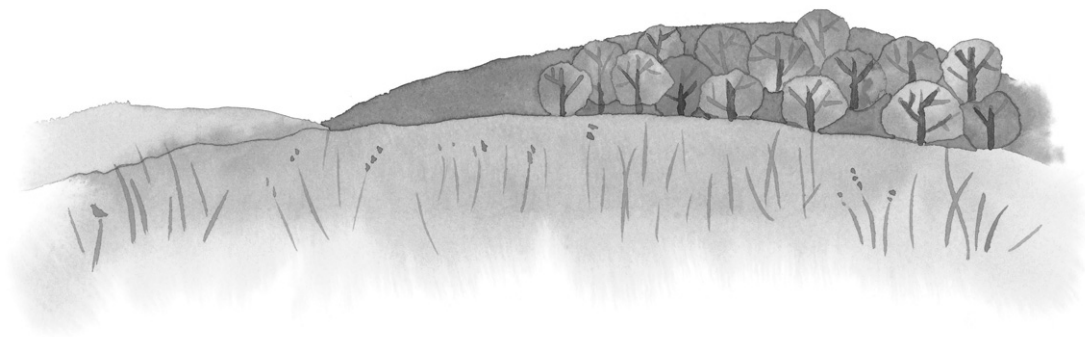
최 간호과장은 삶을 포기하려는 진폐증 환자들이 많아 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일을 찾자 이러한 작품전시회를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진폐병동 환자들이 가쁜 호흡을 하면서도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달픔에서 벗어나



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다.

황 환우회 회장은 유 이사장의 배려와 박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자들이 호응한 결과로 훌륭한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극찬할 일이고 이를 아는 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금년에 전시회가 더 향상된 것을 보니 기뻐다. 이런 행사는 환자들의 취미 생활과 용기와 인내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값진 일이기에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곳에 왔다가 돌아갈 때마다 몹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진폐증은 경·중의 증세가 다르기는 해도 현대의술로는 불치의 병이라는 것이다. 병원정원에 국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가 그윽했다. 그러나 마음을 스치는 것은 싸늘한 북풍인 듯 했다. 그러한 서늘함이 가슴을 파고들 때 친구의 애절한 말이 고막을 울린다. 진폐병동환자들의 신음소리는 내게 더없는 고통의 소리로 다가왔다. 불어오는 바람에 우수수 낙엽들이 나뭇가지를 떠나고 있다. 내가 언제까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며 힘없이 말하던 친구의 말소리가 그 낙엽에 묻어 떨어진다. (dongsanhome@yahoo.co.kr)



Rejuvenate your life!

- 인생 거꾸로 살기 -

성기태 성기태정형외과의원 · 구미



당신은 도립(倒立)을 서 본 적이 있는가? 가끔씩 그런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길 듣는다. 인생도 자신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거꾸로 돌려 본다면 꽤나 흥미로울 것이다. scenario를 거꾸로 편집을 한다면 retrograde의 화면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의 의과대학 진학은 뜻밖이었다. 고등학교 때의 내 희망은 육군사관학교였다.

집이 가난하였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유도를 했다. 그러나 육사의 필기시험 합격 후 신체검사에서 떨어진 이후로는(pulm. tbc의 sequela때문) 재수와 동시에 씨름을 시작하게 되고, 그 후 5년 동안 그 운동을 계속하게 된다. 덕분에 나는 10여년 후에 시작되는 개원의(開院醫) 생활에서 발군(?)의 스테미너를 발휘하게 된다. 허리가 튼튼하였기 때문이다. 유도 3년에 이은 씨름 인생 5년은 의학도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내 인생에 큰 보람과 동기부여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래는 2년여의 로타리奉仕 생활 끝에 재개원을 하였고, 그런대로 병원 일을 무난히 꾸려 나가고 있다. 모두가 젊은 시절 익혀두었던 건강관리법과 체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5년이 자났다.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디지털시대는 시간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그 전 같으면 연월(年月)로 바뀌던 생활이 이젠 분초(分秒)를 다투게 되었다.

우리는 많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초스피드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이젠 끊임없는 자기개혁(innovation)만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시켜 줄 것이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인간이 늙어가면서 잃게 되는 7가지를 망라했다. 친구, 일, 재산, 성욕, 지위, 미래, 희망이 그것들이라는데 老年에 그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할 일이다.

요즘의 세태를 꼬집은 말로 45정, 56도, 다음에 625가 등장했다는데 62세엔 오랑캐라니 더욱 몸조심할 일이고 이제 두서없는 얘기의 끝맺음을 할 때가 온 것 같다.

헬렌 켈러의 말을 빌리면 ‘삶은 모험을 빼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오늘도 생(生)의 새로운 면을 관조(觀照)하면서 나의 삶을 계속할 것이다. 미처 예기치 못한 많은 Variation에는 passion과 flexibility만이 살 길임을 알고 있기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친구와 일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枯葉과 追憶

윤용삼 윤내과의원 · 포항



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落葉이 굴러다니는 보도를 걸을 때쯤이면 겨울이 오는 시그널 송처럼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피아노의 음율이 로저 윌리엄스의 '枯葉' 이었던 시절이 아련히 떠오른다.

나는 4.19혁명이 나던 해 대구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 땐 라디오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던 시절이었는데 '枯葉'은 영어 가사의 발라드인 미국판 autumn leaves 가 유행하고 있었다.

로저 윌리엄스의 피아노 곡이나 빙 크로스비, 냅킨 콜의 감미로운 발라드는 늦은 밤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열중하다 들으면 언제나 나를 감상에 젖게하곤 했다.

훗날 '枯葉'의 오리지날은 자끄 프레베르의 시에 조제프 꼬스마가 작곡하여 이브 몽땅이 영화 '밤의 문'에 출연하여 처음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땐 나에겐 생소한 불어 가사의 상송보다 영어 가사에 발라드인 미국판이 더 친근감이 있었고 언제 들어도 반갑고 감동적이었다.

대학 예과 시절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란 노래 가사처럼 대구 향촌동의 바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도라지 위스키'를 마시며 스피커에서 흘러 나오는 autumn leaves, the end of world, sad movie, too young 등을 들곤 했다.

무료한 비오는 오후나 주말엔 음악 감상실에 가곤 했는데 그때 대구에는 세 곳의 음악 감상실이 있었고, 우린 베토벤, 차이콥스키, 쇼팽 등의 협주곡을 신청하여 들을 수 있었고 재즈나 당시 유행하던 팝을 들려 주던 곳도 있었다. 거기 있었던 스피커는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 탄노이나 알텍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다른 일을 하며 음악을 BGM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 audio가 좋아서 음질이 좋아도 그 음반이 좋아서인 줄 알았으니 그 땐 Hi-End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LP시대는 저물어가고 CD시대가 된 무렵 지방 도시에서 개원을 하고 여가 시간에는 비디오 감상이나 촬영에 빠져 있다.

늦은 나이에 소위 Audio Life에 입문하게 되어 음반 수집에 열을 올릴 때, 참고하던 잡지에서 '枯葉' 음반을 수집한 분의 글을 읽고 나도 이걸 수집하자 하고 음반 가게를 뒤지니 어렵지 않게 20여종의 CD와 LP를 구할수 있



있고 후에 다른 음반에 끼어 있는 것도 다수 발견했다. 이들을 일일이 오디오로 들으려니 번거로워서 어느 일요일 카세트테이프에 모아서 녹음을 하여 출퇴근시 차에서 들곤 했다.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몇 곡만 자주 듣게 되니 더 이상의 수집은 중단했다.

이브 몽땅, 줄리에뜨 그레꼬, 로저 윌리엄스, 로라 피기, 빌 에반스 트리오,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 맨 하탄 재즈 콰텟 등의 음반이다.

‘고엽’은 수많은 뮤지션들의 샹송, 발라드, 재즈 연주가 있고 독주 악기로도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색소폰 등이 있다. autumn leaves는 원곡에 미국의 잰니 마더가 영어가사를 붙인 것이지만 가사 내용은 원곡과 전혀 다르고 그저 창밖에 떨어지는 落葉을 보며 감상에 젖는 것이어서 별로 감동적이지 않다. 발라드의 감미로운 선율은 언제 들어도 좋지만...



재즈는 연주자에 따라 다른 편곡이며 참여하는 악기도 다르다.

피아노나 색소폰 혹은 트럼펫으로 주제가 반복되며 리드해가고 베이스와 드럼, 기타 바이올린 등이 참여한다. 싸늘한 바람소리, 황량한 별관, 우울한 분위기에 落葉 구르는 소리와 아름다운 선율 등을 음미하면서 들으면 감동적이다.

그러나 ‘枯葉’의 참 맛은 이브 몽땅의 샹송이 단연 압권이다.

그 가사는 구절마다 晚秋의 우수가 짙게 어리고 인생의 허무함과 고독, 흘러가 버린 옛 사랑의 追憶이 落葉처럼 흩어져 청소부의 삽 속에 담기는 것을, 그리고 바닷가 모래밭에 찍힌 연인들의 발자국처럼 지워져가는 것을 슬퍼한다.

늦은 가을 落葉이 덩구는 거리가 내다보이는 어느 찻집의 창가에 홀로 앉아 짙은 커피 한잔 앞에 놓고 들으면 좋을 것이라 한 분도 있지만,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지나가는 초겨울 늦은 밤 레드 와인이나 꼬냑 한잔 하며 즐겨 듣는 오디오 앞에 앉아 고독과 인생의 허무를 느껴보며 흘러간 옛 사랑을 회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디스카우가 부른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처럼 쓸쓸하게 가슴에 와 닿는 그 무엇 - 追憶일까?

가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파리의 페르라셰즈 묘지에 잠들어 있는 이브 몽땅의 묘비에는 ‘세월은 흘러도 追憶은 남는다’ 라고 쓰여 있다 한다.

“枯葉”을 들으면 추억이 떠올라서일까?

혼자 앉아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 것은 너무나 고독한 취미이기도 하니, 가끔은 한 두달 아예 오디오를 꺼버릴 때도 있지만, 집에 혼자 있다 오디오를 바라보면 음악이 듣고 싶어 다시 진공관에 불을 피우고 기분이 좋을 땐 클래식을 울적할 땐 재즈를 듣는다. 특히 부르스를!

‘枯葉’은 이맘 때쯤이면 듣고 싶은 나의 추억의 곡이다. (dryoongs@hanmail.net)

6시간의 롤러코스트

정만진 율령군보건의료원 · 율령



자이로 드롭(gyro drop), 서울 롯데월드의 대표적인 놀이기구다. 40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서서히 70m를 50초에 올라간다. 높이에 따라 공포감도 따라 올라간다. 다 올라가면 “너 떨고 있지?” 하며 겁이라도 주려는 듯 3~4초간 딱 멈추어 선다. 칼을 뽑을 때보다 뽑으려고 할 때 더 무서운 것처럼, 떨어지기 위하여 70m 높이에 매달려 있는 순간 공포감은 극으로 치닫는다. 그리고 갑자기 시속 70~80km로 푹 떨어지면 모두가 으아악~하고 고타함을 지른다. 마음은 꼭대기에 있고 몸만 아래로 떨어져 몸과 마음이 분리된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나 떨어지는 시간, 불과 2초. 극한의 공포를 느낄 새도 없이 순식간에 끝나고 모두들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안전벨트를 풀고 나온다.

롤러코스트(roller coaster)는 스틸 넘치는 놀이기구의 원조다. 이것은 1884년 미국인 톰슨(E. Thomson)이 발명한 것으로 소형객차를 연결하여 급커브나 급경사의 고가 궤도 위를 관성을 이용하여 달리게 하는 오락시설이다. 발달에 발달을 거듭하여 이제는 나선(螺線)으로 360도 회전하기(spiral)도 하고 수직으로 곤두박질(loop)치기도 한다. 조마조마하여 손에 땀이 나고 발에 힘이 들어가서 저절로 비명을 지르도록 만드는, 무섭지만 아주 재미있는 놀이기구의 대표이다. 스틸과 공포에 비명을 지르고 눈물이 나오지만 불과 2~3분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자이로드롭(gyro drop)

이 외에도 신기하고 무서운 놀이기구는 많다. 바이킹도 있고, 고공파도타기와 혜성특급, 그리고 아틀란티스와 인디애나 존스 등 공포와 스틸을 느끼게 하는 놀이기구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대부분 3분을 넘지 않고, 아무리 길어도 5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총계 56초밖에 걸리지 않는 자이로 드롭이나 4분도 되지 않는 롤러코스트를 타면서도 공포와 스틸에 온 몸이 움츠려 드는데, 6시간의 롤러코스트를 탄다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타본 무서운 놀이기구는 70년대 후반, 옛날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청룡열차를 타 본 것이 전부다. 지금의 놀이기구들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러나 30년이 다 되었지만 철거덕거리며 오르막 궤도를 오를 때의 불안과 급경사를 내려올 때의 그 스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롤러코스트(roller coast)

그런데 내가 이곳 동쪽 심해선 밖의 한 점 신비의 섬, 울릉도로 들어온 후로 심심찮게 500리 바닷길에 펼쳐진 길고 긴 롤러코스트를 타게 되었는데, 지난 2월에는 무려 6시간의 롤러코스트를 경험하게 되었다.

겨울 동해(東海)바다는 거칠다. 특히 2월의 동해바다는 거칠게 날뛰고 변화무상하다. 더욱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운항하는 쾌속 여객선 썬 플라워(sunflower)호가 2주 동안 정기 검사와 정비를 하기 위하여 운항을 중단하고, 대신에 씨 플라워(seaflower)라는 작은 배

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썬 플라워 호와 씨 플라워 호, 둘 다 이름도 비슷하고 날렵하지만 성능과 크기에서는 어른과 유치원생 같다. 썬 플라워 호는 길이 80m, 2394톤으로 920명(개조 전에는 815명)의 승객과 승용차 16대와 화물을 싣고 45노트(83km)의 속력으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3시간에 주파하는 쾌속선이다. 반면에 씨 플라워 호는 52m 길이에 439톤으로 403명의 승객만을 실을 수 있으며 32노트(59km)로 항해하며 4시간 넘게 걸린다.

씨 플라워 호도 혼자 도동항에 있을 때는 어엿하고 커 보이지만 썬 플라워 호와 같이 정박해 있으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인다.

지나새나 물으로 물으로 향하는 그리운 마음을 가진 우산국 사람들도 2월, 특히 썬 플라워 대신에 씨 플라워가 다니는 시기에는 물으로 드나드는 것을 꺼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그 시기에 회의가 있어 육지를 갔다 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나갈 때는 날씨가 좋아 장관이었다. ‘장관’이란 파도가 없어 장관이 깔린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것같이 배가 흔들리지 않을 때를 말하는 이곳 사람들의 고유한 표현이다. 4월에서 11월까지의 태풍만 오지 않으면 동해의 항해도 비행기나 KTX보다 안락한 장관의 유람선이다.

그런데 내가 울릉도로 들어오는 날 기상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울릉도인(島人)들은 며칠의 일기를 볼줄 알아야 한다. 씨 플라워 호는 작기 때문에 파고(波高)가 3m만 넘으면 항해를 하지 않는다. 그날은 바람도 있고 파도도 높을 것 같았다. 제발 뜨지 말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확인 전화를 했는데 이외로 오후 1시에 씨 플라워 호가 뜬다는 것이었다. 배가 뜨는데도 불구하고 육지에 남아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도인 공무원들은 들어가야 하는 날 배가 뜨면 무조건 배를 타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도인생활 22개월, 2시간을 오다가 회항도 해 보고 3시간 거리를 6시간 넘게 타보기도 한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아마도 오늘은 가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고생계나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미 예방을 위하여 아침밥도 적당히 먹고 1시간 전에 멀미약도 먹었다. 울릉도는 인구도 적고 겨울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여객선 터미널에 오면 거의 아는 사람이라 인사하기 바쁘다. 그날의 인사 말미에



sunflower and seaflower

는 “오늘 고생 좀 하겠제?”하는 것이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배 안으로 들어가니 모두들 긴장되고 걱정하는 표정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누울 준비를 하고 매트를 들고 들어왔다.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멀미가 심해진다. 그래서 배안의 온도를 낮게 할 때가 많다. 나는 추위를 많이 타기에 코트를 입은 채로 포켓에 손을 넣고 자리에 앉았다. 멀미약 기운이 퍼지는지 약간 졸리기 시작하였다.

오늘따라 배의 시동 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씨 플라워 호가 서서히 내항을 빠져나갔다. 이제 내릴 수도 없다. 항구를 벗어난 씨 플라워 호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롤러코스트가 완만한 커브를 돌 때의 원심력 정도였다. 울릉도는 포항의 북동쪽 217km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처럼 풍량이 심한 날에는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육지를 따라 북상하여 육지와 울릉도 사이의 최단 거리 130여km 지점인 죽전부근까지 올라가서 울릉도로 건너가게 된다. 육지를 따라 올라갈 때까지는 동해의 롤러코스트는 좌우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나선(spiral)도 곧두박질(loop)도 없었다.

갑자기 배가 빙글빙글 몇 바퀴 돌더니 붕 뜨는 것같았다. 그리고 “차르륵”하는 소리를 내면서 물속으로 곧두박질치고 창문에는 바닷물이 덮쳤다. 배의 속도를 눈에 띄게 줄이는 것같았다. 손발에 힘이 들어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육지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던 배가 직선으로 동해를 건너기 위한 항해를 시작한 것이리라. 또 다시 배가 오른 쪽으로 다섯 바퀴, 그리고 왼쪽으로 네 바퀴를 빙글빙글 돌더니 아까보다 더 높이 치솟는가 싶더니 무중력 상태로 물속으로 처박히는 것이었다. spiral과 loop가 교차하는 동해바다 롤러코스트의 공포와 스릴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울릉도 가는 뱃길

여기저기서 “아~”하는 신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를 질렀으나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꽃같이 생긴 seaflower(말미잘)는 이름 그대로 바다 위에 던져진 한 송이 꽃잎처럼 이리 저리 파도에 흔들리며 트위스트를 추고 있었다.

뒤틀고 오르고 내리기를 시작한지 10여 분, 선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지금 동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하여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30분간은 높은 파도가 예상되오니 움직이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이었다.

벌써 출발한지 2시간이나 지났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항한다는 방송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억지로라도 항해를 계속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사람은 적응하는 데 뛰어난 동물인가 보다. 시속 150km로 달리면 처음에는 무척 빠른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고 치솟고 처박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니 느낌이 둔해졌다. ‘선장이나 선박 회사에서도 괜찮으니까 항해를 시작했겠지? 작다고는 하지만 씨 플라워도 400톤이 넘는데 이 정도 파도에는 괜찮을 거야. 인명재천(人名在天)이라 했는데 여기서 죽을 운명은 아니겠지? 목숨 걸고 전후의 이라크에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에 겁먹어서야 되겠나.’ 하며 스스로를 위

로하였으나, 롤리코스트가 360도 spiral을 돌듯이 빙글빙글 돌다가 붕 솟구쳐서 “차르륵~”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는 또 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나는 눈을 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자꾸만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올랐다.

얼마 전 이집트 근해에서 침몰하여 1,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알람 보카치오 98호에 대한 기사가 떠오르고, 그렇게 단단하고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타이타닉 호의 침몰 영화 장면이 눈에 선하게 나타났다. ‘비행기 사고는 깨끗하고 짧은 시간에 끝나고 보상금도 많은데, 겨울 동해바다에 빠지면 상당히 춥고 생사의 갈림도 길겠지?’ 하는 해괴망측한 생각까지 떠올랐다. 30여 분이 지나자 롤리코스트의 spiral과 loop에 많이 적응이 되는 듯 하였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조화란 말인가?

지금까지의 흔들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튀어오름과 처박힘 그리고 거센 뒤틀림이 교차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폭풍 속의 한 조각 나무토막 같았다.

동해에 새로운 롤리코스트 코스가 생겼단 말인가?

안정을 찾아가던 승객들이 다시 불안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다.

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이제는 조용해 졌던 사람들, 더 이상 토할 것도 토할 힘도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또 다시 짹~ 짹~ 소리를 내며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동해바다 항로에 몇 번의 위험은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행어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하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흔들림은 심해지고 승객들의 불안이 커지는 순간 “비닐봉지(토할 때 사용하는 위생봉투) 필요한 사람 없어요?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에는 앞뒤에 토할 때 사용하는 비닐봉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배가 흔들릴 때는 그것을 가지러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 사람은 승객들의 불안을 없애주기 위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씨 플라워 호도 이 정도 파도에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한 10여 분만 지나면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해군에서 말하는 C-18구역입니다. 파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는 선장도 파도와 싸우느라 승객보다 더 긴장되고 힘들 것이며, 승무원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참으로 적절한 행동을 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비닐봉지를 받아든 승객 한 사람이 무어라고 하자 “저는 승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불안과 공포의 뒤틀림보다 더 놀라워 눈을 뜨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이런 순간에 이런 일을 자청하고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별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기 몸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 이런 순간에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남들 앞에 나선다는 자체가 섬사람의 정서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그 사람이 마치 침몰되는 여객선을 주제로 한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갈팡질팡하는 승객들을 구하는 프랭크 스코트(Frank Scott) 목사님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계는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고 산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따라 5분

이 50분이 되기도, 5초가 되기도 하며, 산이 친근하기도 하고 밍기도 하다. 나는 시계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 시간이 왜 그리 안 가는지! 초침이 마치 슬로비디오 화면처럼 움직였다. 통로에는 누워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여 걸어 다니기도 어려웠다. 미리 매트를 준비해온 사람은 물론이고 양복을 입은 채로 누워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럴 때는 체면차릴 겨를이 없다. 우선 살고 봐야 하는 것이다. 멀미에 지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눕는다.

울릉도행 여객선에서는 언제나 뱃멀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단체로 관광오는 사람들 중에 심하게 토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놈이 울릉도 가자고 했노? 내 다시 울릉도에 오면 사람이 아니다. 자손 대대로 울릉도 가지 말라고 유언을 할 끼다.”라며 같이 온 동료를 원망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깎아지른 절벽과 신비의 봉우리, 그리고 절경의 해안을 보고 돌아갈 때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울릉도 찬가를 부른다. 접근이 어렵고 멀미로 고생하였기에 더욱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다.

극도의 흔들림이 1시간여를 지나자 적응이 되었는지 흔들림이 줄었는지 불안감이 둔해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이 때 “동해안의 높은 파도로 인하여 울릉도 도착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도착 예정시간은 오후 7시, 오후 7시가 되겠습니다.”라는 선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제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6시간의 롤러코스트, 글 제목으로 어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저기 왼쪽 창 밖으로 어렴풋이 울릉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불안감이 가시니 배가 고파졌다. 벌써 오후 6시가 넘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은 거르고 오후 1시에 배를 탔으니 허기를 느낄 만 하였다. 나는 이럴 때를 대비하여 포항 터미널에서 검은콩 건빵 한 봉지를 사서 가방 속에 넣어둔 사실을 기억해 냈다. 2,000원 짜리 건빵 한 봉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였다. 나는 건빵을 꺼내어 옆 사람과 뒤쪽의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건빵 하나를 입으로 넣으려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의 왼쪽 손가락과 손바닥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지 않은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멍 든 것이 아니고 푸른 물감이 묻은 것이었다. 이게 어디서 묻었나 하고 왼쪽 코트 속을 보니 거기에는 내가 만일 토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넣어둔 비닐봉지가 몇 개 있었다. 회색 비닐봉지 겉에는 “●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하여 주십시오. ● IN CASE OF MOTION SICKNESS”라는 글씨와 4대의 여객선 사진이 푸른 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1회용이라서 경제적으로 인쇄를 했기에 습기가 있으면 잉크가 묻을 수 있었다.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불안하여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을 흘리며 그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던 것이었다.



seaflower

배가 서서히 울릉도 도동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썬 플라워 호가 씨 플라워 호에 비하여 그렇게 크고 안전한 배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 장관같은 항해가 얼마나 복 받은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육지가 이렇게 반가운 곳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땅 위에 두 발 올려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하선하는 승객들의 얼굴에 공포와 스릴은 간 곳이 없고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였다.
 6시간의 롤러코스트,
 긴장의 땀으로 손이 시커멓게 물들었지만 참으로 재미있었다, 지나오고 나니 말이다.



두 발을 땅에 두고

- ♠ 평소의 울릉도 뱃길은 비행기나 KTX를 타는 것처럼 안락하다.
 이 글의 소재가 된 날은 1년 중 한두 번 있는 특별한 날이었다. 행여 울릉도 가는 길이 항상 6시간의 롤러 코스트로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jnj31@hitel.net)

참된 봉사

이석균 청십자의원 · 경산



2005년도 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 본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005년도 모범 자원봉사자로 추천을 하겠다기에 완강히 사양을 하였으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다방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달라라는 마음으로 승낙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본상을 받게 되어 일선에서 묵묵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본인을 추천한 동기는 자원봉사센터가 창립될 때부터 자원봉사 교육을 자청해서 이수하고 초등학교를 위한 봉사체험 단체인 ‘꿈나무 봉사단’ 초대 단장을 맡은 후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1985년도부터 지금까지 청강장학회를 통해 초·중·고·대학생 270여명, 봉사단체 및 경로당 지원 60여곳 등 22년 동안 9,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고등학생을 초청하여 내고장 알기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모임 장소인 ‘배움의 모임터’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불우이웃을 방문할 때 경비를 지원해 주며, 특히 경산성림인터랙트클럽을 창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마음을 심어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병원 앞 10평 정도에 의자를 준비했으며, 병원 대기실을 개방하여 오지행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장에는 음용시설을 준비하여 시장 노점상들이 자유롭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시작은 1984년도부터 수입의 약 10% 정도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뜻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입이 감소하고 지원은 많아져서 수입의 20%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

니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여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였으나 지금은 봉사는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배움이요,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만족이라 생각합니다.

봉사는 절대로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경제적인 능력,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여 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봉사란 남에게 알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



답이 되지 않게 꾸준히 하다보면 봉사의 참맛을 느낄 수 있으며 봉사가 일상생활화됩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는가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하였는가를 더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참된봉사란 물론 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본인의 재산을 남에게 기부하는 것이 셋째요, 남이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남이 슬퍼할 때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것이 둘째라면, 자신의 언행이 남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참된 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사회가 좀더 평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사의 본분은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봉사입니다. 환자를 나의 가족같이 진료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로부터 따뜻한 격려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능시험 보는 아들에게

이봉구 이피부과의원 · 경주



아들아!

이제 날이 밝아 오는구나. 2005년 11월 23일, 오늘은 네가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이다. 잠은 푹 잤니?

하룻만에 다 치르는 시험성적으로 네 진로가 결정되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억울한 면도 있지만 어찌겠니, 주어진 조건에 충실할 수밖에.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 다행이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너무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엄마, 아빠는 담담하게 여길테니까 너도 그렇게 편하게 마음먹고 시험치르기 바란다.

대학생활을 접고 재수를 선택한 네가 집을 떠나 '중로학사'에 들어가고부터 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가끔 네 방을 들어가 보며, 이제 네가 성장해서 이렇게 부모 품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편으론 대견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8년 차이 네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애비가 너랑 참 많이도 놀아주었는데 동생이 생기고부터 너에게 좀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이제 시험이 끝나면 아빠랑 사우나도 가고, 야구도 하고, 등산도 하자구나. 어찌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지 모른다. 애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시험으로부터 해방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지만, 허나 그 뒤로도 시험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세다.

매일의 삶이 시험의 연속이란 생각이다. 하루하루 환자진료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야. 매일 한두번은 후회하게 된다. 좀더 친절하게, 좀더 잘 할 순 없었을까.

사회생활에서도 매번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로 씩씩한 기분이 되곤 한다.

오늘 네가 치르는 시험이 너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술하게 치러야하는 시험의 하나라고 여기며 편하게 마음먹었으면 좋겠다.

엇그제 주일날, 마음이 초조할 텐데도 교회에 나와 예배보고 또 점심식사도 같이 하고 가는 널 바라보며 아빠는 든든한 마음이었단다. 네 나이 적 아빠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자, 이제 출발할 시간이구나!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이 평탄하게 진행되기를, 네가 그동안 익힌 지식이 혹시라도 초조함으로 헛갈리지 않기를,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시험치를 수 있기를, 어치구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행여 너무 고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그리고 주위 친구들도 돌아볼 줄 아는 듬직한 아들이기를 조용히 기도할게.

아들아, 화이팅!

수능날 새벽에 멀리 경주에서 애비가(bk2009@yahoo.co.kr)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사공정규 동국대학교병원 정신과교수 · 포항



가랑잎을 밟는 게 솔잎을 밟는 것보다 소리가 더 크게 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랑잎은 활엽수고 솔잎은 침엽수니까. 가랑잎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센터멘탈하게 만든다. 웬지 감상에 젖게 하고 시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시 한편이 생각난다. ‘가랑잎 한 잎 두잎 떨어지는 가을 밤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 (아! 이건 시가 아니고 오동잎 한 잎 두 잎 하는 <오동잎>이라는 유행가의 노랫말이구나!) 어쨌든 늦가을과 가랑잎, 상당히 어울리는 것 같다.

가랑잎, 가을이 주는 감상에 젖어 이야기가 옆길로 섰다. 하여튼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라는 속담의 원 뜻은 자신의 큰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을 크게 흥분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을 헐뜯기 전에 자신을 먼저 잘 살펴봐야 한다.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는 말하기 좀 빛하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또 “남의 흉 한가지면 제 흉은 열 가지” 등이 있다. 우리는 이 속담들을 주로 남의 탓을 하거나 흉을 볼 때 많이 사용한다.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 훨씬 큰데도 남의 탓만을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예를 들면 시험 공부할 때 저녁에 공부하지 않고 자면서, 어머니에게 아침에 공부할 테니 일찍 깨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깨워도 코만 골아놓고,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일찍 깨워주지 않아서”라며 어머니 탓만 한다.

이런 경우는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도 있다. 평소에는 일도 안하고 보고서를 보거나 감독도 하지 않던 상사가, 그로 인해 사장에게서 꾸중을 듣고 나면 부하 직원을 불러서 보고서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며 난리를 친다.

매사를 남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가장 심각한 곳은 정치판이다. 정치인들은 어떤 사건에 연루되면 하나같이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말한다. 만에 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마저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되어 유감”이라거나, 자신은 ‘깃털’에 불과하다고 우긴다. 그러면서도 몸통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밝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한다. 잘되면(사실 잘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고, 잘못된 일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 있거나 ‘윗분’의 뜻에 따르다 보니 그리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사과하거나 반성은 하지 않고 서로 남 탓하기 바쁘다. 정치인하면 사회 지도자들 아닌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지도자들 아닌가?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에 신경쓰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라는 속담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요모조모 뜯어보도록 하자. 한마디로,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간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갈등이 있으면

내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여러 심리적 대응책을 작동시키게 된다. 이를 ‘대응전략’ 또는 ‘방어기제’라고 한다.

남 탓을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으로는 감정적인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남 탓하는 방어기제를 ‘투사(Projection)’라고 한다. 영사기를 통해서 나오는 스크린의 영상을 보고 그것이 영사기가 아닌 스크린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과 비슷하다는 데서 나온 용어이다.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 사고 등을 타인의 탓으로 돌림으로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투사는 앞서의 일반인에게도 흔히 나타나지만, 정신병환자들은 이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특히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정신병의 증상 중에는 환자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 망상이라는 증상이 있다. 실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투사되어,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해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신병의 증상 중에서, 유명인이 환자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연애 망상이 있다. 주로 인기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그 대상이다. 그 유명인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투사되어, 역으로 그 유명인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상상에 빠지다가 마침내 이를 사실로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투사하는 것, 다시 말해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역시 정신불건강이다.

논어나 맹자에도 “소인은 무엇이 잘못되면 타인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늘까지 원망하는데, 군자는 우선 자기에게 잘못이 없나 반성해보고 잘못이 없을 때 비로소 외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자심반조(自心返照)’ 즉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라”라는 뜻이다. 자기반성에 투철한 사람의 정신이 건강한 것이니 자기반성없이 남 탓만 하는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당연지사다.

요즘은 자심반조, 자기반성보다는 남 탓만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오죽했으면 모 종교 단체에서 몇 년 전에 ‘내 탓이로소이다’라는 운동을 했겠는가? 새삼 되씹어볼 말이다. 그러나 이 ‘내 탓 운동’이 우울증 환자에게까지 확산되어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는 병의 증상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석가의 깨달음의 핵심도 ‘불취외상(不取外相), 자심반조(自心返照)’ 즉 “바깥 모양을 취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라”라는 데 있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바깥모양(外相), 다시 말해 남의 탓하지 말고 자심반조,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보라는 뜻이다. 사실 정신분석치료도 자기 문제를 남이나 외부로 투사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자심반조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석가의 깨달음처럼, 바로 이 투사를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가랑잎은 솔잎만 탓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기 바란다. 형제여, 네 눈 속의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보리라.

(skjk40@hanmail.net)



산/행/기

키나발루 등정기(登頂記)

반재돈 삼성정형외과연합의원 · 청도



키나발루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부 사바주(州)에 위치한 동남아 최
고봉이다. 나는 작년 8월21일-26일 한국외대 산악회 창립 40주년
키나발루 원정에 참여하여 키나발루 로우봉(4,095.2m)을 등정했다.

키나발루는 국립공원으로 세계문화유산 말레이시아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오래된 화산으로 추측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지 않
은 화강암지대로 확인되었고 매년 0.5cm씩 고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산행 기점은 팀폰(Timpohon)과 메실라우(Mesilau) 두 곳인데 팀폰 4km 지점에서 만난다.

<팀폰 기점에서 정상까지는 8.72km>

팀폰 코스가 오르내림이 없이 계속 오르는 데 비해 메실라우 코스는 등반을 시작하여 첫 휴
계소까지 가파른 비탈길을 45분 정도 등정하여 다시 상당한 표고를 내려와서 오른다.

힘도 더 들고 거리는 1.6km 정도 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팀폰 코스(Summit Trail)를 많이 이용한다.

적당한 거리로 육각형의 원두막 모양의 휴계소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과 수도가 있다.

등산 기점에서 0.5-1.0km 간격으로 정상까지 이정표를 세워둔 것이 특이하다.

이번 등정은 메실라우에서 시작하여 라반라타산장에서 1박 하고 다음 날 새벽에 정상 등정
을 마치고 팀폰으로 하산했다.

8월 21일(토)

8월 21일 참가자 87명이 말레이시아항공 MH65기(機)편으로 11시35분에 인천공항을 출

말하여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시 40분(현지시간 15:40)에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도착했다.
 인천-코타키나발루 비행시간은 4시간 35분을 요하고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다.
 <이하 시간은 현지시간으로 표기하고 “코타”는 도시라는 뜻이다>
 키나발루는 코타키나발루에서 버스로 2시간, 97km 떨어져 있다.



메실라우 리조트 산장 안내판

공항에서 전용버스를 타고 2시간 가서 키나발루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다.

가는 도중에 키나발루 전망대가 두 곳 있다. 멀리서 보이는 키나발루의 모습이 흡사 경남 거창의 미너봉 같았다.

신고를 끝내고 봉고형 중형차를 바꾸어 타고 1시간을 가야 메실라우 리조트에 도착한다.

이 구간 도로가 도중에 공사 중이고 좁고 비포장이다. 그래서 버스는 못 다닌다.

봉고를 타고 조금 오르니 오른쪽으로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저녁노을이었다. 키나발루 일출이 유명하다 했는데 노을 또한 절경이었다.
 어두운 산길을 수없이 굽이돌아 오르내리는 동안 산언덕에 위치한 마을이 철야성으로 비쳤고 산악지대가 불빛으로 야경이 좋았다.
 오후 7시 30분에 메실라우 리조트에 도착했다. 현지 안내원들이 한결같이 친절했다.
 먼저 레스토랑에 들러 저녁식사를 했다.
 레스토랑이 크고 음식은 말레이시아 음식으로 뷔페다.
 1시간 후 숙소를 배당 받았다. 우리 내외는 <Witti Lodge 2, A-Room>이다.
 우리나라 자연휴양림 같은 구조인데 규모가 크고 산장(lodge)이 많다.
 산장으로 가는 길은 포장되어 있고 가로등이 켜져 있다.
 이곳 말레이시아는 비가 자주 오고 습지대이다. 그래서 건축 양식이 우리와는 달리 1층은 그냥 허드레 공간으로 쓰고 2층 이상에 주거시설이 있다. 거의가 목재다.
 우리가 들어간 산장은 한 동(棟)에 로지 2개가 있다. 가운데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고 한 로지(산장)에 아래위로 모두 방이 네 개씩, 아래 하나는 응집실로 소파 TV 카세트 물 끓이는 주전자 등이 있다. 나머지 방 세 개가 ABC Room이다.
 방이 제법 넓고 침대와 화장대가 놓여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다.
 이들 산장이 표고 2,000m 숲 속에 위치하여 아담한 별장 같다.
 이 지역을 메실라우 리조트지구라 하여 여러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8월 22일(일)

오늘은 메실라우 게이트에서 시작하여 라반라타산장(표고 3,353m)까지 오른다. 아침 9시 조동식회장의 인사말과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듣고 기념촬영을 하고 등반을 시작했다.

1박 2일 등반에 필요한 것만 챙겨 오른다. 나머지는 여행가방에 넣어 여행사에 맡긴다.

야간 산행에 필요한 장비 <우산과 우의 헤드랜턴 그리고 윈드재킷>은 필수품이다.

최소 분량으로 줄였는데도 아내 배낭이 6kg 내게 5kg이다.

등정에는 한국여행사에서 나온 전문 가이드 3 명과 현지가이드가 등산객 8명당 한 사람씩 따른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포트가 붙는다.

나는 무거운 배낭을 포트에게 맡겼다.

요금은 라반라타산장 왕복에 kg당 2,500원 정도 6kg에 14달러(16,000원) 점심 도시락을 코타키나발루 한인 식당에서 준비하여 나누어주었다.

등정 초입부터 가파른 숲길이다. 40여분 오르니 비로소 능선에 닿고 조금 오르니 첫 휴게소다.

육각형으로 목재로 세운 휴게소에는 영어로 휴게소 이름이 붙어있고 그 안벽에 휴게소 표고와 앞뒤 휴게소간 거리를 인쇄한 종이 붙여있다.

처음에는 그것을 못 보고 그냥 갔다. 그리고 “KM 1” 등으로 표기한 팻말을 예사로 보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등산 기점에서부터의 이정표였다.

< KM 1 = 1 km >

첫 휴게소를 지나 완만한 능선을 조금 오르니 시야가 트였다. 오른쪽으로 메실라우 리조트 뒤로 솟구쳐 있는 웅장한 암벽이 마주 보이고 왼쪽으로는 멀리 산악 마을이 보인다.

한동안 걸어가니 양옆이 산죽 군락이다. 우리나라 산죽과는 다르게 가느다란 것이 꽤나 길다. 주위는 키 큰 나무숲으로 정글에 가깝다.

등산로는 산죽 사이로 내려간다. 작은 계곡을 건너 골자기로 파고들면서 계속 내리막이다. 계곡을 출렁다리로 건너고 더 가서 나무다리 두 개를 건넌다.

올라 온 높이보다 훨씬 더 내려가는 것 같았다. 등산이 아니라 하산이다.

- 백두산 서북릉 중주산행 시 청석봉과 백운봉 사이 계곡을 건너는 데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내려가 다시 오른다.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다. -



키나발루 등정 다음날 현지 한국인 식당에서
(왼쪽에서 필자, 아내, 엄홍길등반대장)

작은 계곡을 끝으로 다시 등산을 시작한다.
 가파른 오르막을 20분 오르니 휴게소다. 잠시 쉬었다가 또 오른다.
 등산객 행렬이 한 줄로 이어오다가 오르막이 길어지니 앞뒤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



메실라우리조트 레스토랑 앞(맨 우측 필자)

전하고 빈약한 시설은 볼 수 없다. 사다리를 올라서 10분 걸으니 전망 좋은 <Pondok Lompoyou KM 4.5 >휴게소다.

(메실라우 기점 4.5km에 위치한 롬포유휴게소)

- 어제 봉고를 타고 올라온 길이 멀리 보였고 철야성 같았던 그 언덕이 쉽게 짐작됐다.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메실라우까지 엄청 먼 길을 굽이돌아 온 것이다. -

13시 5분에 Tikalod 휴게소에 도착했다. 휴게소 가운데 유일하게 식수시설이 없었다.

출발 전에 6번째 휴게소에는 물이 없고 곧 이어 있는 7번째 휴게소에 수도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보니 티카로드휴게소가 메실라우 6번째 휴게소였다. 조금 걸으니 팀폰 코스와의 교차로다. 한국인 가이드가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선발대가 올라간 지 한참 되었다 했다. 그래도 우리가 선두 그룹이라 했다.

갈림길 바로 아래 라양라양(Layang-Layang 2,740m) 휴게소가 있다. 이 휴게소는 갈림길 아래에 자리를 넓게 잡아 이용하는 등산객이 많았다. 휴게소에서 쉬면서 도시락을 먹었다.

<라양라양휴게소가 7번째 휴게소라 했는데 정확하게는 팀폰 5번째 휴게소다>

13시 50분에 라양라양휴게소를 출발하여 라반라타산장을 향해 올랐다. 여전히 오르막이다. 유난히 큰 돌이 많고 황토의 노출이 심했다. 그것이 이 구간의 특징이라 한다. <강알카리성 토양>

키나발루산에서 유명한 식충식물 “Lepenters Villosa”가 이 구간에 서식하고 있다.

꽃보다 잎이 더 유명한 식물로 잎 주변에 숨겨진 꿀에 이끌려 곤충이 안으로 들어서면 탈출로가 가시로 차단되어 잡아먹힌다. 주황색 빛깔로 얼른 보면 꽃 같다.

우리 내외를 포함하여 여섯이 한 조가 되어 오르고 있었다. 가도 가도 끝을 짐작할 수 없는 오르막이다. 지루하고 힘이 들었다. 그래도 동남아 최고봉을 오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견디어 냈다.

큰 나무가 넘어져 있고 숲이 우거져 산짐승이 있을 만 한데도 그런 흔적은 없었다. 가파른 오르막에 한 사람이 겨우 오를 수 있는 높다란 사다리가 놓여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는 그런 불안



그 유명한 식물이 눈에 띄어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오후 산행인데다가 고도가 높아지니 걸음은 느리고 숨이 찼다.

비로사(Villosa 2,960.8m)휴게소에 14시 50분에 도착하여 5분을 쉬었다.

간간이 구름이 비껴나가면서 키나발루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정상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시커먼 암산으로 그저 웅장했다.

나루가 키가 작아지면서 그늘이 없어지고 오를수록 맥이 빠졌다.

당연한 결과인 데도 고도에 신경이 쓰였다.

외대 산악회 지도교수 안교수와 그 일행이 우리를 앞질러 갔고 그 외 아무도 추월하여 오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어지간히 힘겨웠던 것이다.

Paka휴게소에 15시 22분에 도착했다. 표고 3,080.4m 이제 3,000m이상 고도에 오른 것이다. 라반라타산장(Laban Rata Resthouse 3,353m)을 500m 남겨둔 지점이다.

잠시 쉬었다가 오르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천둥이 쳤다. 여기는 하루에 한두 번 소나기가 쏟아진다. 오늘은 피해 가는 가 했는데 그게 아니다. 곧 한줄기 쏟아질 기세였다.

다행히 우리가 라반라타산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참아주었다. 산장 식당에 들어서니 먼저 온 분들이 반갑게 환영해주었다.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천둥과 함께 비가 쏟아졌다. 운이 좋았던 게다. 뒤에 오른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혹은 우의를 입고 고생하며 올라왔다. 그래도 모두 한결같이 감격스러운 모습이었다.

다음 날 등반이 새벽 2시 30분부터다.

그래서 오후 4시 반에 일찍 저녁 식사를 시작하여 8시에 침대에 들었다.

라반라타산장은 콘도 같다. 아래층에 식당 등이 있고 위층에 방과 화장실 샤워장이 있다.

한 방에 12명이 들어갈 수 있고 개인 침대가 비치되어 있다.

우리 내외는 11호실에 들었다.

22일 산행 <거리 7.5km 시간 7시간>

메실라우게이트 - (4:00) - 량량휴게소 - (2:00) - 라반라타산장



8월 23일(월)

새벽 2시에 기상하여 식당으로 내려가 간단히 음료수와 간식을 하고 동지나해의 일출에 맞추어 2시 반에 등반을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오르면 사얏사얏산장(Sayat-Sayat Hut 3,810m)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이 키나발루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산장이다.

여기서 등반 신고를 하고 내려올 때도 신고한다. 사얏사얏산장에서 1-2시간 오르면 정상인 로우봉(Low's Peak)에 도착한다.



아내와 나는 선두 그룹에 끼여 출발했다. 어두움으로 사방을 분간할 수 없고 헤드랜턴에 의지하여 오른다. 절벽 같은 경사에 사다리를 밟고 오르는데 난간이 몹시 찼다.

잠시 올랐는데 아내가 속이 체한 것 같다 했다. 직감으로 고소증상이다 싶었다.

고소증이면 하산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내려갈 엄두가 내키지 않았다.

옆으로 비껴 앉아 쉬면서 적응되기를 기다렸다.

- 나중에 안 일인데 아내는 간밤에 두통으로 잠을 못 자고 밖을 들락거렸다. 표고 3,000m 이상 고산에서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면 고소증이다. 적응 노력 없이 갑자기 고도를 높이면 고소증이 오기 마련이다. -

조금 낫다하여 난간을 잡고 조심스레 올랐다.

대열은 쉬지 않고 사정없이 오르기만 하고 랜턴불빛이 거의 일직선으로 위로 치솟고 있다. 뒤로 현지 가이드 두 사람이 따랐고 아래쪽에서도 랜턴불빛이 비쳤다.

나도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갑갑해 왔다.

1시간에 오를 사얏사얏산장까지 2시간 걸렸다. 불과 1km 안팎의 거리인데.

산장에 들려 신고를 하고 수통에 물을 채우고 밖으로 나와 쉬었다.

이를 경우 물이 생명이다. 고소증 예방에는 물이 꼭 필요하다.

사얏사얏산장을 지나면 수목지대가 끝나고 암석지대로 식물서식한계점이다.

등산로가 따로 없고 암석 위에 흰 밧줄이 정상까지 깔려있다. 밧줄을 따라 완만한 사면을 오른다.

숨이 차고 맥이 빠져 걸음이 무거워졌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서 50보를 걷고 쉬었다.

그렇게 반복하며 올라가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갑자기 졸음이 왔다. 기(氣)가 다 빠지고 몸은 천근이다.

정상 등정을 포기할 까도 싶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억울하여 견디는 데까지 가보자 하고 조심스레 발자국을 옮겼으나 불



안하고 겁도 났다.

날이 밝아 왔다. 힘겹게 오르고 있는 등산객이 우리만이 아니었다.

한결같이 패잔병처럼 말도 표정도 없이 이끌려가듯 무겁게 오르고 있었다.

동지가 있으니 위로가 됐다.

나는 차츰 나아지는데 아내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더 이상 오르는 건 무리라 판단되어 정상 등정을 만류하고 그 자리에서 쉬게 했다.

뒤따라오는 등산객이 이번 원정에 참가하여 알게 된 고교 후배 내외라 그와 현지가이드에게 아내를 부탁하고 혼자서 올라갔다.

조금 오르니 동쪽 하늘이 환해졌다. 정상이 눈앞으로 다가섰는데도 마지막 가파른 오르막이 20분은 넘게 걸릴 것 같았다. 일출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암반 위에 섰다.

6시 07분 엷은 구름에 가린 채로 별절게 해가 솟았다. 키나발루의 제1경 ‘동지나해의 일출’이다. 고소 타인지 우리나라 지리산천왕봉에서처럼 황홀한 감동을 느낄 수 없었다.

정상을 향해 오르는데 조동식회장과 엄홍길대장 등 선두 조가 내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밝았고 걸음도 가벼웠다.

정상 오르는 길이 바윗등 길이라 밧줄을 잡고 오른다.

드디어 6시25분에 정상에 올랐다. 비 좁고 허술했다. 정상표지는 나무로 “정상 로우봉 4,095.2m”라고 새겨 세워두었고 동쪽으로 철주를 세워 쇠사슬로 막아두었다.

그 너머로 내려다보니 절벽의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해 아찔했다. 깊은 골이었다.

등산객에 밀려 잠시 정상표지 팻말을 만져보고 내려섰다.

아래로 아내의 위치를 살피니 보이지 않았다.

불안해 쫓기듯 내려가는 데 멀찌감치 아래쪽에서 아내가 가이드와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

반가움보다 자책감이 앞섰다.

박상열대장이 히말라야 K2봉 원정 시 1차로 올라가 정상을 얼마 남겨두고 셀프를 살리기 위해 정상등정을 포기했던 일화가 떠올랐다.

아내에게 계면쩍고 죄송했다. 아내는 정상표지 팻말 뒤에 서서 감격의 한숨을 쉬었다.

가이드에게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내어 기념사진을 찍었다.

내려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8시에 사얏사얏산장에 들러 하산신고를 하고 라반라타산장에 도착하니 8시 35분이었다. 내려오면서 다시 라반라타산장과 사야사얏산장 사이 절벽에 설치되어 있는 좁다란 사다리를 쳐다보니 거의 일직선으로 매달려 있다.

< 라반라타산장 주위에 네 개의 산장촌이 있다. 라반라타와는 시설이 다르고 콘도와 산장으로 비유된다. 영어 표기가 다르다- Laban Rata 'Resthouse' / Panar Laban 'Hut' Hut에는 주로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온 사람들의 이용이 많았고 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람이고 미국 사람도 눈에 띄었다 >

산장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배낭을 챙겨 쉴 사이도 없이 9시에 하산했다. 날씨가 좋고 전망이 트여 한결 몸이 가벼웠다. 무엇보다 아내가 고소증에서 말끔히 깨어나 제대로 걷고 있으니 기뻐다. 내려오면서 휴게소의 표고를 확인하고 라양라양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10:17-10:20) 라양라양휴게소에서 팀폰게이트까지 4km에 휴게소가 네 곳 더 있다. 어제 올라왔던 메실라우 등산로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다. 계속 내리막이고 하이킹 코스나 다름없다. 팀폰 게이트에서 등산객들이 줄을 이어 올라왔다. 말레이시아 현지인이 대부분이고 외국인도 적지 않았다. 마지막 휴게소 Kandis(팀폰게이트 793m 지점)를 지나서 한동안 급경사 내리막이고 그 아래에 Carson's 폭포가 있다. 크지는 않았다. 팀폰게이트(1,866.4m)에 12시 30분에 도착했다. 산행이 끝났다. 중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성원이 되면 내려간다. 우리 뒤에 25-6명이 아직 라양라양 휴게소에 있다고 했다.



메실라우 리조트 산장

중형 버스를 팀폰게이트에서 공원관리사무소까지 4km 사이만을 운행한다. 포장도로를 따라 산허리를 돌아 내려간다. 이 거리를 걸어서 가면 한 시간정도 소요된다.

이 구간에 일곱 개의 산책길이 있고 그 중 강을 따라 걷는 <Lywagu Trail>가 경관이 가장 좋다고 한다. <공원관리사무소 표고 1,563.8m>

처음으로 표고 4,000m를 등정했다. 고소도 극복했고 성공한 등정이었다.

점심은 시내 중국음식점 연회장처럼 넓은 곳에서 원탁테이블에 앉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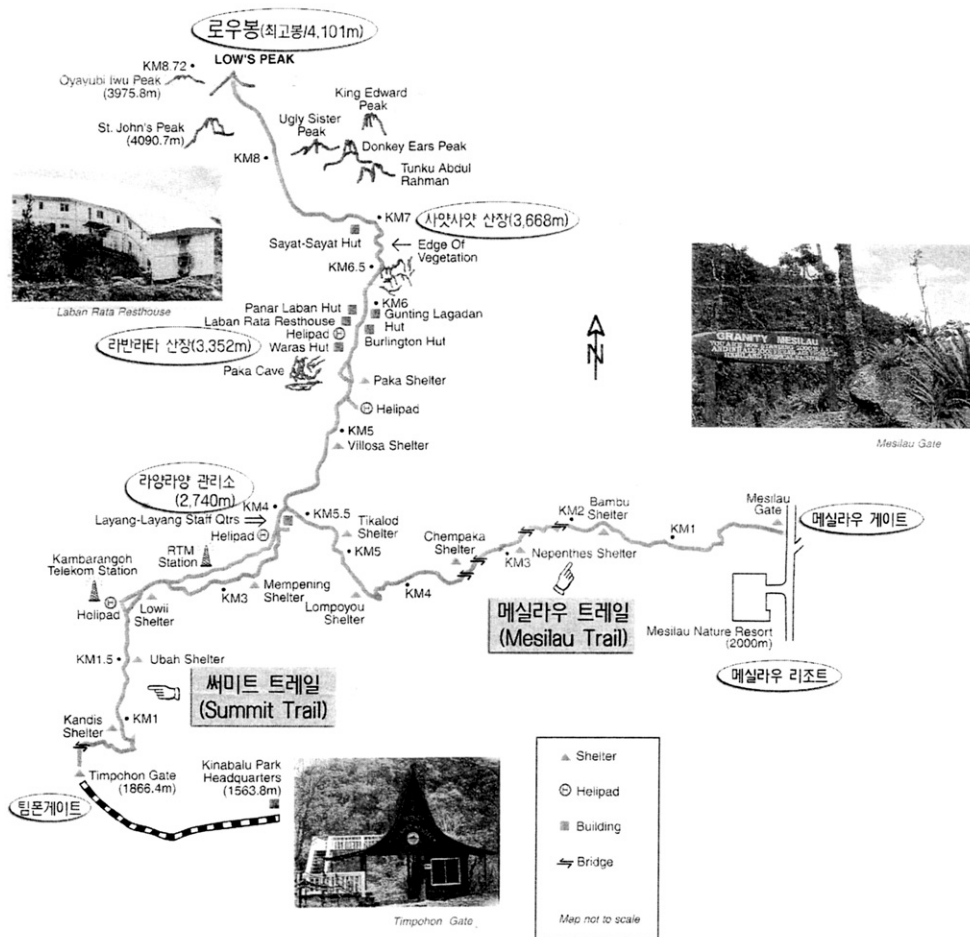
호텔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쉬었다가 저녁 6시에 호텔 연회장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샴페인을 터트렸다. (jdban33@hanmail.net)



23일 산행 <거리 11.6km 시간 9시간>

라반라타산장 - (2:00) - 사얏사얏휴게소 - (2:00) - 정상(로우봉) - (0:50) - 사랏사얏휴게소 - (0:35) - 라반라타산장 - (1:15) - 라양라양휴게소 - (2:15) - 팀폰게이트

키나발루(Mt. Kinabalu)





대방 물리상 바다에는 메밀꽃이
잔잔하게 피어납니다.



안길룡
안외과의원 · 김천



97년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2002 월드컵을 유치하는 과정의 뒷이야기를 신문에 연재를 했다. FIFA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유치홍보를 하는데, 몰디브에 FIFA 위원이 있어 이곳을 찾게 되었다는 내용을 내가 읽게 되었다. 정회장이 세계 여러곳을 다녀 보았지만, 이런 지상낙원 같은 천혜의 아름다운 섬. 바닷가 휴양지는 처음 보았다며, “독자 여러분도 한번 다녀오십시오!”라는 구절을 읽고, 97년 몰디브를 찾았다.

검푸른 인도양 바다위에 점점이 떠있는 섬들, 빛나는 은반지를 뿌려 놓은 듯 아름다웠다.

1200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몰디브, 200개의 유인도에, 80개의 섬들이 전문 휴양지로 개발되어있었다. 중형 비행기 한 대가 겨우 내릴 만한 활주로가 나오는 섬이 홀출레공항.

지구상 마지막 남아 있는 오염되지 않은 휴양지라고들 했다.

질푸른 잉크색, 연두색, 흰색, 초록색이 떠를 이루는 산호바다, 은빛 모래톱, 뭉게구름, 태양이 쏟아지는 하늘, 푸른 야자수 잎사귀에 묻혀있는 오두막집 같은 객실, 탁 트인 시원한 바다를 하나 가득 침대에 누워서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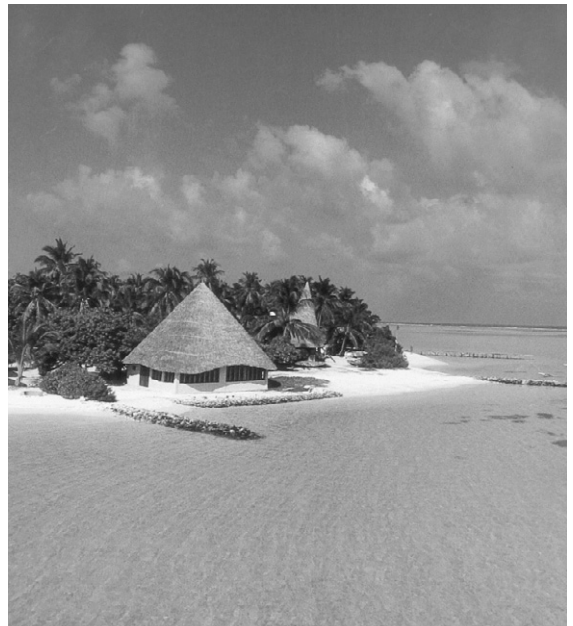
야자나무 잎사귀로 지은 독채의 원두막 같은 오두막, 객실 실내는 별 다섯 개의 호텔 같은 호화스러운 시설이었다. 꽃잎을 따다가 침대 커버위에 “안 길룡씨를 환영합니다.”는 글씨가 수놓아 있었고, 욕조 속에서 유리벽면을 통해 삼면 푸른바다를 볼 수 있게 설계됐다.

원두막처럼 바다위에 떠있는 객실 밑바닥은 통유리로 되어 열대고기들이 보이게 했고, 신문도, TV도 없고, 방안 가전제품은 에어컨, 전화기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테레오 시설밖에는 없었다.

거실 밖에는 일광욕을 즐길수 있는 넓은 통나무 발코니가 있었고, 나무계단으로 바로 바다로 내려갈 수 있었다.

독립된 오두막의 배치로 모래사장파와 바다와 숲에선, 거의 사람을 볼 수 없어, 무인도에 나 혼자 와 있는 것 같았다. 사람도 없고, 오직 들리는 것은 잔잔한 파도 소리와 초록빛 바다뿐이었다. 날짜도 시간도 알 필요가 없고, 모두가 멈추었다.

새벽에 스피드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참치낚시, 한국에서 인터넷 소리바다에 흘러간 노래들을 다운받



아 CD로 구워와서, 항상 음악을 열어놓았고. 독서, 휴식, 낮잠과 산책이 전부의 일과였다.

이 섬에서 한국 사람은 우리 둘 뿐, 전부 유럽 사람들이었고, 이 섬에 있는 동안 나는 흰 모시 바지저고리에, 흰 중절모를 쓰고, 접었다 펴는 부채를 쥐고 다녔다. 복장이 시원하고 보기에든 깨끗하고 멋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해서였다. 캄둥이 직원과 유럽 사람들의 좋은 시선과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다. 리조트 매니저로부터 온 도움의 전화였다.

리조트 투숙객중 환자가 생겨 도와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환자는 50대 중반의 스페인 여성이었고, 스페인어를 여행하고 이곳으로 왔는데, 어제 밤새도록 고열과 복통 설사로 화장실을 10번 정도를 다녔다고 했다. 환자를 침대에 눕혀 진찰을 했고, 청진기가 없어 내 귀를 환자의 배에 직접 대며 청진을 했으며, 대화는 나는 영어로 했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하는 리조트직원이 스페인어로 환자에게 이야기 하는 식이었다.

작은 우리 섬에서 병원이 있는 수도의 섬까지는, 스피드 보트로 10시간, 아니면 수상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했다. 내가 가지고 간 비상 설사약은 부족했다. 그래서 호텔 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비약을 전부 모았고. 이 약들로 조제를 해서 환자에게 복용토록 했으며, 음식은 물과 이온음료와 흰 죽을 먹도록 처방했다.

매일 아침 왕진을 했고, 경과는 놀랄 만치 호전되었다. 환자는 흰죽은 정말 먹기 싫다며, 쏘세지와 베이컨 홍차를 먹고싶어 했지만, 그래도 죽을 먹으라고 하니, 아침 식사 때 식당에서 만나면, 쪽빛 바다를 바라보며 먹기 싫은 죽 한 그릇을 놓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 마지못해 먹고 있는 것을 보니 기특스러웠다.



공항에서 입국 시에 직업란에 의사라고 적은 것뿐이었는데, 리조트 매니저에게 내가 의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리조트에서 본섬에 응급환자 발생 텔렉스를 띄우니, 본섬에서 너희 섬 안에 의사가 있다. “안길룡이라는 투숙객을 찾아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부터 나는 VIP의 대우를 받았다. 아침 바다낚시를 가면 직원 한명이 큰 은쟁반에 여러 가지 열대과일을 준비해서 함께 댕으며, 커피와 홍차세트도 함께 준비를 해왔다, 우리부부는 인도양의 참치낚시를, 남들이 대접받을 수 없는 VIP낚시로 매일 아침 즐길수 있었다.

밤이면 인도양의 시원한 바람, 총총히 빛나는 별들, 파도소리, 밝은 달빛에 흰 모래톱은 신부의 드레스 같았고 그 위에 야자나무 그늘이 천천히 흔들린다. 잔잔한 바다위의 달빛은 하얀 메밀꽃이 하나 가득 피어있는 들판이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렸다. “달이여 저 밝은 달이여! 희미한 추억에 잠기는 한 많은 집시의 달이여!”

하느님이 만든 처음의 세상은 모두가 이렇게 오염 없이 아름다운 곳이었을 텐데, 사람들이 편리한 세상을 만든다고, 열심히 개발한 지금의 세상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경쟁터가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열심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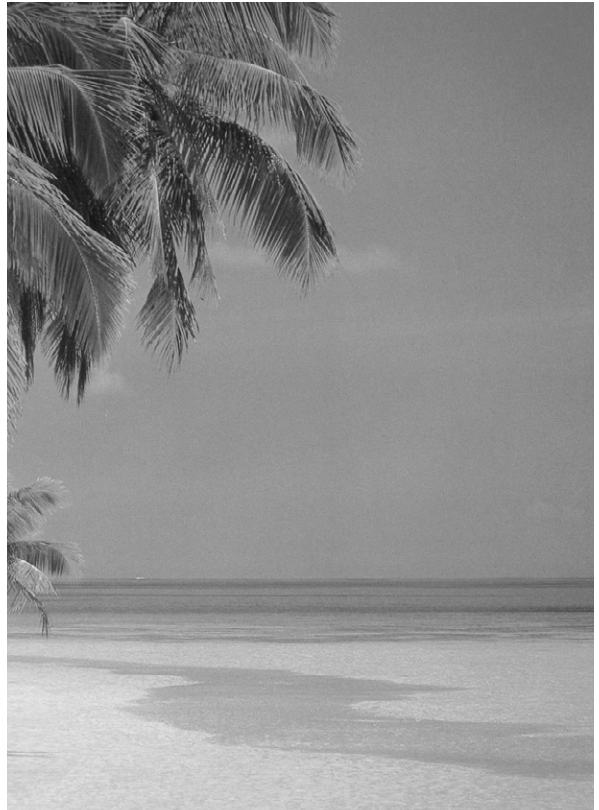
휴가를 마치고 떠나는 날, 나는 머무는 동안 우리를 친절하게 도와준 직원들에게 서울 인사동에서 준비해간 전통 한복 노리개를 선물했고, 선물을 받은 직원은 야자 잎으로 즉석에서 만든 여치와 귀뚜라미를 선물 하였다.

체크아웃을 하는데, 마사지 경비, 스피드 보트 바다낚시 경비, 매일 저녁 식사 때 즐긴 포도주 경비 일체를, 환자를 봐준 고마움으로, 받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수상비행기를 타러 선착장으로 나갔는데, 리조트 매니저와 직원이 짐을 날라주며, 전송을 나와 주었고, 시원한 얼음물을 대접 받았다. 비행기는 바다수면을 길게 박차고 하늘로 날랐다. 아름다웠던 섬을 위에서 다시 내려다보니, 선착장에선 아직도 쿵알만치 작아진 두 사람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내 눈시울이 갑자기 뿔뿔해졌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프로정신이라 생각했다.

여러 나라 휴양지를 다녀 보았지만, 아름다운 섬 몰디브 만 한곳이 없어 2003년 다시 한 번 더 다녀왔다.

(sj8211@yahoo.co.kr)





전 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 포항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감염성폐기물은 적출물이라는 명칭으로 의료법의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처리되어 왔으며,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였다. 그러나 2000년 8월부터 그 소관 부처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명칭이 감염성폐기물로 바뀌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는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가 배제된 가운데 만들어진 것으로 그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 처리 및 수거 운반업체의 난립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의 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급기야는 병원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배출자 단체인 병의원들의 처리비용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고 과거의 지도감독 위주의 관리체계가 단속 위주로 바뀌면서 사소한 위반으로 엄청난 과태료를 무는 등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고, 본인도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 일원으로서 그 과정에 참가하여 왔기에 그간의 경과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

환경부는 2003년 9월 22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

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고, 경북의사회에 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을 사전에 입수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본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이 되어 그대로 개정되면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수거운반업체의 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됨으로서 난립된 업체들이 몇 개의 대형업체로 강제 구조 조정되어 독점으로 인한 처리비용의 대폭 상승이 우려되었고, 감염성폐기물 분류에 주사액 앰플 및 캐스트를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감지되었다. 본회에서는 이 내용을 즉시 의협 의무이사에게 알렸고, 환경부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서 2003년 9월 2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으나 당초 우려하였던 앰플 및 캐스트는 감염성폐기물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처리운반업체 시설기준 강화 및 배출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배출자 단체인 의료계는 바짝 긴장을 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2003년 11월 12일 국회에서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그 당시 환경부 산업폐기물 과장은 감염성폐기물 재분류, 명

청 변경 등에 대한 배출자 대표들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를 한 후 개정안을 진행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보다 앞서 2003년 10월 21일 환경부 윤성규 환경정책국장과 이성한 산업폐기물과장은 배출자인 시군구 의사회가 수집운반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특례(냉동탑차 2대)를 인정하기로 약속했으며, 2004년 6월 7일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에서 그 당시 곽결호 장관은 의협의 주장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 이후 의협은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및 법제처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여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초 개정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이 2004년 8월 11일 공포되었으나, 여전히 배출자 단체인 의료기관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의협은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4년 5월 6일 이원보 경남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협 의무이사를 담당이사로 하는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차 회의를 부산롯데호텔에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향후 감염성폐기물의 명칭, 정의 개정 및 감염성폐기물 재분류 작업을 추진하고, 관련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며, 그 당시 진행되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2004년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기까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환경부, 국회, 법제처 및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설득작업을 벌였다.

그 이후 위원회는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2004년 9월 23일 의료폐기물제도 개

선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을 시민환경운동연구소 안병옥 연구원 외 2명에게 의뢰했다. 또한 2004년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원보 위원장은 연구위원 및 환경부 담당자 등과 같이 독일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왔다. 2005년 2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료폐기물 관련 의료기관 실태조사가 서울, 대구, 경남, 순천 등지에서 있었다.

한편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폐기물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용이 규정된 플라스틱 전용용기가 그 생산시설의 미비로 공급이 잘 안되고, 일부 생산업체의 횡포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의료폐기물 위원회는 2005년 2월 2일 각시도 의사회와의 협조 하에 전용용기 공동구매사업을 벌여서 전용용기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였다.

의협의 감염성폐기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위기감을 느낀 처리업체 단체들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2005년 3월 감염성폐기물 명칭 변경 및 재분류에 대한 반대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이 반대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각 시도 의무이사 및 의료폐기물 대책위원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그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하였다.

2005년 5월 7일 서울시의사회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은 감염성폐기물 명칭 변경 및 재분류를 위한 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2005년 6월 10일 그 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시민환경운동연구소 주최로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는 배출자 단체 대표, 처리업체 대표, 환경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모두 토론자로 참석을 하여 향후 의협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노력의 디딤돌이 되었다.

이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의사회 단위로 감염성폐기물 공동처리 위원회 구성, 운반수거업 직접 운영, 중간처리업 직접 운영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었고 기존 처리업체들의 반발 및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 난무하여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 해당 지역의사회장 등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으나, 배출자 단체인 의료계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인하여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2005년 6월 21일부터 각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감염성폐기물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9월 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감염성폐기물제도 개선을 위한 민원 제기를 하였으며, 2005년 10월 11일 의협, 병협, 환경운동연합 산하 시민단체,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공제조합 등의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민환경연구소의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체계를 갖고 관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만들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에 합의하고, 아울러 현행 폐기물 관리 제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2005년 1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배일도 국회의원 주최로 감염성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관을 하였고, 각 이해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현행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로 향후 법개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고, 각 이해단체들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리라 예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가 개선이 된다고 배출자 단체인 의료기관에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도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관리체계는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고, 애초부터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가 배제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금까지 여러 의료기관이 고통을 당했던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단속을 개선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의료폐기물처리에 대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med828@hotmail.com)

국가별 분류체계 비교

분 류	WHO	UNEP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병리계 폐기물 ¹⁾	○	○	○	○	○	○	○	○
감염성 폐기물	○	○	○	○	○	○	○	
손상성 폐기물	○	○	○	○	○	○	○	○
독성 폐기물 ²⁾	○	○	○	○	○	○	○	#
약제 폐기물	○	○	○	○	○	○	×	×
폭발성 폐기물	○	×	×	×	×	×	×	×
탈지면류	×	×	×	×	×	×	×	○
폐흡성수지류	×	×	×	×	×	×	×	○
혼합감염성폐기물	×	×	×	×	×	×	×	○
가정의료폐기물	○	×	×	○	○	○	×	×

1) 조직물류로 명명

2) 미생물 배양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 유전독성폐기물, 독성화학물질 포함

○ : 의료폐기물에 포함

: 일부만 의료폐기물에 포함

× : 의료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음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459호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廢棄物管理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중 ‘感染性廢棄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2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성 환자·동물로부터 배출되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폐의약품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4호의2에서의 감염성 여부의 판단기준 및 기타 의료폐기물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9항 중 ‘感染性廢棄物’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군산군도를 배를 타고 관광을 한 후...



전북.경북의 친선행사의 둘째날엔 2개조로 나뉘어 한편은 골프를 치고, 한편은 고군산군도를 관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는 골프팀이었으나 지난 1월 쇄골 골절과 불유합으로 골이식수술을 하여 아직은 골프를 칠 수 없어서 관광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골프를 치지 못함이 조금은 아쉬웠으나, 관광 후에는 오히려 골프를 치지 않고 관광을 하길 잘 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전 8시에 군산 위키힐 호텔을 출발한 버스는 어떤 이들은 '미래를 보여 주는 청사진'이라 주장하고, 일부환경단체에서는 '망조(亡兆)'라 일컫는 새만금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공사의 규모는 나의 상상을 넘어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남겨두고 중단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잠시 후 우리 일행은 고군산군도 관광을 위하여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누군가는 망망대해에 홀로 존재하는 섬을 보고 섬은 고독하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두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섬, 그러나 바다 한 가운데에서 맞는 바다 바람은 언제나 정겹고 촉촉하여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 자리 잡은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는 바다 위에 솟은 수많은 섬들의 모습이 마치 연이어진 산봉우리를 닮았다 해서 고군산군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울망줄망 크고 작은 섬 63개가 모인 고군산군도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섬들의 군락이며, 바다가 섬을 에워싼 게 아니라 섬들이 바다를 끼안은 듯합니다. 선유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방축도, 야미도, 관리도, 비안도, 단도, 말도 등 수 많은 섬들이 반경 24킬로미터 내의 해역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행은 2척의 유람선에 나누어 타고 선착장을 빠져나가 항해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씨가 늦 여름의 햇살이 비치면서 호수처럼 느껴질 정도로 바다가 잔잔하였습니다. 우리는 군산시의사회에서 준비한 병어회와 막걸리를 마시며 신선한 바다 바람을 머리에 부딪히며 관광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유람선의 남정길 선장님께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



리에 섞여 들려주는 고군산군도와 섬, 바위, 동굴에 얽힌 전설과 해설은 콧등에 바다 바람이 와 닿는 것과 어울려 경상도 사람의 귀와 눈과 마음을 한층 즐겁게 하여 주었습니다. 선장님의 안내로 무슨 바위나 암석을 보면서 해골, 코끼리, 사자, 물개 원숭이, 귀신 등등의 형상을 찾아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서해안에도 이렇게 멋있는 섬들이 있는 줄 몰랐으며 마치 남해안의 다도해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관리도에 산재해 있는 해금강은 빼죽 빼죽 솟은 사원을 연상케하고 금강산의 만물상을 옮겨놓은 듯 절경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뚫린 천공바위와 용이 날아올랐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비룡굴을 만나고, 유람선은 물살을 가르며 방축도로 향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독립문 바위와 시루떡 바위를 구경할 수 있으며, 여러번 T.V등에서 보아온 멋진 주름이 저있는 아주 인상깊은 책바위를 만났습니다.



장자도에 우뚝 솟은 사자모양의 바위— 일명 장자할매바위로 불리 우는 사자바위. 장자할매바위는 장원급제해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다 남편의 배신에 아들과 함께 돌이 되어버린 장자 할매의 전설을 선장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돌아 올 때 할매 바위는, 뒤에서 보니까 하얀 띠를 두르고 애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상하게 몽클했습니다.

무녀도는 그 이름과는 달리 무녀(巫女)가 없고, 무녀봉앞에 장구모양의 섬과 그 옆에 술잔처럼 생긴 섬 하나가 붙어 있어 이 전체를 보면 무당이 제당에 상을 차려놓고 춤을 추는 모양이라고 하여 무녀도라 부르게 되었고 작지만 기품 있는 섬이었습니다.

고군산열도의 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섬 선유도는 말 그대로 신선이 놀다간 듯한 선경(仙境)을 안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고려시대에 최무선이 왜구를 무찌른 진포해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에는 병선들의 정박 기지로 이용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워 선조들이 예로부터 이름붙인 '선유팔경'을 지니고 있는 선유도. 선유팔경중 대표적인 것은 고군산군도의 섬들을 배경으로 서해로 지는 낙조가 유난히 아름다운 선유낙조(仙遊落照)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일정상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선유도 해수욕장은 매우 고운 모래가 넓게 펼쳐져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불리는데, 수심도 완만하여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의 끝에는 선유도의 상징으로 알려진 선유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이산처럼 돌 봉우리 두개가 비스듬히 이어져 있어 망주봉이라고도 불린다고 하고, 유배지의 신하가 임금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선장님께서 해설하여 주었습니다.

선유도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이웃에 자리 잡은 장자도와 대장도, 무녀도는 모두 다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유도와 무녀도를 연결하는 멋진 아치형 현수교와 장자도와 대장도를 연결하는 현수교는 선유도를 더욱 매력적인 섬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의 관광에 많은 아쉬움과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유람선 관광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예정지인 전주로 향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좋은 관광을 마련해주신 전북의 모든 임원진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장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 경주

1987년 6월 6일 전북, 경북의사회의 친선교류가 맺어지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1980년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군사정권하에서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지역감정을 부추겨 당리 당락에 이용하면서 나라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한 과오를 범하게 된 시절이었다.

이때 우리의사들은 사회지도층의 한 집단으로서 지역적인 배타성을 뛰어넘어 상호 교류와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다른 모든 집단에게 모범을 보여 주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친선 교류를 시도한게된 것이다.

당시 경북의사회 오삼달회장과 전북의사회 김병주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물론이고 두분의 격의



없는 대화로 친선교류를 시도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빠른속도로 진행되어 양의사회 임원진의 호의를 받아 친선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당시 경북의사회 기획이사인 나는 흥분된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였다. 포항선린병원 회의실에서 공식적인 친선행사를 엄숙하게 치루었다. 처음맞이하는 분들이라 다소 어려우리라 생각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너무나 정겨웁고 평소 매일같이 맞나는 친구이상으로 가까움을 느꼈다. 공식행사를 마치고 포항승리식당으로 옮겨 친선의 여흥으로 밤이 깊은줄 모르고 우의를 다지게 되었다.

다음날 경주 조선컨트리클럽에서 골프대회와 경

주교적을 관광하고 아쉬운 첫만남을 끝맺었다.

그해 10월 31일 전북의사회 초청으로 경북회원이 관광버스를 전세내어 설래는 마음으로 전주를 향하여 가을단풍을 즐기면서 달려 갔다. 우리는 음식이라면 전주, 예향의 도시 전주라는 말을 자주 들은터라 다소 들뜬마음을 가졌음은 사실이다. 당시에는 도로사정이 좋지못하여 도착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전북회원들의 정성어린환영에 너무나 감격하였고 전통 한식당인 행원에 들어서니 전주명창 국안인들이 창으로 환영가를 불러주니 마치 고을 사또나 된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주의 특색있는 음식과 흥겨운 민속가락에 늦가을 밤이 깊은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되어 너무나 감



사했다. 다음날 이리골프장에서 골프와 전주일원의 관광으로 첫교류를 맺었다. 이렇게 첫회는 한번 초청하고 한번 방문하는 형식으로 시도하였으나 복잡한 의사회 업무관계로 격년제로 초청하기로 합의하여 오늘날과 같이 이어져오고 있다.

그 동안 20회 교류(19년)를 하면서 형제의 정을 쌓아왔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어떤 친선교류보다도 더욱 알찬만남으로 의사협회의 중요현안이 있을때마다 최선봉에서 좋은 의안을 제출하고 회무를 주도하는 능력을 발의하였으며 타시도의 모범적인 친선교류로 알려진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경주문화엑스포장에 초청하여 많은 전시장을 둘러보았고 안동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둘러보고 천



원짜리지폐는 매일 보면서 뒷면 도산서원 전경을 무심히 지나쳐버린 그 실물을 보고 모두들 감탄했으며, 의협전회장과 많은 임원진의 입회하에 포항 영일만 회식당에서 포항영일만과 전북군산과의 동일선상의 위도라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실을 기억한다.

무조리조트에서 1박하고 덕유산 정상에 오르던 기억과 군산앞바다의 새만금방조제현장답사 및 두산양조장 견학, 내장산 단풍과 케이블카를 타고 본 장엄한 광경은 활활하다고나할까, 마이산 답사에서 이갑룡처사의 공들여 쌓아놓은 수많은 탐과 특히 천지탑의 위용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당시 98세의 장수를 누렸던 그분의 영정앞에 고개를 숙인다.

1989년 10월 1일부터 약국의 임의조제허용과 급여행위허용 입법예고에 제일 먼저 전북·경북의사

회합동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991년 체납수진자 환수조치에 대한 부당성과 철회요구 성명발표가 있었다. 1994년 의과대학 신증설절대반대성명 발표, 1999년 의약분업과 관련해 완전의약분업이 아닌 임의분업형태의 보건복지부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5개항을 결의를 하였다. 2003년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보험재정 파탄초래하고 국민불편만 가중한다는 성명발표, 2005년 약대 6년제 전환으로 약료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친선과 중요현안에 대한 전북·경북 의사회의 앞서가는 노력이 찬사를 보낸다.

오늘에 이르게까지 영·호남 회원들의 관심이 깊어가고 우의가 쌓여가는 친선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고 참여회원이 많아져서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들처럼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단체는 보기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모임을 창설하신 김병주 명예회장이 계속 건강하시고 앞으로 꼭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지켜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나도 20회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하여 개근을 하고 있는 전통을 살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계속참석할 것을 다짐한다.

전북의사회·경북의사회 교류가 영원하기를 기원한다. 화이팅!! (seskwj@hitel.net)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개최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제1회	1987. 6. 6(토) ~ 6. 7(일)		경북 포항 선린병원
제2회	1987. 10. 31(토) ~ 11. 1(일)		전북 전주 행원
제3회	1988. 9. 10(토) ~ 9. 11(일)		경북 경주 동해식당
제4회	1989. 9. 2(토) ~ 9. 3(일)		전북 전주 행원
제5회	1990. 9. 8(토) ~ 9. 9(일)		경북 경주 동해식당
제6회	1991. 10. 19(토) ~ 10. 20(일)		전북 무주 무주리조트
제7회	1992. 10. 24(토) ~ 10. 25(일)		경북 경주 한국콘도
제8회	1993. 10. 23(토) ~ 10. 24(일)		전북 남원 한국콘도
제9회	1994. 10. 15(토) ~ 10. 16(일)		경북 포항 오션파크호텔
제10회	1995. 10. 14(토) ~ 10. 15(일)		전북 군산 힐집
제11회	1996. 10. 5(토) ~ 10. 6(일)		경북 안동 문화회관
제12회	1997. 10. 4(토) ~ 10. 5(일)		전북 정읍 내장산관광호텔
제13회	1998. 9. 12(토) ~ 9. 13(일)		경북 포항 오션파크호텔
제14회	1999. 10. 16(토) ~ 10. 17(일)		전북 진안 금북회관
제15회	2000. 11. 11(토) ~ 10. 12(일)		경북 경주 코오롱호텔
제16회	2001. 11. 10(토) ~ 11. 12(일)		전북 무주 무주리조트
제17회	2002. 11. 9(토) ~ 11. 10(일)		경북 경주 코오롱호텔
제18회	2003. 11. 1(토) ~ 11. 2(일)		전북 남원 한국콘도
제19회	2004. 10. 9(토) ~ 10. 10(일)		경북 경주 코오롱호텔
제20회	2005. 9. 3(토) ~ 9. 4(일)		전북 군산 위커히호텔



Humor is best medicine

어떤 남학생이 따라오기에

어떤 여학생이 '하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남학생이 계속 따라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놀라고 무서운 나머지 그 여학생은 저 멀리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에게로 다가갔다. 숨을 내쉬며 그 아주머니에게. "엄마~ 내가 늦었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뒤에 따라오던 남학생 알. "엄마~ 애 누구야?"

문제의 정답은?

1. 삼성은 있지만 현대는 없다.
2. 군자는 있지만 소인은 없다.
3. 오리는 있지만 백조는 없다.
4. 대화는 있지만 토론은 없다.
5. 온수엔 있지만 냉수엔 없다.
6. No one has it. Some one has not!
7. 신사는 있지만 숙녀는 없다.
8. 중동에는 있지만 남미에는 없다.
9. 강변엔 있지만 해변엔 없다.
10. 상록수는 있지만 침엽수는 없다.
11. 방학에는 있지만 개학에는 없다.
12. 오류는 있지만 예러는 없다.

정답 : 지하철역 이름

스님과 목욕탕

스님이 목욕탕에 갔봤따~~ 혼자열시미 씨섯따..... 등을 씻지못해 거울을 보고 한아이에게 부탁했따

"어이 학생 내 등 좀 밀어바",
아저씨! 아저씨는누군데 나보고 등을밀라 하십니까
나 말이가? "나 중이(中二)다,
그러자 학생은 별떡 일어나 스님뒤통수를 치면서.....
"짜싸, 난 중삼(中三)이야"

아빠가 팬티를 벗은 이유~

한부부가 사랑을하고 미쳐 속옷을 챙겨입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이불속으로 불쑥 들어오는 것이었다. 아들은 아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아주 음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팬티 안입었지? 난 다 알아 그거 엄마가 벗긴거지?"
아들의 말에 놀란 아빠가 쳐다보자 아들이 모든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당황할 필요없어 나도 다 알고 있거든"
더욱 난처해 말을 잊지 못하고있는 아빠에게 아들이 속삭였다. "아빠도 오줌쌌지? 그래서 엄마가 벗긴거지?"

경상도 말의 압축률

경상도 말의 압축 능력은 알집(Alzip)의 압축률도 따라올 수없다. ()는 압축비.
-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 고다교 쌤 쌤 (9:5)
- 저것은 무엇입니까? = 저기 뭐꼬?(2:1)
-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 할뱅교?(3:1)
- 저기 있는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 자는 누고?(13:4)
- 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니가 안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러겠니?
= 니 그카이 내 그카지, 니 안 그카른 내 그카나?(31:17)
- 나 배고파!/ 밥 차려놔어! 밥 먹어!
= 밥도!(2:1)/ 자! 무라!(8:3)
- 어,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 우야노!(11:3)
- 어쭈, 이것 봐라! (2:1) = 이기요!
-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니? = 팍! (11:1)
- 왜 그러시는가요? = 멩교?(7:2)
- 야, 그러지 좀 마! = 쯤!(6:1)
- 이 물건 당신 건가요? = 니끼가?(8:3)
- 네, 그건 제 물건입니다. = 인 도!(9:2)
- 어디에 숨기셨나요? = 우짚노?(7:3)

유머는 유머일뿐 따지지 말자 ^.^;;

의사: 스미스씨, 지난번에 치료비로 내신 수표가 부도났던데요.
환자: 피장파장이네요. 내 관절염도 재발했으니까요.

아들과 아버지의 전화통화

아들 :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버지 : 그게 뭐지?
아들 : 제가 이번 시험에서 F 학점을 면하면 상금으로 50만원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아버지 : 그랬지!
아들 : 그 돈 아버지 쓰세요.

공처가 대회에서 입상한 수상자들의 소감

장려상 수상자.
 “아내의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동상 수상자.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한다.”
 은상 수상자.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금상 수상자.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특별상 수상자.
 “니들이 아내를 알아?”
 공로상 수상자.
 “나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저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영예의 대상 수상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 것이다.”

아침형 인간...

내일 부터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고 동생한테 말했다니..
 동생이 하는말..
 인간이 먼저 되라..

포도 다이어트

지난해 여름, 제 동생이 포도 다이어트가 몸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만 먹고 밥은 먹지 않던 동생은 3일째 되던 날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우리집 식구들은 너무 놀라 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선생님, 영양실조인가요?” 그러자

의사선생님의 대답.
 “농약 중독입니다.” (..∞)(∞..) (T.T)

누굴 탓하겠나

일산으로 통하는 자유로 에서 한 신사가 시속 130Km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다.
 그 신사는 더한 속도로 확확 지나가는 다른 차들을 보고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게 대들었다.
 “아니~ 다른 차들도 다 속도위반인데 왜 나만 잡아요?”
 그러자 경찰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 댁은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 몽땅 잡수?”

쇼호스트는 말이 생명

TV를 잘 안보는 제가 하루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은 이리저리 돌리는데 한 채널에서 비데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쇼호스트가 비데를 어떻게 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델이 나와서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응가하고 싶은 모델을 섭외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쇼호스트의 말 한마디에 저도 비데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쇼호스트가 말 한 한마디는...
 “여러분 손에 번이 묻으면 물로 씻겠습니까? 휴지로 닦겠습니까?”

가장 신기한 숫자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수는 142857 이라는 수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수가 왜 그렇게 신비한 걸까요?
 142857에 1부터 6까지 차례로 곱해볼까요?

142857 × 1 = 142857
 142857 × 2 = 285714
 142857 × 3 = 428571
 142857 × 4 = 571428
 142857 × 5 = 714285
 142857 × 6 = 857142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자릿수만 바뀌어서 나타나니 신기하죠.
 그러면 142857 에 7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답은 놀랍게도 999999 입니다.
 게다가 142 + 857 = 999 이고
 14 + 28 + 57 = 99 입니다.
 마지막으로 142857 을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42857 을 제곱하면 20408122449 라는 수가 나오는데
 20408 + 122449 = 142857 이 됩니다.
 이런 숫자가 또 있을까??



이경수 (발췌·편집)
 이경수내과의원 · 구미



의학제 삼행시

편집자주

지난 5월 22일(일) 경주 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27회 경북의학제 시사 삼행시「일원화, 生老病死」의 시제에 10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이다.

장 원

생로병사

생업에 쫓기면서 가족을 못챙기고
노여움 달래면서 잘하자 결심해도
병원문 들어서면 환자가 제일우선
사랑은 고루고루 가족과 환자에게

(정재호/한양정형외과의원 · 김천)

차 상

일원화

일침에 병을 낮게 한다고요
원기회복에 보약이 최고라고요
취타가 살아와도 택도 없네요

(정재군/정재군내과의원 · 경산)

일원화

일편단심 민들레 수십년이 흘렀네
원하는건 오직하나 우리의료 민주화
화려한 구호보다 내실있는 의료정책

(윤태권/윤소아과의원 · 안동)

차 하

생노병사

생로병사 우리네 인생이 무엇이런가?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게 웰빙이지!
 병 없이 건강한데 더 무엇을 바라리오!
 사랑하고 봉사하며 멋있게 살어리랴

(홍인교/정만진 울릉보건의료원장 가족 · 울릉)

생노병사

생동감 넘치는 젊은의사 패기와
 노련미 풍부한 선배의사 지혜모아
 병든 이웃 고치듯 사랑의 소명감으로
 사회주의 의료제도 반드시 바로잡자

(이봉구/이피부과의원 · 경주)

생노병사

생소한 한의원은 독한약을 흘리고
 노쇠한 복지부는 대답없는 강물이며
 병실 의사는 철따라 빠꾸기 울듯 울먹이고
 사랑의 참 진료도 이 밤 흘러서 어이새고 갔던고

(박경욱/박경욱내과의원 · 김천)

참 방

일월화

일만해서 나랑 놀아주지 않아
 원망도 했지만
 화이팅 우리아빠!

(박재찬/박해동외과의원 가족 · 청도)

생로병사

생각만으로는 이를 수 없습니다
 노력만으로도 이를 수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우리의 의원은
 사즉생, 죽기를 각오해야 이를 수 있습니다

(사공정규/동국대포항병원 · 포항)

일월화

일생동안 노력하고 노력할립니다
 원하는 걸 얻기위해. 그것이 뭐냐하면
 화목한 가정! 바로 그것입니다

(최현정/김경석내과의원 가족 · 안동)



특집

사연이 있는 사진

앨범 속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사진들, 그 속에서 가장 사연이 깊고 잊지 못할 사진을 선택하려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렵다기 보다 impossible mission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북사회복지 지령 30호의 특집으로 “사연이 있는 사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 모두는 몇 권의 앨범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역사이자 살아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역사책에서 사연이 있는 한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우리 회원들에게 사연과 함께 공개하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의협회장 선거가 있는 해이고 오직 한 장의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던지 저희 편집인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응모가 많지 않았습니다. 의사회에 널리 알려졌거나 현재 임원으로 있는 회원보다는 조용한 다수의 회원들이 응모해 주시기를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여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각 지역의 편집자들이 특별히 부탁하여 사연이 있는 사진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정말 재미있고 사연이 깊은 사진이 있다면 다음 호에서도 실어드릴 수 있사오니 특별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회원의 특별한 사연을 듣는다는 기분으로 감상하여 주시고 행여 자신과 관계되었거나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회원의 사연이 소개되었다면 격려의 전화라도 한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사연이 있는 사진을 골라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오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사연이 있는 사진

아마추어 이발사 Dr. Byun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나는 자격증 없는 아마추어 이발사입니다.

제가 아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장면을 아내가 찰칵하고 찍어두었습니다. 제 앨범의 많은 사진들 중에서 이것을 '사연이 있는 사진'으로 선발하였습니다.

혀를 약간 빼물고 깎는데 열중하는 모습은 덩크 슈트 던질때의 '마이클 조던'의 집중하는 모습과 흡사하지요?

갓난 아이때 눕혀서 시작한 이발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유아원 다닐때쯤 이용구점에서 전기이발기, 가위, 턱받이, 빗등 용구를 갖추어 깎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위에 앉혀서 앞에는 커다란 거울을 놓고 시작합니다. 가위질이 서툴러 '아야' 소리를 지르면 멈칠했기도 하면서 아들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이것저것 묻다 시들해지면 '스무고개'로 넘어가면서 게임도 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머리카락이 길다고 선생님께서 지적을 받아 옵니다. '아버지, 이발 해야되겠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바빠서 안된다', 다음날 아들은 '선생님, 아버지께서 바쁘셔서 이발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임마, 니 머리하고 아버지 바쁜것하고 무슨 상관이나?' 라며 선생님이 야단을 치자 그저 머리만 꼬집거렸다는군요.

그 당시 '아툼' 형의 짧은 머리로 해주었는데 둥그런 머리형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남짓 걸리지만 그 날은 집안 전체의 일거리입니다. 딸과 아내는 비질하고 닦고 하면서 품평회도 합니다. 오늘은 '둘리' 모습 같다는 등 하면서 휴일 하루가 가곤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런 시간을 갖고 온가족이 함께 했던것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안의 화목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 졸업을 앞둔 녀석이 방학때가 되면 한번씩 주문합니다. '아버지 이발해야 되겠는데요' 그놈 아직도 아버지 손맛을 잊지 못하나 봅니다. 아마추어 이발사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이 있는 사진

전쟁의 땅 이라크, 전신전화국 앞에서



정만진 울릉군보건의료원 · 울릉

2003년 5월 20일, 나는 전쟁이 끝나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라크로 갔다.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의 봉사단 선발대로 멀고도 위험한 이라크로 갔다. 인천에서 아랍에미레이트(UAE)의 두바이를 거쳐 요르단의 암만까지 비행기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리아 사막 950km를, 알리바바(도둑)가 나타날까 봐 쉬지도 못하고 곧장 달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도착하는데 꼬박 3 일이나 걸렸다.

도착 다음 날(5월 26일), 과연 이라크는 얼마나 파괴되었을까 궁금하여 차를 타고 바그다드 시내를 돌아보았다.

다. 후세인 궁을 비롯하여 정부 청사 건물은 사정없이 파괴되었지만 시내의 일반 건물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이 날 시내를 돌아보면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리얼하게 파괴된 장면을 보여준 것이 위에서 보는 바그다드 전신전화국 건물이었다.

전신 전화국이 파괴되어 이라크는 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정보 통신이 두절되었다. 특수한 일부의 사람들이 위성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비싸고 감도도 좋지 않고 통하지 않는 지역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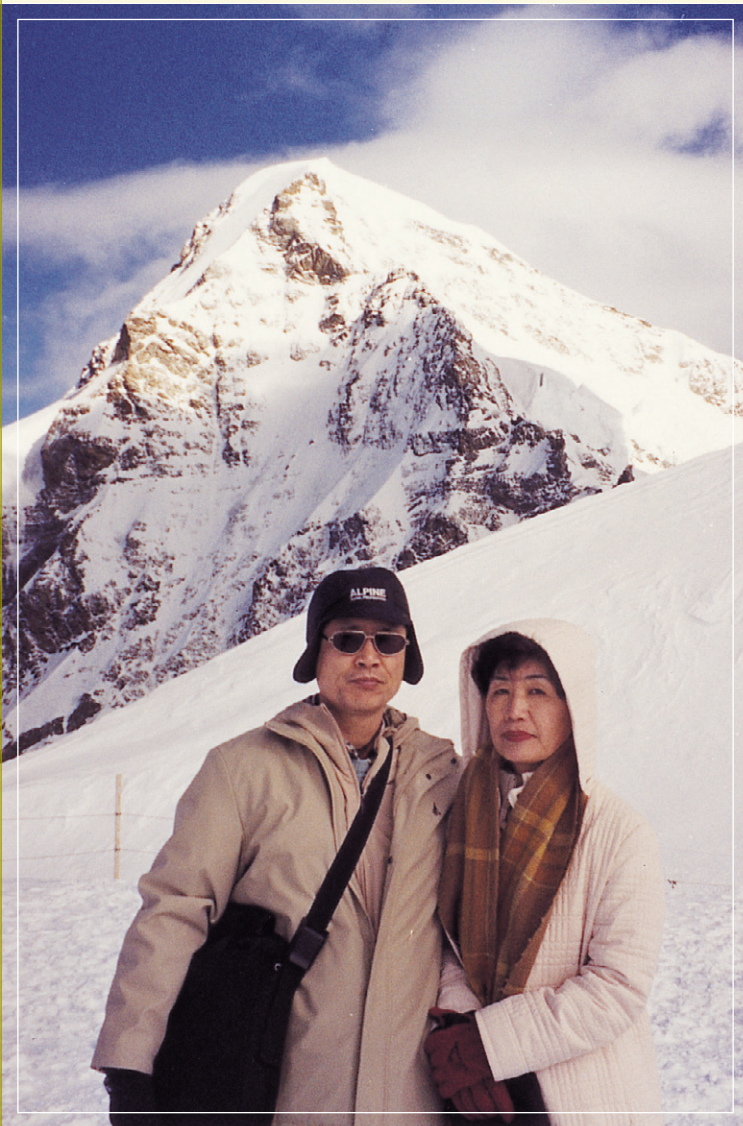
좌측의 사진은 전신전화국 도로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이고, 우측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사진이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을 보니 전쟁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내 생전 처음으로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전쟁과 열사의 나라 이라크 바그다드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3년이 다 된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동해 바다 우산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립병원장으로 온지 어언 2년이 다 되었다.

과연 나의 인생 2막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나도 궁금하다.



사연이 있는 사진

알프스 융플라우요흐봉



조영철 파티마내과의원 · 경산

스위스 인터라켄 동역에서 푸른 초원과 이름 모를 들꽃과 단풍으로 물든 숲 사이로 달려가는 등산열차를 타고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역인 융플라우요흐역에 도착할 수 있다.

융플라우요흐는 젊은 처녀의 어깨라는 뜻이다. 융플라우요흐역에서 내려 4층의 얼음궁전을 둘러보고 스팅커스 전망대에서 빠져나가면 장엄한 알프스를 덮고 있는 눈부신 만년설을 직접 밟아볼 수 있다.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꿈의 알프스인 대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일상의 환자진료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비범함과 웅장함에 젖어 들어서 시간을 멈춰버리고 싶은 순간을 느낀다. 만년설을 접하면서 어디에도 걸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자유인이 되리라고 마음을 다짐해 보았다.

사연이 있는 사진

三神(?)들의 봄나들이



왼쪽부터 최규택(서울중앙병원 마취과), 본인, 권오진(권피부과의원, 서울), 권기영(동산병원 혈액종양학과), 권세홍(권방사선과의원, 안동)

전 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 포항

때는 1979년 늦은 봄...

장소는 대구 근교의 회원인지, 강창인지 기억이 아리송하고... 그 당시 동산병원 인턴숙소에서 살던 삼신(먹는데는 걸신, 자는데는 귀신, 일하는데는 등신)들이 봄나들이를 했다.

햇빛을 못 봐 탄소동화작용이 일어나지않아 누리끼리하지만, 완전히 영계네...

이 사진 중에 한 인간(누구인지 알 사람은 안다)이 나와 방을 같이 썼는데, 그 당시 나도 추접은데 일가견이 있었는데, 이 인간 만나고 나서 나는 내가 무척 깨끗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방은 일년 내내 삼신들의 쓰레기통이 되었고, 내 뻥스는 일년 내내 공유 뻥스가 되었다.

사연이 있는 사진

개불알꽃이 나에게서는
더 친숙하고 다정한 이름이다.

조충래 한일산부인과의원 · 구미

백두대간 42 구간 중에 간절히 만나기를 기원했던 꽃중에 개불알꽃(복주머니난)을 빼재에서 황점까지 24km구간에서 만났다. 이 놈을 만난 이후 산행 내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산행을 마쳤다.

가끔 이 사진을 컴퓨터에서 꺼내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다. 첫눈에 바로 너로구나 그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감상한 귀한 야생화 개불알꽃이다.

생김새가 닮아서 얻은 본명을 부르기가 민망하다고 복주머니난으로 부르자고 하는 학자도 있다.

관상가치는 높은 반면 증식이 까다롭고 자생지에서 채집하여 옮겨 심으면 뿌리에 공생하는 균류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대체로 3년안에 고사하기때문에 더욱 귀한 존재가 되었다.

관상용으로 약재로 남획되어 현재 국외 반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종으로 국내 자생하는 4000여종 야생화 중에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희귀 특산물 217종에 포함되어 있고 환경부 지정환경보호식물로서 남획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자생지에서 개불알꽃을 찾아보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개불알꽃이 나에게서는 더 친숙하고 다정한 이름이다.

사연이 있는 사진

도혼(陶婚)여행



김광만 지곡그린의원 · 포항

“말” “말”
 “소” “소”
 “개” “개”

잘도 따라 한다. 물론 한국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직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남아에 열풍처럼 불고있는 한류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으리라. 코끼리 목에 걸터 앉아 가다가 곁에 있는 나뭇가지를 툇 꺾어 코끼리 정수리에 자기 나라글 그러니까 태국어로 발음을 받아적어가면서까지 열심이다. 볼펜을 빌려주니까 아예 손바닥이 공책이다.

지난 해 여름휴가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한 해외여행이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 20주년 -아마 도혼(陶婚)식이라고 하지- 이 되면 만사 쳐놓고 세계나 한바퀴 돌아' 라고 몇번이나 약속했건만 막상 20주년이 되니까 아직 아이들도 상황이 다 안 끝났지 병원도 10일, 20일 비우기가 그렇지 집사람도 휴가내기도 어렵지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3박4일 여름휴가밖엔 다른 대책이 없었다(모든 동료의사분들이 다 그렇지 싶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번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휴가가 될 것 같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뽀뽀한 계획을 잡기로 했다. 딸래미도 대학생이 된 고로 이제 엄마아빠 따라 다닐련가 싶고 아들래미도 고2 올라가면 아무래도 제 앞가름으로 바쁠 것 같았다. 그래서 예년 여름휴가처럼 대중 방에서 보내기보다는 결혼 20주년, 또 어쩌면 가족 전체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핑계 하에 푸켓 클럽메드로 갔다. 가족 내 이런 조합 저런 조합으론 해외에 다녀왔지만 가족 몽땅 같이 나가는 처음이었다.

클럽메드는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푹 쉬는 휴양지였다. 하루종일 방 안에 있어도 누가 어디 가자 하지도 않고 식사도 하루에 5번인가 차례지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가서 먹으면 그만이었다. 안에 수영장이 있고 스킨스쿠바같은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집사람과 나는 천성적으로 물과 친하지 않으므로 주로 그늘에 누워 전세계에서 모인 휴양객들의 각선미나 감상할 양이었다. 클럽메드가 프랑스 계통이어서 짹짹 서양미녀들은 기대했건만 유럽쪽 관광객은 많았으나 대체로 은퇴한 노인분들 아니면 어린이들이었다. 싱싱한 젊은이들은 우리 아이들 말고는 별로 없었다.

아이들이 스킨스쿠바 하러 간 뒤 둘이 무료로 수영장 옆 파라솔 밑에 있다가 택시를 불렀다. 그리고 푸켓의 고급 휴양지인 반얀트리 리조트로 향했다. 이 사진은 거기에 있는 코끼리를 타고 찍은 사진이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둘이만 또 구혼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쓰나미의 상처가 아직 군데군데 남아있는 해안을 한바퀴 돌아 클럽메드로 돌아오니까 스쿠바에서 벌써 돌아온 아이들이 우리를 찾아 야단났었다. 간다 이야기도 안 했지 방 열쇠도 없지 짹 바다에 갔다가 사워도 못했지 오니까 둘다 불쌍하게 입구 의자에 앉아 즐고 있었다.

이제 큰애는 서울시민이 되었고(주민등록까지 옮겨갔다) 작은 애는 자기만 열심히 한다면 마치면 밖으로 나갈 거고 해서 올해부터 또 식구들이 따로 휴가를 다녀야 할 것 같다. 집사람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면 함께 갈 사람이 없으므로 여름이 되기 전에 잘 보여야겠다.

사연이 있는 사진

사랑하는 사람들



김도권 조은연합정형외과의원 · 구미

2003년 10월 27일, 일요일

청명한 가을!

가을산행에 좋은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해마다 직원들과 산행을 해온 터라, 바람도 쐬고 갈대와 단풍구경도 할겸 비슬산으로의 산행을 결정하고, 오전 7시 병원 앞에서 모여서 3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구미를 출발하여,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가지고 온 김밥등을 나누어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오전 10시경.

각자의 짐을 챙겨서 산행을 시작한다.

애기를 데려가야 하니까 어렵지 않은 쉬운 코스를 선택하라고 했건만, 늦둥이(당시 18개월)를 업고 산에 오르려니 왜이리 힘이 드는지...

그렇다고 wife에게 업고 올라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새끼를 직원들에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이놈들! 이게 쉬운 코스냐?!!! 나쁜놈들(ㅎㅎㅎ)’

가쁜숨을 몰아쉬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아니, 이런! 나보다도 더 힘든 직원이 또 있었던 것이다.

원무계장 김○○. 3살짜리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남편은 직장출근관계로) 데리고 왔다는데, 여자의 몸으로 우리 애보다 큰 애를 업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힘든 것 보다도 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까지 든다.

행사에 꼭 참석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어서 빠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 줄은 미처 몰랐을거야. 그래도 나는 남자인데, 이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위로 된 험한 오르막길을 지나 정상에 오른다. 정상에 오르는 순간, 아! 정말 힘들었다.

늪막(?)에 늦둥이를 얻어서 (43세에 셋째가 태어남) 주위의 모든 분들의 부러움을 받았는데...

‘만일 내가 30대 초반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만감이 교차한다.

먼저 올라가서 자리잡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 끼어 맥주도 마시고 통닭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맛에 등산을 하는가보다. 이 순간은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듯 하다.

자리를 정하고 정상외 경치를 보고 이곳, 저곳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갈 걱정이 드는 순간부터 주위의 멋진 풍경들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제 하산! 발바닥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차라리 올라갈때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든다.

그런데 이게 웬 구세주인가? 방사선실장인 김선생이 나타나 ‘원장님! 제가 막내를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아냐, 됐어. 내 새끼 내가 업어야지, 자네도 힘들텐데’ 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심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김선생과 물리치료실장 등이 서로 도와주어 원무계장 애기와 우리 늦둥이는 큰사고 없이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 (산에 올라갈때는 음식과 음료등을 가져가느라 도와줄 겨를이 없었음) 휴~

무사히 구미에 있는 병원에 도착하여 저녁식사하고 해산! 마지막 산행은 이렇게 끝이났다.(2004년 기존의 김도권정형외과외원을 폐업하고, 지금은 후배의사와 동업으로 조은연합정형외과외원을 운영하고 있음)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린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들이다. 사진속의 주인공들, 다시금 생각해 본다.

항상 내결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응급실장 윤선생내외, 언제나 묵묵히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는 물리치료실장 박선생내외, 항상 씩씩하고 남자다운 멋쟁이 방사선실장 김선생, 많이 힘들었을텐데도 힘든 내색 전혀보이지 않은 원무계장, 작은 체구에도 큰 사람 못지않은 슈퍼우먼 원무과 이양, 자기몸에 문제가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자기일에 충실 하였던 물리치료실 이선생, 박선생, 그리고 1등으로 정상에 올랐다고 자랑하는 믿음직한 둘째아들, 나의 영원한 동반자인 집사람!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합니다.

사연이 있는 사진

낙동강 뗏목여행



장완섭 장피부과의원 · 안동

군부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1980년 초여름.
휴교령을 틈 타 감행한 낙동강 뗏목여행.
어설픈 준비와 조금은 긴장한 모습들.
그 해 여름은 어찌나 비가 많이 왔던지...
강물에 떠다니다 결국은 물과 하나가 되고 어둠이 찾아오면 강기슭으로 찾아들었지.
거칠고 설익은 수많은 논쟁...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아련한 추억들.

사연이 있는 사진

공중보건 의사 시절의 추억



최민호 경상병원 성형외과 · 경산

이 사진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의 시험을 치른 후 공중보건 의사 생활을 시작한 곳이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보건지소였습니다. 시골에서 의사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더욱이 전공과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치료해본 것도 전무해서 겁도 많이 났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좌충우돌하면서 주변의 내과 선생님에게 전화로 물어도 보고, 안 보던 내과 책도 뒤적이면서 환자들의 혈압과 혈당을 잡아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보건지소 근무를 토대로 고혈압 보건사업이라는 약간은 거창해 보이지만 저만의 노하우내지는 방법론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산하 국민고혈압사업단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이 사업에 응모한 선생님들 중에 4명을 뽑아 시상을 했는데, 본인이 운 좋게도 그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시상 후 자신의 고혈압 사업을 발표했는데, 고혈압에 대한 지식이 워낙 없었고, 고혈압 학회에서 쟁쟁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오셔서 발표를 하는데 주눅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공중보건이나 군의관 생활을 나름대로 보람차게 보냈겠지만 이런 추억도 제 인생에 있어 재미있었던 기억이기에 이사진과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회무소식

HEADLINE

-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 2005년도 춘·추계 학술대회
- 회원 화합의 장 제27회 경북의학제 개최
- 제4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민주지산서 개최
- 경북의사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 경북·전북의사회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친선행사
- 2005 대구·경북의사회 무료개안수술 시행
- 제4회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 2005 행사 이모저모



제 54 차 정기대의원총회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일원화 촉구
본회 예산 3억 5천 5백만원 가결



본회에서는 지난 2005년 3월 29일(화) 오후 6시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한국의료일원화를 지지 표명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 3억 5천 5백만원을 가결하는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황성길 경상북도 정부부지사, 전국시도지사회장협의회 신현우 회장, 이병채 · 신은식 전 경북지사회장등 내외빈과 임원 30여명, 대의원 67명(책정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원기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정책을 고치기 위한 의사들을 사이비 시민 단체와 언론매체를 통해 집단 이기주의자와 부정 청구를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 고 하였으며, '의료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세력들이 정책을 주도 하며, 약대 6년제와 성분명처방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고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였다.

변영우 본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요즘 의료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의협 집행부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막고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참여 정부 아래에서 큰 장벽을 느끼고 있으므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 말했으며, '의료계는 지금 범의료계 한국의료 일원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며 의료일원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이뤄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재정 의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경북의사회 회원들의 열성이라면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수 있을 것이며 타시도의 사회중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어 칭찬하고 싶다' 고 하였으

며, 또 '지난해에는 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수진자소회를 줄이고, 심사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고 밝히고 '올해에는 2년전 김화중 장관이 약속했던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문제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것' 을 강조하였다.

이어 2005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할 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개원 회비기준 250,000원(5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난해 보다 2,300만원 증액된 3억 5,50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회칙개정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 회칙 개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부결되었으며, 의안토의에서는 ▲ 국민건강보험관련 각종 규제 철폐 ▲ 의학·한의학 의료일원화 추진 ▲ 약대6년제 시행 저지 ▲ 약사 임의조제 근절 방안 강구 ▲ 의대 입학정원 감축 추진 강화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촉구 ▲ 심전도 검사에 대한 관련법 개정 ▲ 의료기관 카드이용 수수료 인하 ▲ 감염성폐기물 규제 완화 ▲ 공제회 활성화 및 배상공제 가입 ▲ 의협회비 징수방법 및 홍보에 대해서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건의안으로 채택하고 ▲ 의협 공금횡령사건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변영우 회장과 이원기 의장의 경과조치등에 대한 부연설명을 들었으며 ▲ 중앙대의원 직선제 선출은 회칙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본회에서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 정부는 두 개의 의료를 고착화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 한의학의 과학화는 곧 의료일원화이므로 정부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책기구를 즉각 구성 ▲ 한의사들의 잘못된 치료인식을 지적한 대한내과의사회의 주장 적극 지지 ▲ 한의학계는 더 이상 민족의학이라는 미명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의료일원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본회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시상자 명단〉

- 의협회장 : 오세진(포항, 오세진비뇨기과의원) -의협총회 유성호(문경, 평화산부인과의원) 이봉구(경주, 이피부과의원)
- 감 사 장 : 안승정(대한의사협회 총무국장) 이상섭(후생신문 편집국장) 이순옥(경상북도 보건위생과 의약계장)
- 모범분회 : 영주시의사회(회장 이재석) 청도군의사회(회장 박해동)
- 회원표창 : 장석범(포항, 포항성모병원) 마도훈(경주, 경주이비인후과의원) 이경엽(김천, 김천남산신경외과의원) 류성훈(구미, 류외과의원) 김대환(영천, 베드로내과의원) 박일영(경산, 경산산부인과의원)
- 직원표창 : 박재영(경상북도의사회 사무국장)

2005년도 춘·추계 학술대회

춘계학술대회 5월 경주코오롱호텔
추계학술대회 11월 경북대학병원서 개최



본회에서는 의학발전과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생애교육 차원의 보수교육을 지난 2005년 5월 21일(토)~22일(일) 경주 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11월 27일(일) 오후 2시 경북대학교병원 10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의료현안과 관련한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변영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회원들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주체가 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함은 물론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쌓인다면 어려운 이 나라의 의료환경을 되살리고 의료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춘계학술대회 첫날 학술강연에는 소화성 궤양의 최신지

견을 강의로 계명대 소화기내과 정우진 교수등 2편의 학술연제가 발표되었고, 둘째날에는 일차진료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항우울제의 선택을 강의로 동국의대 정신과 사공정규 교수와 2편과 시청각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양일간 참석회원에게는 연수교육 11평점이 주어졌다.

또한 학술대회 특강에서는 김재정 의협회장의 의료현안 설명과 신경숙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의 의학과 문학, 박경철 신세계연합의원 원장은 부자만들기에 대해 특강이 있었다.

추계학술대회 또한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의료현안 및 설명회 등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이날 본회 변영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제 진료실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제를 엄선하여 진정한 학술대회가 되도록 준비했으며,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하였으며, 이어 의사윤리교육과 의료현안보고에서는 지난 수가협상 결과보고와 함께 각종 회무추진 사항 및 의료현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어 대한전공의협회의 젊은의사복지공제회의 추진 배경과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협 100주년 기념사업의 진행상태 및 사업추진배경에 대한 설명회 가진후 학술강연으로 대구가톨릭의대 손호상 교수외 학술연제 5편으로 구성되어 발표되었다.

<춘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사>

■ 5월 21일(토) 14:00

- ▲ 회무보고 및 의사윤리=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 소화성 궤양의 최신지견=정우진 계명대 소화기내과 ▲ 의료현안=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 류마티스 질환의 임상적 접근=강영모 경북의대 류마티스내과 ▲ 간기능 검사의 해석 및 임상적 적용=박능화 울산의대 소화기내과 ▲ 의학과 문학=신경숙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 5월 22일(일) 09:00

- ▲ 심장 및 호흡기 내과=시청각(비디오) ▲ 일차진료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항우울제의 선택=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과 ▲ 개원가에서의 진단검사의학=전창호 대구가톨릭의대 진단검사의학과 ▲ 일차진료에서 흔히 접하는 부정맥=신동구 영남의대 순환기내과 ▲ 부자만들기=박경철 신세계연합의원 원장

<추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사>

- ▲ 의사윤리 및 의료현안 보고=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 당뇨병의 새로운 진단 기준과 치료=손호상 대구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 중앙에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의 응용=이재태 경북의대 핵의학과 ▲ 신경병증성 통증=정주호 동국의대 신경외과 ▲ 사구체 신장염의 진단과 치료=김현철 계명대 신장내과 ▲ 복부갈라 도플러 초음파 검사=김일봉내과의원

회원 화합의 장 제27회 경북의학제 개최

종합우승에 북부지구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우의증진을 위해 도내 4개 지구별 대항전으로 열리고 있는 제27회 경북의학제가 지난 2005년 5월 22일(일) 오후 2시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야외경기로 펼쳐진 의학제 행사에는 변영우회장을 비롯하여 이병채, 신은식, 최종두 원로회원등 3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각 지구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날 의학제에는 새롭게 선보인 몸풀기 체조와 OX퀴즈에서는 전회원들이 참여하는 열기를 보였으며, 단체경기인 바둑, 탁구, 윷놀이, 족구, 2인 3각, 골프피칭, 줄다리기와 번외경기로 단체줄넘기, 제기차기와 어린이경기등

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탁구, 윷놀이(임원조), 2인 3각 릴레이에서 우승한 북부지구가 종합우승을, 준우승에는 서부지구, 3위 남부지구, 4위 동부지구가 차지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석으로 열띤 경기와 응원을 해준 서부지구가 참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일원화, 생로병사」의 시제로 진행된 삼행시에는 1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의 출품작중에서 정재호회원(김천, 한양정형외과의원)이 장원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다.

LCD모니터, 디지털카메라, 자전거 20대와 선풍기등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경품을 준비하여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는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참석자 전원의 희비를 가리기도 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찬 행사로 진행할 것을 기약하며 제27회 경북의학제를 폐막하였다.

<경기종목별 성적>

경 기 종 목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비고
제25회 바둑대회	40	50	20	30	
제24회 탁구대회	30	20	40	50	
제19회 윷놀이	선수조	20	50	30	40
	임원조	20	30	40	50
제4회 족구대회	20	30	50	40	
제4회 2인3각릴레이	40	30	20	50	
제4회 골프피칭대회	50	30	40	20	
제4회 줄다리기대회	40	50	30	20	
○×퀴즈	15	6	18	12	
종합 점 수	275	296	288	312	

- 종합우승 : 북부지구, 준우승 : 서부지구
3위 : 남부지구, 4위 : 동부지구
- 참 가 상 : 서부지구

<행운상 당첨자 명단(자전거)>

- 부부 : 이우진(포항), 안익효(안동), 이승재(경산), 지성구(구미), 이종수(포항)
- 회원 : 백현우(영주), 백승인(경주), 박정권(칠곡), 임판주(칠곡), 박정돈(구미), 윤태권(안동), 송재섭(경주), 장준혁(포항), 김광숙(안동), 박무영(안동)

<행운상 당첨자 명단(선풍기)>

- 한형원(포항), 장상렬(포항), 황병욱(경주), 서보균(포항), 이승재(경산), 박경욱(김천), 장태영(구미), 황종선(김천), 김인정(영천), 송준화(포항)

<행운상 당첨자 명단(무선주전자)>

- 권영철(포항), 임종선(포항), 허석(김천)

<행운상 당첨자 명단(전기다리미)>

- 최진민(구미), 장기호(구미)

제4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민주자산서 개최



지난 2005년 10월 30일(일) 충북 영동 민주자산에서 개최된 제4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에 본회 회원 및 가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렸다.

이날 등반대회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지역에서 관광버스 5대로 출발하여 오전 10시를 전후해 민주자산 물한리 주차장에서 지방 회원들과 합류한 가운데 4시간여에 걸쳐 물한계곡과 황룡사, 미니미폭포, 삼도봉 코스를 경유하여 등반대회를 열었다.

민주자산의 물한계곡은 맑은 물이 끝없이 흐른다는 3도의 분수령을 이루는 삼도봉을 비롯하여 해발 1,000m 이상의 준령을 이루고 있으며, 민주자산·석기봉에서 발원하여 심산유곡을 이루는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숲속에는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의 16%가 자생하고,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여 있는 곳이라고 한다.

4시간여의 등반을 마친 회원 및 가족들은 인근 나그네식당에서 점심식사와 더불어 뒤풀이 행사를 가졌으며, 변영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좁은 진료실을 떠나 깊어가는 가을의 짙은 단풍을 만끽하고, 회원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회원간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매우 기쁘다' 고 하였다.

이날 본회에서는 등반대회에 쓰여진 관광버스비 지원과 아울러 등산용 돗자리를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다.

경북의사회 회원 및 가족친선의 밤



제27회 경북의학회 전야제 행사로 진행된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지난 2005년 5월 21일(토) 오후 7시 경주코오롱호텔 화랑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친선의 밤 행사에서 정만진 심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료실을 떠나 많은 회원과 가족들 앞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이에 각 권역별로 사전 신청받은 피아노, 색소폰, 바이올린 등의 연주와 판소리, 남성중창합창단등의 장기자랑으로 선보인 친선의 밤 행사에서는 바쁜 직업중에서도 같고 닦은 숨은 실력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으며, 이날 친선의 밤 행사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남성중창합창단(안동시의사회)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기자랑 시상결과〉

- 대 상 : 남성중창합창단(안동시의사회)-합창
- 우수상 : 송준화(포항, 성모내과의원)-판소리
- 장려상 : 박정돈(구미, 박정돈산부인과의원)
 - 피아노 연주
 - 서상철(구미, 파티마의원)-대금 연주
 - 이경섭(경주, 동국대경주병원)-색소폰 연주
 - 임동경(경주, 사랑의소아과의원 원장 자녀)
 - 바이올린 연주
- 특별상 : 유환무(경주, 유내과의원)-성악

경북·전북의사회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친선행사

경상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1987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상호 격년 초청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주년을 맞은 기념행사를 지난 2005년 9월 3일(토) 오후 7시 전북 군산 워커히호텔에서 제20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를 열고 내빈과 양도의사회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부 친선행사에서는 내빈 및 회원소개와 더불어 김학경 전북회장의 환영사, 변영우 경북회장의 답사에 이어 김병주 자매결연 초대회장의 기념사, 김재정 의협회장을 대신해 김세곤 상근부협회장과 송웅재 군산시장, 신현우 시도 의사회장협의회장, 박희백 의정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학경 전북회장은 환영사에서 '경북과 전북이 자매결연을 맺은지 20주년을 맞아 매우 뜻깊은 자리만큼 영호남이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였으며, 변영우 회장은 답사에서 '현 의료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 자리에서 우리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모든 현안 해결에 앞장선다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김병주 전북 명예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북의사회와 전북의사회가 첫 만남을 가지고 의료현안을 협의하고 친선행사 가지며 영호남의 우의를 다지게 된 계기가 벌써 20년이 훌러 이 시간이 맞이한 것이 자매결연 초대회장으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어 기쁘다'라고 옛 기억을 되살렸다.

2부 친선의 밤에서는 만찬과 더불어 회원들은 친선의 밤 행사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9월 4일(일)에는 친환경 간척 모델로 개발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방조제 사업이면서 한국의 제일 중요한 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방조제 건설현장을 관광버스로 살펴보고 천년의 역사와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고군산군도를 관광하였으며, 전주CC에서는 친선골프대회를 열어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양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무모하고 원칙없는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건강은 무너져 의료환경은 황폐해 가고 있으며, 대통령도 머리숙인 엉터리 조제위임제도, 밀실험의정치의 소산인 약대 6년제, 경영난으로 죽음을 택하는 의사들, 강압과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우한 것이란 말인가라며, 이제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천박한 시행착오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성토 하였다.

또한, △정부는 강제적으로 졸속시행한 조제위임제도를 국회차원에서 재평가작업을 하고 전면 재 검토 △정부는 임상약사와 약료라는 이름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획책하는 약대 6년제 즉각 철폐 △정부는 획일적인 의료 사회주의 정책을 중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의료정책 실현 △의협은 실현에 빠진 회원들을 독려하고 하나로 모아 단결된 힘으로 대정부투쟁을 적극 주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양도의사회에서 준비한 선물교환 후 경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는 1987년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격년 초청행사로 개최해오고 있다.

2005 대구·경북의사회 무료개안수술 시행

대구·경북지역 저소득층 환자 84명에게 밝은빛 안겨

대구·경북의사회와 함께하는 2005 TBC 무료개안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2005년 11월 11일(금) 오전 7시 45분과 11시 35분에 각각 1, 2부로 나눠 '밝은세상,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집 4원 생방송으로 보도되었으며, 본회에서는 변영우 회장이 패널로 출연하였다.

이날 생방송에는 대구·경북지역 안과 의료기관 4곳을 선정하여 환자들의 개안수술 장면과 표정들을 전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의 대책에 대해, 또한 밝은 세상·새로운 희망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찾은 희망의 빛 등에 대한 VCR 상영등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무료개안수술은 올해 다섯번째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저소득층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무료개안수술에 참가하는 안과의원 및 내과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청구분까지 전액 무료로 봉사하게 된다.

또한, 올해에는 경북 87명, 대구 90명(총 177명)이 참가 신청 접수를 하여 안과 및 내과적 술전검사를 거쳐 2005년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각 의료기관별로 무료개안수술을 진행하였다.

이날 특집방송에는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장보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장, 이경호 경상북도 보건위생과 사무관, 이인혜 대구동구노인복지회관 관장이 패널로 출연하였다.

〈무료개안수술 일정〉

- 참가자접수 : 2005. 10. 5(수)~14(금)
- 안과진료·술전검사 : 2005. 10. 26(수)~11. 5(토)
- 수술일정 : 2005. 11. 7(월)~11. 15(화)

〈무료개안수술 결과〉

구 분	참여안과의원	접수인원	수술인원
경상북도의사회	10	87	19
대구광역시의사회	22	90	44
계	32	177	63



〈무료개안수술 참여 의료기관〉

안		과	
성 명	의료기관명	전 화	수술결과
정필재	영동안과의원	(054) 274-5225	•
김기홍	밝은눈안과의원	(054) 273-7002	1명
이재백	이재백안과의원	(054) 281-6690	2명
조재학	삼성안과의원	(054) 249-8275	2명
김형일	성모안과의원	(054) 771-2052	3명
이종관	연합성모안과의원	(054) 859-0072	3명
정재엽	제일안과의원	(054) 855-7582	4명
송효철	밝은안과의원	(054) 455-9559	1명
박철호	현대안과의원	(054) 441-0880	1명
박남규	박안과의원	(054) 332-0017	2명
내		과	
성 명	의료기관명	전 화	
송영성	송영성내과의원	(054) 272-0501	
윤용삼	윤내과의원	(054) 273-8788	
최창필	최창필내과의원	(054) 274-3535	
천병도	존메디컬내과의원	(054) 230-7600	
조현숙	계림내과의원	(054) 742-8931	
최영환	최영환내과의원	(054) 855-7881	
박무영	박무영내과의원	(054) 857-6651	
박성진	한민내과의원	(054) 456-6615	
황중현	황중현내과의원	(054) 458-1155	
이지욱	이지욱내과의원	(054) 333-5203	

제4회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정재봉 · 김대연 선수조 우승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열린 제4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2005년 10월 16일(일) 오전 11시 경북의대 테니스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테니스대회 개최식에서 이석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맑고 청명한 가을날씨와 더불어 좁은 진료실을 떠나 지금까지 같고 닳은 테니스 실력을 한껏 발휘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테니스대회는 복식 풀리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 선수 모두 훌륭한 기량을 과시하며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정재봉 · 김대연 선수조가 우승을, 서상철 · 허준호 선수조가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참가한 선수들은 테니스대회로 하여금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가 활발해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경기성적>

- 우 승 : 정재봉(포항, 고운피부과의원)
김대연(영천, 김피부과의원)
- 준우승 : 서상철(구미, 파티마의원)
허준호(포항, 여성아이병원)

2005 행사 이모저모

의협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의협은 지난 2005년 4월 23일(토) 서울힐튼호텔에서 2005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년 대비 9.4%(9억2943만원) 증액된 108억1255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가' 회원은 2만원 인상된 25만원, '나' 회원은 1만5000원 오른 18만원, '다' 회원은 10만3000원, '라' 회원은 7만7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고 '중앙회 회비를 일괄 통합해 징수할 것'을 만장일치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앙회비의 통합 부과 징수, 2008년도 종합학술대회 분담금 납부, 100주년 기념재단 설립 및 자본금 출연, 협회 재무관련 규정 등의 안건을 주요 의제로 다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의료일원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당부하고 新 회기와 배지 제정건은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무리한 사업이라는 판단으로 회기 및 배지 안건을 부결·폐기시켰고, 또한 공단의 현지확인 및 심평원 현지심사 중지 방안에 대해 대의원들은 심평원의 설립 목적인 합리적인 심사에 충실할것을 촉구하였고, 정관개정에 관한 건을 정관개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위임키로 했으며 선거권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본회에서 변영우 회장

과 이원기, 정만진, 안길룡, 장의현, 오세진, 권세홍 대의원과 박재영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교육부에서는 약대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 지난 2005년 10월 20일 입법예고 됨과, 또한 제34대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완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해 현행 선거관리규정 완화를 위하여 의협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 집단휴진에 관한건

- 일 시 : 2005년 11월 5일(토) 오후 3시
- 장 소 : 의협 3층 동아홀
- 안 건 : 2005년 8월에 실시한 회원투표 결과에 따른 집단휴진에 관한 건
- 주요내용
 - 집단휴진의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일괄 집행부에 위임
 -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일 시 : 2006년 1월 14일(토) 오후 3시 30분
- 장 소 : 의협 3층 동아홀
- 안 건 :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제1항 제1호의 다목 개정
- 주요내용
 - 재적 대의원 241명 중 164명 출석으로 성원
 - 총회중 정족수 미달로 선거관리규정 개정논의 실패

변영우회장, 신상진 후보 지지 방문

변영우 회장(의협 부협회장 겸 대외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05년 4월 27일 오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중인 신상진 전 의협회장의 선거운동사무소를 방문, 선거운동에 최선을 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변영우 회장은 신 후보에게 '이번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협 회장 출신자로서의 당당함을 보여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의협의 관심과 격려에 큰 힘을 얻고 있다'면서 '반드시 국회에 진출해 의사도 정치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전 의협회장 국회의원 당선

신상진 전 의협회장은 지난 2005년 4월 30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중원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총 5만9511표(투표율 29.1%)중 2만435표(34.7%)를 얻어 1위를 차지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신 전 협회장은 지난해 4월 15일 총선에서 2위로 아쉽게 고배를 마신 후 두번째 도전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감격을 누렸으며, 제17대 국회의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안명옥(한나라당·비례대표)·안홍준(한나라당·경남마산)·정의화(한나라당·부산중동)의원 등 4명으로 늘어났다.

신상진 국회의원의 당선에는 지난 4.15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의협을 중심으로 한 전 의료계의 단합된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가 적지않은 역할을 하였으며, 이번 재보선은 '신상진 후보의 승리요, 전 회원의 승리이며, 대한의협의 승리'라며 변영우 의협 대외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본회회장)은 밝혔다.

제33회 보건의날 행사 참석



‘세상의 모든 엄마와 아이를 소중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제33회 보건의 날 및 제57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의 건강증진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 7일(목) 오전 11시 영양군 공설운동장에서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의근 경북도지사와 보건의료 단체장등 도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이미숙 부회장, 정만진 울릉보건의료원장, 박재영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보건의 날 표창 수상

장의현(구미), 권세홍(안동), 박경옥(김천)

제27회 경북의학제 준비위원회 개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경북의학제 행사에 앞서 지난 2005년 4월 24일(일) 오후 1시 포항 인재개발원에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종목 선정 및 경기규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회의결과

- 준비위원 : 이미숙부회장, 이봉구기획, 천중욱 재무, 김장희법제, 박재영국장
- 경북의학제 경기종목 선정
 - 단체경기 : 바둑, 탁구, 윗놀이(임원조·선수조), 족구, 3인4각, 골프피칭, 줄다리기, OX퀴즈
 - 친선경기 : 단체줄넘기, 제기차기(부부), 훌라후프, 어린이경기등(배점없음)
 - 시조 및 3행시(위원장 : 이석균부회장)
- 전야제 및 장기자랑 : 5. 21(토) 석식행사와 병행

실시하여 권역별 2팀씩 참가(회원 및 가족, 단체등)

- 행사장 준비사항 : 천막설치 및 권역별 조끼 제공
- 다양한 행운권 추첨 상품 준비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워크샵 개최

본회에서는 사무직원들의 사기양양과 의료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간 일체감 형성 및 이해증진과 직원의 역할 제고방안등을 모색하기 위한 사무직원 워크샵을 지난 2005년 4월 29일(토)~30일(일) 1박 2일로 본회 사무국 및 팔공산 일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이석균 부회장이 배석하여 의료계 주요현안 설명과 사무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인사말이 있었으며, 본회 사무국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으로 회원정기신고, 공문서 작성 및 문서처리 사항, 신규개원회원 입회절차 안내, 공제회 가입등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튿날에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대구·경북의사회와 시군의사회 직원들은 팔공산에서 등반대회를 갖고 우의를 다지는 친목행사를 가졌다.



제31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성료

지난 2005년 5월 13일 오전 9시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제31차 종합학술대회가 5월 15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국민과 의사가 함께하는 참건강’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한의사협회 제31차 종합학술대회가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막을 올렸으며, 의협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후원한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의학 관련 40여 단체와 일반인의 참여 속에 15일까지 사흘동안 알차게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

고, 첨단생명산업으로서 차세대 국가기본산업이라는 점을 널리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또한 의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과학자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2008년 의협 창립100주년에 열리는 제 32차 종합학술대회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가 있다.

경상북도, 부패방지대책 민·관 합동 보고회 참석

경상북도는 지난 2005년 5월 18일 오전 도청 제1회 의실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주년을 맞아 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단체·행정기관이 함께 하는 부패방지 민·관 합동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경상북도는 부패방지 5대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했으며 청렴경복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민간인 15명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과 실·국장 9명 등 총 24명을 위원으로 하는 부패방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부패방지기구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였으며, 본회에서는 변영우 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안동병원 경북권응급의료센터 오픈



안동병원은 지난 2005년 5월 23일 경북권응급의료센터 개원 기념식을 가졌다.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 설립한 응급전문기관 중 하나로 문을 연 안동병원 경북권응급의료센터는, 지하2층 지상 13층 규모의 총 316개 병상을 갖춘 경북지역 최대 응급의료기관이다.

이 센터는 응급환자 분류소, 소생실, 격리치료실, 응

급수술실 등을 운영 중이며 대량재해팀·교통사고전문팀·독극물팀·응급소아팀·뇌혈관팀·심장소생팀·외상전문팀 등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이날 개원 기념식에는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김희동 안동시장, 의료계 내빈등을 비롯한 1000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하였다.

의협 총무위원회 참석

의협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18일(토)에 개최된 제 2차 총무위원회에서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한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검토, 회원관리 개선대책, 회비납부를 제고 및 회비 납부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의견개진이 있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시행키로 한 바, 동 시행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비스 제한 업무 처리 지침등을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급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이봉구 기획이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경상북도 장애인탁구대회 참석

지난 2005년 5월 27일(금) 경주시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제4회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배 경상북도 장애인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장애인탁구대회는 200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아 그 동안 경상북도 장애인스포츠에 많은 발전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날 대회는 복지관장 종광스님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내빈소개와 경과보고, 대회사, 백상승 경주시장과 이종근 경주시회의 의장의 축사로 진행되었으며, 탁구경기는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뇌성마비 선수조로 진행되어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본회에서는 변영우 회장이 참석하여 장애인 탁구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며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레드리본정보센터 개소식 참석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회에서는 우리지역의 에이즈예방과 감염인, 환자의 복지 증진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레드리본정보센터 개소식을 지난 2005년 5월 27일(금) 오후 3시 대구산업정보대학 본

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해녕 대구시장과곽성문 국회의원, 정무달 대구시의사회장, 변영우 본회장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김난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축하 메시지 전달, 레드리본달기운동 선포, 콘도리와 함께하는 에이즈예방가두캠페인, 레드리본정보센터 현판식 및 테이프 커팅순으로 이루어졌다.

레드리본은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보호와 관심의 상징이며, 치료제 개발과 감염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희망의 상징으로서 에이즈 예방과 치료, 예방백신 개발을 위해 헌신하는 보건의료인과 학자, 또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지의 상징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서

IMS관련 성명서 채택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28일 의협회관 사석홀에서 의협 집행부 및 전국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IMS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명백한 의료행위인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IMS 문제는 의권 수호 차원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관철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회를 포함, 총력을 기울여 투쟁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키로 하였으며, 본회에서는 변영우 회장이 참석했다.

제3회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참석

도민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3회 도민 건강걷기대회’ 및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제10회 환경의날 기념식’이 지난 2005년 6월 4일(토) 오전 10시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이의근 도지사와 이철우 도의회의장, 박인원 문경시장, 본회 변영우 회장을 비롯한 보건관련단체장 및 유관단체장, 도민 등 1만명이 참석하여 환경의날 기념식 개최후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로 영남의 관문인 문경새재 제1관문에서 제2관문까지 왕복 6km의 건강걷기대회로 진행되었다.

본회에서는 이날 행사를 위해 ‘건강만점 우리가족, 으뜸제일 우리경북’이라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원하였다.

2004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

의료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와 의협정관 제3조에 의거 의사는 매년 8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53조 1항, 제71조 3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과조치 이후에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2004년도 연수교육 평점이 8평점 미만(미이수)으로 확인된 회원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의협 사이버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연수교육 평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이수평점확인 :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서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상세회원정보 → 연수교육
- 시행 및 접속방법 : 대한의사협회 사이버연수교육 이용
 -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로그인후 → 사이버연수원 배너클릭
 - 사이버연수원(http://cme.kma.org) 직접 접속

장애우돕기 자선음악회 참석

대구시의사회에서 마련한 제7회 장애우돕기 자선음악회가 지난 2005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우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에는 대구 갈라오케스트라(지휘 이재준)의 화려한 연주와 소프라노 이화영, 테너 김남두, 바리톤 장유상, 피아노 최은진의 출연진들과 함께 열띤 무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음악회에는 정무달 대구시의사회장, 김범일 대구시 정무부시장, 본회 변영우 회장등 회원 및 가족, 시민등 1,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장애우돕기 자선음악회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성형센터 신축 개원식 참석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11일 (토) 오후 2시 정형·성형센터를 신축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포항세명기독병원 한동선 병원장과, 류인혁 센터장을 비롯한 본회 변영우회장등 의료계 관계자 및 병원 임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변영우 회장은 축사에서 '고 한영빈 박사의 숭고한 인술의 정신을 이어받은 포항세명기독병원은 21세기 첨단의료시대에 걸맞게 전문화 특성화 병원을 지향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지킴이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고, 더욱이 많은 병원들이 앞 다투어 대형화를 추구하는 시기에 작지만 강한 병원을 모토로 특성화 전문화를 강화시켜나가는 세명기독병원 이야말로 앞으로 무한 경쟁시대에서 더욱 더 큰 힘과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포항세명기독병원은 대지 384평, 건평 1,616평에 약 120억을 투자하여 이번에 신축 개원한 정형성형센터를 통해 5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수술과 치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포항을 찾게 되어 의료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 참석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지난 2005년 6월 25일 오후 4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제18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1억 98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최근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개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과 오는 7월 5일 개최 예정인 약대 6년제 관련 공청회에 개원의, 의학계와 병원계, 학생, 전공의등 전직역이 총체적으로 참여, 약대 6년제 강행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원의협의회는 올 사업계획으로 △조제위임제도 개선 △건강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개선 △의료일원화 위원회 활성화로 한약 부작용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 △2차 의료기관 운영 활성화 대책 수립 등을 확정하였다.

이날 평의원회에 본회에서는 전민 회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포항시의사회 바자회 성금 전달

포항시의사회는 지난 2005년 6월 22일 오후 1시 포항시의사회관에서 포항시의사의날에 개최된 바자회 수익금을 포항시 관내 불우이웃 시설에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의사회 회장단 및 포항모자원과 사랑의공동체(장애인의 집) 관계자와 장애아들이 참석하였고, 오세진 회장이 성금 100만원씩을 직접 전달하였다.

또한 장애아들에 대한 의료지원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진료과별로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연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약대 학제 개편방안 공청회 실력저지로 무산

약학대학 학제 개편방안 공청회가 지난 2005년 6월 17일(금) 오후 3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공청회는 의협의 실력저지로 무산되었으며, 의협은 약대 6년제 공청회에 대한 패널 선정 등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경우 공청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 공청회 연기가 결정되어 7월 5일 다시 개최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본회 변영우 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 의사회장, 의협 임직원, 개원의·의대생 등 130여 명이 오후 1시30분부터 공청회장에 집결, 공청회 시작 1시간 전인 2시부터 전격적으로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채 공청회 연기를 주장하였다.

공청회 관련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

지난 2005년 6월 24일(금) 경주시의사회관에서 약대 학제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하여 본회 참석방안과 인원동원 계획, 감염성폐기물 제도 개선, 임원위크숍 행사관련 내용 검토등의 안건으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이사회서는 오는 7월 5일(화) 오후 3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개원회원은 물론 동국 의대 학생과 학부모들을 참가시키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이사과 법제이사에게 위임하여 추진

기로 하였다.

- 참석자 명단 : 변영우 회장, 백승인 · 이봉구 기획, 천종욱 재무, 김장희 법제, 박재영 사무국장

약대학제 개편 저지 교육부 규탄대회 참석



의협에서는 밀실야합, 편파적·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약대6년제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5일(화) 오후 1시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회원 500여명은 과천정부청사내 국사편찬위원회 건물에서 정문을 봉쇄하고 약대학제 개편 저지 교육부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본회에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변영우 회장을 비롯한 백승인·이봉구 기획이사, 조성범 보험이사와 동국의대 전공의 및 학생, 사무직원, 가족등 50여명이 버스를 대절하여 귀경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석 열기를 보여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였다.

공청회장 앞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의사회원과 의대 학생들이 입구를 막은 채 공청회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공청회장 안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단상을 점거, 의협과 약사회측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원보 경남의사회장은 ‘공청회의 행정절차법과 공정한 패널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이 공청회는 원천 무효다’ 라고 외치고 의협의 입장을 발표했다.

방청객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단상을 점거한 의협은 편파적인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오늘 공청회는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계속되는 공청회의 저지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협의 저지 행동에 대해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본회 변영우 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최후의 한명이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공청회 개최를 허용할 수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후 의료의 중심축인 의사도,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도 참석하지 않은 채 특정 직능단체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진행되는데 대해 인천에서 개원활동을 하고 있는 주팔 회원은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 움직임에 항의하는 뜻에서 삭발항의하였으며 주위를 숙연케 하였다.

이에 교육부에서 강행한 공청회에 대해 의협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오는 7월 16일(토) ‘전국 시·군·구 의사대표자 쫓기대회’를 개최기로 하는등 결연한 투쟁의지를 내비쳤다.

대국민 사기극!

약대 6년 저지 범의료계 결의대회



의협에서는 2005년 지난 7월 16일(토) 오후 4시부터 서초구민회관에서 80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갖고 6년제 저지 및 약사 불법진료 차단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재정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선 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차기 의협회장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하였으며, 범의료계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약대 6년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의협은 약대 6년제 저지 경과보고와 구호제창, 연대사로 진행된 결의대회에 이어 약대 6년제 관련 의료계의 투쟁내용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함께 김재정 협회장은 ‘약사 불법진료와의 전쟁선포식’을 갖고 임의조제와 불법진료를 반드시 뿌리를 뽑아낼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계는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추진의 즉각적인 중단 △약사의 불법의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현 분업에 대한 재평가위의 국회설치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8만 회원은 2만여 전공의와 전국 41개 의과대학생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결의대회가 끝난후 800여명의 회원은 서초구민회관 주위로 가두홍보를 통해 약대6년제의 부당성과 교육비 부담, 의료비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본회에서는 이날 변영우 회장과 이원기 의장등 23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투쟁 대열에 동참하였다.

변영우 회장, 검·경찰 출두 조사 보고



의협 김재정회장과 본회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은 지난 약대 6년제 공청회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의 조사에 따라 서울용산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경기 성남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해 음에 따라 출두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8일(수)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재정 협회장들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 등 현재 재판중에 있다.

변영우 회장, 약대 6년제 저지 1인 시위 전개

의협에서는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교육부 앞 1인 시위에 나서고 그 첫주자로 지난 2005년 7월 13일

(수) 본회 변영우 회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입구에서 약대 6년제 강행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변영우 회장은 공무원들이 주로 출입하는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연구용역 결과조작, 국민 없는 공청회, 귀막은 교육부는 약대 6년제 강행음모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앞 세우 시위를 시작했으며, 1인 시위에 동행한 의협 직원들은 약대 6년제의 문제점을 소개한 안내책자를 나눠주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했으며, 의협에서는 2005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시위를 펼치기로 하였다.

의협, 강력한 대정부 투쟁 재천명



약대 학제 연장(2+4년제)에 대한 교육부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특정 집단의 이해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현재 진행중인 집단 휴진의 찬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지난 2005년 8월 19일 성명서

를 통해 국민의 72%(부산KBS 8월 16일 생방송 설문조사)가 반대하고 있는 약대 학제 연장은 국민이 받을 혜택보다 교육비 부담이나 의료비 부담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난 의약분업 추진 당시에도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추가 비용 부담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시행 5년이 된 현재, 국민들에게 좋아진 것 보다 불편과 비용이 증가해 당시의 정부 주장이 허구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반문하였다.

또한 약대 학제가 연장되었다고 해서, 의료시스템이 선진화된 것은 결코 아니라며 정부와 여당은 약학대학의 학제 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평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먼저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 보다 특정 집단의 이해에 의해 좌우된다고 간주해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을 재천명하였다.

긴급설문조사 및 집단휴진 관련 연석회의 개최

전국 회원의 진의를 파악해 투쟁 대열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 및 집단휴업 투쟁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에서는 지난 2005년 8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본회 회관에서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휴진 찬반투표에 직역을 망라한 전 회원이 동참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약대 6년제 저지 투쟁 결의대회, 공청회 저지, 1인 시위등의 경과보고,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 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약대 6년제 저지와 함께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과 호응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고 하였으며, 약대 6년제 저지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도 지적하고 2000년 의약분업 투쟁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들의 투쟁열기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투표와 관련해서는 시군의사회 임원들이 직접 회원들과의 간담회, 반모임 개최, 방문 투표등으

로 전 회원의 참여를 독려키로 하였으며, 휴진 찬반 투표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과 약대학제 연장 음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긴급현안 및 집단휴진 찬반투표 결과

의협에서는 지난 2005년 9월 6일 '긴급현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및 집단휴진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전국 의사의 대부분이 대정부 휴진 투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표실시 : 2005년 8월 22일~31일(10일간)

□ 투표결과

- 전국투표율 : 75.04% (5만5,246명중 4만1,454명)
 - 개원 및 봉직의 : 79.50% (4만5,223명 중 3만5,952명)
 - 교 수 : 54.89% (1만23명 중 5,502명)
 - 전공의 : 63% (1만2,392명 중 7,807명)
- 휴진찬성 : 61.09% (2만5,324명이 휴진투쟁 찬성)
 - 개원 및 봉직의 : 62.96% (3만5,952명중 2만2,634명)
 - 교 수 : 48.89% (5,502명중 2,690명)
 - 전공의 : 76.01% (7,807명중 5,934명)

□ 본회 투표율 및 찬성율

- 투표율 : 92.84% (투표대상 1,996명 중 1,853명)
- 찬성율 : 73.39% (1,853명중 1,360명)로 가장 높음

□ 각시군의사회별 투표율과 집단휴진 찬성율

지역	투표율	찬성율	지역	투표율	찬성율
포항시	92.9%	67.55%	청도군	100%	75%
경주시	95.5%	82.03%	고령군	100%	62.5%
김천시	100%	92.3%	성주군	100%	86.67%
안동시	94.1%	89.08%	칠곡군	86%	61.22%
구미시	95.5%	74.09%	예천군	86.4%	94.74%
영주시	90%	84.13%	봉화군	75%	50%
영천시	100%	100%	울진군	84.2%	75%
상주시	93%	81.81%	울릉군	100%	100%
문경시	95.5%	71.88%	동대포항	48.4%	33.33%
경산시	94.6%	64%	경주동산	91.7%	100%
군위군	83.3%	80%	동대경주	94.6%	47.17%
의성군	79.3%	60.87%	순천향구미	92.5%	61.22%
청송군	66.7%	33.33%	구미차	100%	55.93%
영양군	100%	20%	영대영천	82.6%	42.1%
영덕군	86.4%	78.95%	계	92.84%	73.39%

각시군의사회 찬반투표 독려 설명회 개최



의협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와 불법진료를 근절하는 근본적 대책 없이 약대6년제가 강행된다면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약대6년제와 의약분업 철폐투쟁을 연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회원 투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각시군의사회별로 통합 반모임이나 임시총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상임이사들을 중심으로 약대6년제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와 투쟁동영상을 준비하여 발표하는 등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고 의료현안 및 찬반투표를 독려하였다.

- 경주시의사회 : 8월 24일(수) 19:00 경주시사회관
- 김천시의사회 : 8월 26일(금) 19:00 김천파크호텔
- 경산시의사회 : 8월 26일(금) 19:00 강산면옥

의료계 대표 유죄판결 경과



2000년 의약분업 투쟁당시 의료계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계류되었던 의협과 의료계 인사에 대해

대법원의 실형이 확정 판결되었다.

- 9인 재판 : 2005년 9월 29일(목) / 대법원

• 판결내용

- 김재정 협회장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한광수 전회장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회원 : 벌금 1천만원
- 신상진, 최덕중, 박현승 회원 : 원심 파기

- 위반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

- 13인 재판 : 2005년 11월 16일(수) 서울중앙지법

• 판결내용

- 대한의사협회 : 벌금 3천만원
- 변영우 회장의 11명 : 벌금 2백만원(원심에서 3~5백만원의 벌금형)

- 위반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

전회원 '의권회복' 리본 패용



지난 2005년 9월 29일(목) 대법원의 실형 판결에 대해 본회에서는 지난 2000년의 의권쟁취투쟁은 정당하며 성스러운 투쟁이었음을 상기하고, 의료계의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뜻에서 전 회원이 '의권회복'이라는 리본을 진료시 가운데 패용하기로 하고, 변영우 회장 서한문과 함께 회원 개인별로 우편발송 하였으며 지난 2005년 10월 4일부터 한달간 착용키로 하였다.

교육부, 고등교육법시행령 입법 예고

교육부는 약대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의료계의 반발 속

에 지난 2005년 10월 20일(목) 입법예고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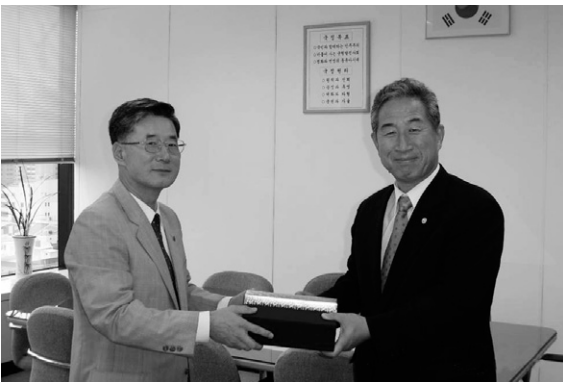
□ 주요내용

- 현행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으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한다는 조항(제28조 5항) 신설
-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입학·편입학 관련 조항 신설, 삽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 수상

경상북도의사회(회장 변영우)는 국민보건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평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05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또한 본회 변영우 회장과 최철수 심평원대구지원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양단체간의 상생의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의료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하였다.



본회 임원워크샵 개최

본회에서는 지난 2005년 7월 2일(토)~3일(일)까지 충북 단양 대명콘도에서 최근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도 임원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이날 백승인 기획이사는 약대 6년제 관련 문제점 검토와 한국 의료일원화 추진 목적,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봉구 기획이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표준화법에 대해 알찬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튿날에는 천태중의 본산인 구인사와 고수동굴, 도담삼봉 등 단양일대를 관람하며 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 워크샵 주제발표

- 약대 6년제 무엇이 문제인가? - 백승인 기획이사
- 왜 한국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하는가? - 백승인 기획이사
- 노인요양보장제도 - 백승인 기획이사
- 표준화법 - 이봉구 기획이사

포항시의사회 가족산행



포항시의사회 가족산행 겸 제35차 포항시의사산악회 정기산행이 지난 2005년 9월 25일 안동시 길안면 소재 천지갑산(452m)에서 회원 및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화창한 가을날씨를 보인 이날 오전 8시 버스편으로 포항을 출발하여 10시부터 산행을 시작하여 2시간여 산행을 마친후 길안면 송사리 마을입구에 있는 정자나무 밑에서 미리 준비한 회무침, 수육 등을 안주로 술잔을 나누면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또한 새로 단장한 내연산 수목원으로 향하여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하며 휴식을 취했으며 5시경 청하면 소재 원조 비학산칼국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6시 30분 포항에 도착하여 해산하였다.

경상북도 건강증진사업 포럼 참석

경상북도에서는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지원 및 건

강증진사업관련 조사연구, 기획, 평가, 사업관계자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지원단(단장 임현술 동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을 구성하고 지난 2005년 10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2005년도 경상북도 건강증진사업 포럼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복지부 이종구 건강증진국장, 경상북도 윤호정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임현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보건의료계 인사등이 참석하여 건강증진사업 정책 방향, 경상북도 건강증진정책등의 주제 발표를 하였다.

또한 본회에서는 백승인 기획이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강증진사업인 무료개안수술, 의료봉사등에 대해 설명하고, 경상북도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료비 심사관련 설명회 개최

의협에서는 심평원과 함께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합관리제·DUR 관련사항, 상대가치 대개편 작업 및 금년도 수가협상 관련사항등의 이해를 위해 설명회를 지난 2005년 11월 1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경북대학교 응급병동 10층 강당에서 대구·경북의사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제2시국선언 대구경북 시도민 쉼기대회 참석

‘나라가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살리자!’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2시국선언 대구경북 시도민 쉼기대회가 지난 2005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부터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쉼기대회에서는 본회 변영우회장과 대구시의사회 정무달 회장, 장주환 경북교육공동체대표등 13인이 공동대회장으로 참석하였으며, 김동길, 김현욱, 오정인, 배병후, 서석구씨등 연사로 나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도민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역설하였다.

감염성폐기물 제도 개선 관련 서명운동 결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현행 의료폐기물 제도의 개선(감염성폐기물 명칭, 정의 변경, 재분류, 기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객관적·과학적 제도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관단체,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쳐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듯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배출기관(종합병원,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의지를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한 633명분을 지난 2005년 7월 19일(화) 의협에 보고하였다.

국회 감염성 폐기물 개선 토론회 참석

지난 2005년 12월 6일(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감염성폐기물처리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 본회에서는 변영우 회장, 전민 의무이사등 8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감염성폐기물처리 개선

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원보 의협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의 의료관계 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용어 적용 오류 때문에 의료폐기물의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초래됐으며,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나친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장은 감염성폐기물 관련법규 개정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폐기물의 환경 유출에 따른 2차 오염 방지·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관리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형성된다면 관련 단체가 요구해 온 의료폐기물 명칭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12월부터 매달 관련단체의 공식 의견을 수렴·정리하는 회의를 개최해 2006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합의해 건의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인어서 현행 폐기물관리법 개정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방폐장 유치 관련 지역기관·단체장 간담회 참석



경상북도에서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2005년 9월 6일(화) 오전 11시부터 경상북도청 강당에서 이의근 도지사, 본회 변영우 회장등 지역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폐장 추진상황 보고 및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설명과

지역 기관단체의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3개 지역(포항시, 경주시, 영덕군)에서 유치 신청한 방폐장에 대해 지역동향보고와 방폐장의 안전성,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항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찬성 여부를 결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성과 유치함으로 인한 기대효과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지역을 앞질러 경상북도에 반드시 유치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회 변영우 회장은 경상북도 기관·단체장을 대표하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성명서에서 옹도 경북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 집적지로서 국가 전력생산의 중심인 경북 동해안에 유치하고자 염원을 담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주민 및 도민과 더불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방폐장의 동해안 유치에 적극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포항·경주시의사회 방폐장 유치관련 지지성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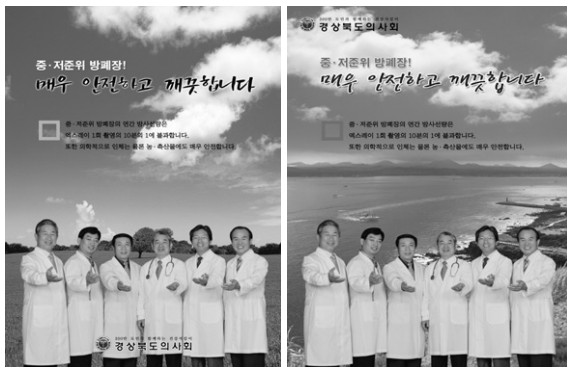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의사회서는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주시의사회는 지난 2005년 9월 6일(화)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방폐장 경주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서를 통해 CT 및 X-ray 촬영 등 방사선을 직접 환자치료에 사용하는 의사들로서 중·저준위 방폐장은 안전하며 침체한 경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방폐장이 유치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또한 포항시의사회서도 지난 2005년 9월 13일(화)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드시 유치하여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포항지역의 경제상황을 되살리자고 하였으며, 방폐장과 관련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방폐장 안전성 포스터 제작 배부



경상북도에서는 국가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저준위 방폐장」의 경북 동해안 유치는 지역 발전의 기회이자 옹도 경북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3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과 연계하여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홍보 포스터 6천부를 제작하여 포항, 경주, 영덕군의사회와 각 의료기관 및 지자체 방폐장 유치단체에게 배부하였다.

□ **홍보포스터 내용** : 방폐장 유치는 경북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며, 의학적으로 인체는 물론 농축산물에도 전혀 피해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임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경주시의사회 연말 불우이웃 돕기 전개



경주시의사회서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경주시 강동면 예티쉼터와 대자원을 방문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예티쉼터에는 김장희 회장과 임원 및 회원 7명이, 대자원에는 임원 및 가족 8명이 참석하여 시설 관계자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각 100만 원씩의 성금 전달과 생필품을 함께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며, 앞으로 의사회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돌보기로 하였다.

2005년도 '크리스마스 썰' 배부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는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썰 판매모금운동을 결핵예방법 제3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과 정부 각 부처의 협조를 얻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였으며, 이 기금은 결핵예방 BCG 생산·공급, 환자 발견 및 치료, 조사연구, 교육훈련 및 계몽지도사업 등 우리나라 결핵병 근절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썰 2,000매(500,000원)를 구입하여 시군의사회에 무료로 배부하였다.

의협 100주년 기념공연 및 패션쇼 기금기탁

의협 100주년위원회는 2008년 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 의사 100주년 맞이 기념 콘서트 및 의사 패션쇼를 개최하였다.

□ 행사명 : 한국 의사 100주년 맞이 기념 공연

- 일 시 : 2005년 11월 7일(월)
- 장 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 홀
- 기금기탁 : 3,300,000원(공연티켓 55매)

□ 행사명 : 한국 의사 100주년 맞이 기념 패션쇼

- 일 시 : 2006년 1월 15일(일)
- 장 소 : 서울하얏트호텔
- 기금기탁 : 300,000원(패션쇼티켓 2매)

파키스탄 강진 피해 성금기탁

지난 2005년 10월 8일(토) 파키스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의협에서는 대재앙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활동과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키로 하였으며, 본회에서는 강진 피해 성금을 별도로 회원들에게 모금하지 않고 기존 적립된 수재의연금에서 4,800,000원을 지난 2005년 10월 26일(수) 의협에 기탁하였다.



폭설피해 성금 전북도의사회에 전달

본회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28일(수) 호남권 전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엄청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은 전북도의사회 회원을 돕기 위한 폭설 피해복구 성금 300만원을 전북도의사회(회장 김학경)에 전달하였다.

본회 변영우 회장은 폭설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지방을 방문하여 폭설로 인한 피해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이루어져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김학경 전북회장은 경북도의사회 회원들이 보내준 성금은 설해 피해 복구에 쓰여지도록 하겠으며, 경북의사회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인사가 있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본회에서는 변영우 회장과 박재영 사무국장이, 전북의사회에서는 김학경 회장과 두홍서 남원회장이 배석하였다.

경상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1987년 두 지역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상호 격년 초청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 베트남에 의료장비 기증

본회에서는 지난 2006년 3월 8일(수) 오후 2시 경상북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띠이 띠군 라방면 룡반마을 현지주민들의 진료에 필요한 기

초건강체크장비를 기증하였다.

이날 의료장비 기증에는 본회 이석균 부회장이 경상북도 이철우 정무부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심전도기, 현미경등을 비롯한 기초의료장비 29종(55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다음달 초 베트남 새마을운동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건진료소 준공일에 맞춰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초의료장비 기증은 한·베트남간 교류협력 사업으로 지난 2005년 2월 이의근 경상북도지사의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방문결과 의료지원사업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현지 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약단체와 공단이 양측의 협의를 통해 최초의 계약을 성사시켜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를 올해 58.6원 대비 3.5% 인상된 60.7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합의한 3가지 기본조건은 ▲2008년까지 건보보장성 80% 달성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가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의약단체들도 흡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으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에 의미를 두었다.

□ 2006년도 의원급 기준 진찰료 내역

(점수당 환산지수 3.5% 인상)

- 초진료 : 10,740원 → 11,120원(380원 인상)
- 재진료 : 7,680원 → 7,960원(280원 인상)

야간가산 시간대 개정고시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1월 27일 진찰료 야간가

산 시간대를 현재의 평일 20시(토요일 15시)~익일 09시에서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로 개정 고시하였다.

□ 진찰료 야간가산 시간대 환원

(시행일자 : 2006년 2월 1일부터)

- 평 일 : 20시~익일 09시 → 18시~익일 09시
- 토요일 : 15시~익일 09시 → 13시~익일 09시

법정 전염병 진단·신고기준 책자 배부

의협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한 신속한 감시체계 및 자발적 신고 체계 마련을 위한 전염병 홍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법정 전염병 진단·신고기준」책자를 제작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예방접종(전염병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전달하도록 각시군 의사회 및 병원급을 통해 배부하였다.

2005 개원회원을 위한 세금가이드 책자 배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참조하도록 전문을 검토, 수정하여 '2005 개원회원을 위한 세금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이에 개원회원들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가이드 책자를 개원회원을 대상으로 배부하도록 지난 2005년 5월 3일 각시군 의사회를 통해 배부하였다.

홈페이지 및 간판 광고 규정 준수

의협에서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현재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법개정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 2005. 4. 18)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허위·과대광고를 제외하고 단순히 광고의 범위를 일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처리지침(보건의료정책과-1535호, 2004. 4. 30)을 보건소에 하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지역에서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간판에 대한 고발 등 민원이 발생하여 보건소로부터 행정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회원들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판 등 의료광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정을 안내하여 현행 법규정에 맞는 의료광고의 준수를 홍보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된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설치'와 관련하여 오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신축 건물 등에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 동 법령이 정한 내용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회원들로부터 문의가 계속 되고 있음에 따라 의협에서는 상기 법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였다.

□ 장애인 편의시설

- 의무설치 :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 권장사항 : 소변기 및 세면대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특별점검 실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4. 8. 11)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의 보관기준이 200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적정보관 및 전용용기 사용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6월 중 전국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보관기준 준수에 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본회에서는 개정된 법령 미숙지 및 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환경부 지도·점검시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도록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안내 하였다.

□ 중점 지도점검 내용

-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및 합성수지류) 사용
- 손상성 및 액상의 의료폐기물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
-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냉동보관
- 기타 보관기간, 사용후 밀폐포장, 보관창고, 태반배출실명제 등 관련 규정 준수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한

의협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로 정관 제6조제2항(회원의 의무)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원등록 및 회비 관리를 강화하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과 미납한 회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의협 제56차 및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차례 집행부에 추진하도록 위한 사항으로 의협 제97차 상임이사회(2005. 5. 19)에서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집중 논의하여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게 대해서는 각종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기로 의결하였다.

- 서비스 제한대상 :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2개년 도연회비를 모두 미납한 경우(직전 2년중 회비를 1회 이상 납부시 제한대상이 아님)
- 서비스 제한내용
 - 의협신문 및 대한의사협회지 발송 중지
 - 사이버연수원(cme.kma.org) 접속제한(2005. 5. 11부터 기 시행)
 - 홈페이지(www.kma.org) 회원 접속(www.kmatimes.com은 접속제한이 아님)
 - 시도 의사회 등의 회무 정보제공 제한 : 책자발송, 회람, 안내문 등
 - 연수교육 관련 제한 : 연수교육 이수자 보고제한
 - 보험, 법률등 대회원 상담서비스 제한

IMS등 분쟁심의회 심사결정 안내

지난 2005년 5월 27일(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는 제77차 심의회를 열고 지난 76회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진료수가 15건에 대해서는 유효하며 향후 IMS관련된 심사청구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하였다.

자보심의회는 결정을 반복하고 의·한의계를 의식한 절묘한 선택을 한 셈이며, 향후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시까지 의사와 한의사간 'IMS 침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재시 대진의 관련 주의사항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관내지역에서

의사부재기간(입원, 해외 출국)중 진료비청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동 조사는 의사의 입원 및 해외출국기간중 발생한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대진의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바, 향후 각 의료기관에서는 동조사 등과 관련하여 대진을 활용할 경우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을 제외한 의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의사가 대진을 활용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보건소)에 신고절차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4항에 의거 심사평가원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연포스터 및 홍보책자 배부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005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담배연기에는 40여가지의 발암물질과 4천여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늦기전에 금연을 하라'는 내용의 포스터와 금연관련 홍보책자를 제작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금연! 늦기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라는 포스터를 의료기관의 게시판에 부착되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포스터 및 홍보책자를 각시군 의사회 단위를 통해 배부하였다.

전국 의사 반모임 개최



의협에서는 전국 회원의 단합과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 및 회원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각시군 의사회 반별로 전국 의사 반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3차례의 반모임을 개최하여 회원들은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상호 개진하였다.

구분	일시	주제
제12차	2005년 5월 27일(금)	한국의료일원화 경과 보고 및 대책
제13차	2005년 6월 24일(금)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4차	2005년 7월 29일(금)	약대 6년제 추진 부당성에 관한 대국민홍보

의료기관간 의료기기 직거래 관련 안내

의협에서는 현행 의료기기법 중 의료기관간의 의료기기 직거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인의 사유재산의 침해 소지가 있어 그간 유관기관에 규제개혁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간의 중고의료기기 직거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만큼 단순히 의료기관 자산처분 행위로 간주되어 별도의 판매업 신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에 의해 의료기관간 중고의료기기를 직거래로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다.

회비 미납 회원 연수교육 관리방안

의협 제56차,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2005. 4. 23)에서는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의협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제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이에 중앙회 정관 제6조제2항(회원의 의무)에 의거 2005년 7월 1일부터 직전 2개년도 연회비를 모두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 3(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연수교육 이수자 보고서 소정의 연수평점(년 8평점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현재 연수교육 기관에서 회원들의 평점 이수결과 보고서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수교육에 참가하여 받은 평점카드를 각 소속의 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누락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 안내

주 40시간 확대시행으로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의 경우 토요일 진료공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의 소

지를 줄이려는 복지부의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에 대해 의협에서는 복지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이유가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시군구별 해당사회와 자율협조 하는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전북지역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을 해당 의사회와 자율협조하지 않고 무리한 적용을 하여 이에 관계기관에 강력항의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 시군구별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 협조요청에 대해 해당사회 자체판단에 의해 협조여부를 결정
- 만일,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 비민주적인 강제적 수단이 강행된 경우 의협에 통보요망

지역유선방송에 의한 의료광고 유권해석

의협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유선 방송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적법성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이 있었다.

-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46조제4항)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유선 방송 또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중파 케이블 방송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과당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임.

공단의 과잉수진자조회에 대한 조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정질환(포경수술)에 대한 과잉 수진자 조회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의협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15일에 개최한 공단과의 업무협의회에서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수진자 조회 관련 문제제기 등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수진자 조회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수진자 조회 건수를 줄여 축

소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과도한 수진자 조회를 자체토록 하겠다' 고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시간 경쟁을 하듯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고 있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의협에서는 공단측에 과도한 수진자조회를 즉각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협 '회원 법률상담실' 운영

의협에서는 대회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진료업무를 비롯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법률 상담을 개시하였다.

'회원 법률상담실'을 통해 회원들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상담이나 부당청구 관련사건 상담, 행정처분 관련 상담, 헌법소송 및 가사, 재산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으며, 특히 회원에게 불이익이 미칠 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 전문 분야에 따라 심도있는 비공개 추가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며, 지난 2005년 11월 15일(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제출 요청

현행 의료법 제28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임상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은 연간의 무평점(8평점)을 이수토록 되어 있으며, 2005년도 연수교육 이수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제출해 줄 것을 각시군 의사회 및 병원급에 요청하였다.

이수자 보고서에는 소속회원의 성명과 면허번호, 병원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본회, '항생제 대정부 공개질의서' 발표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의 항생제처방률을 공개한데 대해 본회에서는 지난 2006년 2월 15일(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한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며 대정부 질의서를 발표하고, 항생제처방률 공개의 모순을 낱알이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심내막염, 뇌수막염, 신장염, 중이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 등 여러 가지 합

병증을 동반하는 감기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하였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의사회 회칙 제9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2006년 3월에 선출예정인 제39대 회장 및 제13대 대의원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유근(안동, 최유근안과의원) 회원등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2008. 3) 전일까지이다.

구분	성명	근무처	전화
위원장	최유근	안동, 최유근안과의원	054)854-5775
위원	손병욱	경산, 손병욱내과의원	053)815-7900
"	이용렬	문경, 이용렬이비인후과의원	054)555-4797
"	김중국	구미, 경북정형외과의원	054)452-1985
"	김지홍	포항, 김지홍정형외과의원	054)277-7575
"	성후식	포항, 한동대선린병원	054)245-5818
간사	박재영	경상북도의사회 사무국장	053)941-7785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본회 회칙 제9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2006년 3월 29일(수)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될 경상북도의사회 제13대 의장 및 제40대 회장 선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2월 22일(수) 제이스호텔에서 최유근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6명, 이석균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최유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협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회에서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 의협회장선거의 진행상황과 선거인명부 확정등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사항으로 본회 의장 및 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에 따라 선거일정과 후보등록사항을 확정하고 진행키로 하였다.

본회 의장 및 회장 선거일정 확정 공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칙 제9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2006년 3월 29일(수) 실시될 경상북도의사회 제40대 회장 및 제13대 의장 선거를 공고하였다.

□ 선거명 : 경상북도의사회 제40대 회장 및 제13대 의장 선거

□ 선거사유 : 회장 및 의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 (회칙 제9조 및 제19조)

□ 선거일정

- 선거공고 : 2006. 2. 28(화)
- 등록기간 : 2006. 3. 13(월)~3. 14(화)
- 후보자등록공고 : 2006. 3. 15(수)
- 선거운동 : 2006. 3. 13(월)~3. 28(화)
- 후보등록안내 : 2006. 3. 18(토) 대의원
- 소견발표 : 2006. 3. 29(수) 총회석상
- 투표및개표 : 2006. 3. 29(수) 총회석상
- 당선인공고 : 2006. 3. 29(수) 총회석상

본회 의사회지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 회무안내와 회원들의 문예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의사회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3차례 개최하고 편집방향 등을 설정하였으며, 2006년 특집에는 '사연이 있는 사진'이라는 주제로 회원들의 지난 간 추억을 반추하며 Album속에 담겨진 특색이 있는 사진으로 특집을 구성하였다.

〈편집위원회의〉

- 제1차 편집위원회 : 2005. 10. 12(수) 대구
- 제2차 편집위원회 : 2006. 1. 13(금) 대구
- 제3차 편집위원회 : 2006. 2. 26(일) 대구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 개최

지난 2006년 2월 21일(화) 오후 8시 호텔 제이스 사파이어홀에서 2005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도 회무보고와 (가)결산보

고 및 2006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시군회장 소개와 2005년도 주요사업보고 및 회무보고, 일반회계 (가)결산서, 자산 및 각종 적립금 결산서를 보고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서(안)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기타 토의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34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줄것과 많은 관심을 가져줄것을 당부하였다.

2005년도 회무감사 수검



2005년도 회무감사가 지난 3월 11일(토) 오후 6시 본회 사무국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날 감사에는 본회 회계 회무 전반에 대해 실시되었다.

이날 감사에는 유성호·정능수 감사와 본회 집행부에서는 이석균부회장, 백승인·이봉구 기획이사, 천종욱 재무이사, 박재영 사무국장이 배석하였다.

변영우 후보 후원의 밤 개최

지난 2006년 2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 제이스호텔에서 변영우 후보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초청간담회는 변영우 후보가 제34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출마의 소신을 밝히고 여러 회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초청간담회에서는 정무달 대구시의사회장과 신현우 울산시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 홍선희, 조세환 고문과 병원장, 경북의사회 신은식 고문 등 내빈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변영우 후보는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협회장 임기 3



년동안 의협 인근으로 이주하여 회무에 전념하고, 3년 간의 급여를 반환하여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참석하신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갈채의 박수로 화답 받았다.

이날 초청행사는 이정근 회원의 사회로 진행되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후보자 홍보 영상물 상영과 인사, 내빈축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변영우 후보가 반드시 의협회장에게 당선되어 뜻심과 원칙으로 국민과 회원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필승을 다지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의협회장 선거인명부 작성 보고

제34대 의협 선거인수는 총 3만4967명으로 잠정 확정하였으며,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의협에 회원신고를 한 7만1828명 중 48.7%에 달하는 3만4967명을 잠정 확정하였다.

이번 선거인수는 지난 2001년 첫 직선 당시 유권자 4만3660명과 비교하여 8693명 줄어들었으나 2003년 제33대 선거 유권자(3만2764명) 보다는 2203명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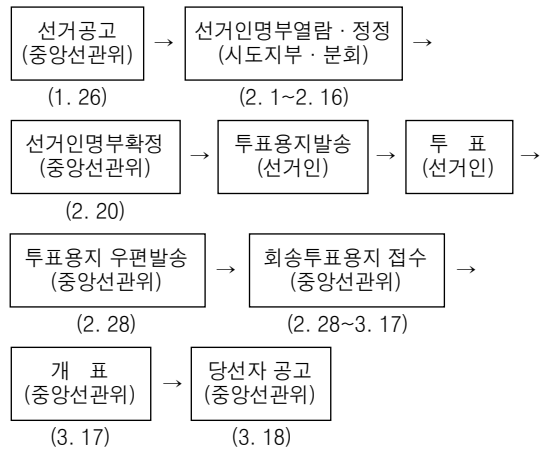
지역별 선거인수는 ▲서울 1만1603명 ▲부산 3170명 ▲대구 2792명 ▲인천 1429명 ▲광주 1444명 ▲대전 1054명 ▲울산 744명 ▲경기 3763명 ▲강원 978명 ▲충북 764명 ▲충남 853명 ▲전북 1282명 ▲전남 958명 ▲경북 1,958명(군진포함) ▲경남 1823명 ▲제주 352명이다.

제34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관련 보고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국민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8만여 의사의 대표를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이며, 전 회원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였다.

- 선거종류 :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선거
- 선거형태 : 회원투표에 의한 보통 · 직접 · 평등 · 비밀선거
- 선거방법 : 기표에 의한 우편투표
- 선거권 : 의협 등록된 회원중 정관 제6조에 의해 선거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2000~2004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자
- 선거일정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현황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13일~15일 사흘동안 진행한 후보자 등록기간에 모두 8명이 등록을 마쳤다.

기호	성명	근무처	연령	출신의대
1	주수호	주수호외과의원	48세	연세의대
2	김대현	신한방사선과의원	60세	부산의대
3	장동익	영림내과의원	58세	연세의대
4	김세곤	대한의사협회	62세	가톨릭의대
5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	58세	경북의대
6	김방철	전 의협 상근부회장	59세	고려의대
7	윤철수	해진의원	49세	중앙의대
8	박한성	서울시의사회	59세	연세의대

시군의사회 신임 회장 선출

본회 산하 시군의사회서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각 시군의사회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주요 회무보고 및 일반회계 결산과 아울러 200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책정하고 신입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는등 회무를 시작하였다.

각시군의사회서는 회원들이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풍토를 만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포항시의사회장 : 권영철(권영철정형외과의원)
- 안동시의사회장 : 최현욱(동산정형외과의원)
- 구미시의사회장 : 김동욱(조은 i 의원)
- 영천시의사회장 : 이석주(녹십자외과의원)
- 상주시의사회장 : 이철우(이내과의원)
- 의성군의사회장 : 한성탁(한사랑의원)
- 영덕군의사회장 : 권영대(권외과의원)

경북의사회 회장에 이원기 후보, 의장에 이석균 후보 단독 출마



지난 3월 14일(화) 오후 5시 경상북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유근)에서 마감한 제40대 회장 선거에 이원기(포항, 이원기외과의원) 후보가, 제13대 의장 선거에는 이석균(경산, 청십자의원) 후보가 각각 단독출마 하였으며, 오는 3월 29일(수)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이원기 회장 후보는 1970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78년부터 포항시 소재 이원기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1980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포항시의사회장, 2000년부터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정관개정위원등을 맡고 있다.

이석균 의장 후보는 1976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88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7

년부터 청십자의원을 개설하고 있다. 1996년 경산시의사회장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경북의사회 부회장, 2001년부터 대한의사협회 중앙이사를 역임하였다.

제34대 의협 회장에 장동익 후보 당선



의협 제34대 회장에 장동익 후보(기호 3번)가 당선되었다. 장 당선자는 8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 18,451표 가운데 4,039표(득표율 21.89%)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세번째로 직선으로 치러진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장 당선자는 초반부터 개표 종료까지 계속 선두를 지켰으며, 김세곤 후보 3,367표, 주수호 2,983표, 변영우 후보 2821표를 얻었다.

장 당선자는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4월말까지 당선자 신분을 유지한 다음 회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5월부터 3년 임기의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의료계를 이끌어 나가게 되며, 당선 소감을 통해 ‘앞으로 8만 의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하였으며, ‘의사 다운 의사, 의협 다운 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 들어 ▲힘 있는 의협 ▲건강한 의협 ▲불루오션을 창출하는 의협 ▲인정받는 의협 ▲사랑받는 의협 등을 실천적 5대 운동으로 표방하였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체근 위원장은 개표 종료되고 새벽 3시 43분 즉시 장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함으로써 회장 당선을 공식 선언하였다.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득표현황

- 선거인수 : 34,967명
- 총투표수 : 18,863명(유효투표수 : 18,451명)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1	2	3	4	5	6	7	8	
주수호	김대현	장동익	김세곤	변영우	김방철	윤철수	박한성	412
2,983	1,743	4,039	3,367	2,821	1,145	563	1,790	
15.8	9.2	21.4	17.8	14.9	6.0	2.9	9.4	2.2

본회, 의협회장선거 득표율 전국 의사회중 최고

제34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본회가 전국 의사회중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영남지역 득표율이

전국 투표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경북이 79.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대구(72.53%)·울산(65.86%)·경남(61.66%)·부산(61.20%) 의사회 등이 전국 투표율 53.95%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에 비해 서울시의사회는 44.13%로 충남(43.73%)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인천(48.64%)·경기도(49.40%) 등 수도권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밀도는 40%대를 기록하였다.

□각시도의사회별 투표율

- ▲서울시 44.13% ▲부산시 61.20% ▲대구시 72.53%
- ▲인천시 48.64% ▲광주시 54.09% ▲대전시 57.12%
- ▲울산시 65.86% ▲경기 49.40% ▲강원 51.84%
- ▲충북 50.65% ▲충남 43.73% ▲전북 53.43%
- ▲전남 54.38% ▲경북 79.01% ▲경남 61.66%
- ▲제주 57.10%

비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 발급 안내

의협에서는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의 착오발급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하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590호)에 의한 병사용 진단서 발급양식 및 발급대상과 관련하여 비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비지정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1월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불법, 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서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인, 약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불법, 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지난 2006년 3월 22일(수) 오후 2시 대구시의사회관에서 개최하고, 의료인 및 약사가 알아 할 관련법규, 주요 행정처분사례, 진료비 등 허위·부당청구 발생사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맹섭 사무관과 심평원 교육담당자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협정 이용 안내

의협에서는 지난 2006년 2월 28일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하나로텔레콤과 사업협정을 맺었다.

의약5단체는 그간 일선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격할인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금번과 같이 하나로텔레콤과 협정을 맺게 되어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협회원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2005 회의참석

회의내용	참석	비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1회	중앙대의원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2회	중앙대의원
의협 시도의사회장 회의	16회	변영우회장
의협 회의 및 중앙회의	56회	변영우회장
의협 대의원회 운영회의	10회	이원기의장
의협 전체이사회	1회	이석균중앙이사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2회	권영철차보위원
의료정책연구소 위원회	6회	정만진위원
의협 의료폐기물대책 회의	3회	전 민의무이사
의협 개원의평의원회	1회	전 민위원
의협 보험이사회	1회	조성범보험이사
의협 총무위원회의	1회	이봉구기획이사
의협 윤리위원회의	2회	신은석위원장·안길룡부위원장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1회	최유근위원장
회무관계 회장이군출장	15회	변영우회장
의협 사무국장회의	4회	박재영사무국장
계	122회	

회원정기신고 개인별 웹방식 실시

의협에서는 회원정기신고와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신상신고서식(paper)을 폐지하고 웹방식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개별회원이 웹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회원 개인별 웹방식 신고 ●



의료법 제28조 제2항,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분회 정관 제3조, 연수교육시행규정에 따라 의사는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연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12평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가. 목적 : 전문인으로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최신 의학지식 및 의료 기술과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인문사회의학교육을 높은 수준의 진료수행 및 의료 윤리를 유지케 함.

나. 교육회기 및 이수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다. 이수평점 : 연 12평점 이상

라. 연수교육 대상자 :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교육을 면제한다.

- ①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자
 - ② 군복무 중인 자
 - ③ 전공의
 - ④ 대학원 재학생(석사·박사과정, 단, 의학과만 해당)
 - ⑤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⑥ 해외체류, 휴·폐업 등으로 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⑦ 질병 기타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증빙서류를 첨부한 면제신청서(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연수교육양식에서 다운로드)를 제출해야 함.

※공중보건직의는 1999년까지 면제대상이었으나 2002년도부터 모두 이수대상임.

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중보건직 사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식함.

마. 연수교육의 이수방법 :

- ① 승인된 연수교육 참석(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연수교육일정안내' 에 교육 일정게시)
 - 1일 교육상한 점수는 6평점
 - 참석시 등록대장에 성명, 면허번호, 근무처를 명확하게 기재, 평점카드를 반드시 받아야 함.

평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교육기관은 교육실시 후 참석자에게 2부의 평점카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참석자는 '참석자 보관용' 평점카드를 3년간 보관하고, '소속지역의사회제출용' 평점카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지역의사회(분회 16개 지회)로 제출해야 함.

- ② 사이버연수교육 참여(연 5평점)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원(cme.kma.org)이용
 - 1강좌당 1평점(e-test 70점이상 기준)
- ③ 대한의사협회지 자율학습 참여(연 3평점)
 - 우편, FAX,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1회 1평점(60점이상 기준)
- ④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학술지, 학회지 등에 논문게제(소속기관의 경우 보고서 접수처리 기능)
 - 공저의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편당 5평점, 제2저자 이하는 3평점으로 인정
- ⑤ 외국 개최 학술대회 및 의학회에 참가한 경우의 평점은 그 근거자료에 의거 기준에 따라 해당 의사회 및 학회에서 국내평점으로 환산 인정
- ⑥ 조정 연수교육 평점 중 연 4평점 이상을, 개원의 및 인턴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해당 시·도 의사회에서, 의과대학 및 레지던트 교육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학회 또는 해당 시·도 의사회에서 이수해야 함(연수교육시행규정 제4조 2항).

바. 미이수자 행정처분 [의료법 제53조 제1항 및 제71조 제3항]

- ① 1차 미이수시 : 경고
 -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 처분
- ②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 ※개인평점 확인방법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에 로그인 후 '회원정보관리-상세 회원정보 연수교육'
 - ※개인평점 확인방법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에 로그인 후 '회원정보관리 - 상세회원정보 - 연수교육'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동정

www.kbkma.org

본회 변영우회장, 제34대 의협회장 출마



지난 15여년동안 지역의사회에서부터 대한의사회 부협회장을 거치고 의권 투쟁과 정치세력화에 앞장서온 본회 변영우 회장이 제34대 대한의사회장에 출마하였다.

변영우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새로운 의사상을 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회장에 당선되면 임기응변식 태도는 지양하고 당장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무에 임하며 뚝심있게 원칙을 지키는 의사협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인수공통전염병대책협의회 위원에 변영우 회장

경상북도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신종 인수공통전염병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류 건강에 큰 위협적인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부서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염병 전파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동 대책협의회 위원에 본회에서는 변영우 회장이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005년 5월 25일부터 2007년 5월 24일까지 2년이며,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개발, 역학조사 협력, 정보교류 및 자문등의 역할로 하게 되며, 의사회, 수의사회, 의과대학, 수의과대학과 경상북도 축산 및 보건위생 관계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경북의료심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변영우 회장

경상북도에서는 의료법 제5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경상북도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행위관련 민원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등을 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회 변영우 회장이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년간이다.

포항 신은식 회원 민주평통 공로장 수상



헌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재임한 공로로 민주평통의 장인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목) 신은식 회원(신정형외과의원)이 공로장을 수상 하였다.

이 공로장은 지난 8월 4일(목) 포항시 장실에서 시민들에게 평화통일의 지지를

고취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공헌한 신은식 회원과 김천수 전 민주평통포항시협의회장, 하민영 포항1대학장등을 비롯한 자문위원 9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공로장을 전달하였다.

마약류명예지도원에 본회 이석균 회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마약류에관한법률 제49조, 동법시행령 제18조및제28조에 의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계몽활동 등을 통해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에 기여하고자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위촉하였다.

본회에서는 이석균회원(경산, 청십자의원, 본회 부회장)이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005년 5월 31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2년이며, 명예지도원은 의사회, 약사회등 관련단체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경북도 자원봉사대상 본상에 이석균 회원

경상북도가 수여하는 2005년도 자원봉사 대상 수상자로 이석균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경산 청십자의원)이 선정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영천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자원봉사경진대회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5년 청강장학회를 설립, 현재까지 회장을 맡으며 총 26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경로당 등 50여개 기관 및 단체에 9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 1994년부터 학생 및 시민들이 무료로 취미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꿈나무 봉사단장을 맡아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돕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경상북도생활보장위원회 위원에 이석균 회원

경상북도에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련업무 심의를 위한 경상북도생활보장위원회 위원에 이석균(경산, 청십자의원)이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요실금 치료법 개발한 이경섭·서영진 회원

제20차 유럽 비뇨기과학회서 발표

동국대경주병원 이경섭·서영진 교수팀이 최근 일반 중년 부인들에게 흔한 요실금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0차 유



립 비뇨기과과학회 행사에서 이 교수 팀은 여성 질내 작은 절개창을 통해 테이프를 요도 중앙에 고정, 요실금을 효과적으로 낮게 하는 치료법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 치료법은 수술 후 요실금이 깨끗이 없어짐과 동시에 별다른 합병증도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관련의학계의 큰 반향을 받았다.

요실금은 부녀자들이 출산 후 방광이 아래로 처지면서 재채기, 줄넘기 등 배에 힘이 들어갈 경우 자신도 모르게 오줌이 지리는 증상인데, 이로 인해 대인 기피증을 보이거나 부끄러워 병원 찾기를 꺼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에 변승열, 전민 회원



경상북도에서는 마약류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치료·보호를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

조에 의거 경상북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장에 본회 변승열(포항의료원) 회원과 전민(포항, 전민신경정신과의원) 회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본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최유근 회원



경상북도의사회 회칙 제6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2006년 3월에 선출예정인 제39대 회장 및 제13대 대의원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유근(안동, 최유근안과의원) 회원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2008. 3) 전일까지이다.

의료·약화사고 시도 공동조사단에 이석균·전민 회원

경상북도에서는 특이한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소관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원인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공동조사 실시 등 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약화사고 시도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본회에서는 이석균(경산, 청십자의원), 전민(포항, 전민신경정신과의원) 회원이 위촉되어 활동중이다.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위원에 이영현 회원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난치병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는 이영현(동국대학교경주병원 내과) 회원을 추천하여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산업재해 보험업무협의회 위원에 김종원 회원



의협에서는 산재환자 관리기준 및 신규요양기관 인정기준 강화등 최근의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산업재해 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재보험업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는 김종원(경주, 현대병원) 회원이 위촉되었다.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에 고정미 회원



경상북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는 고정미(포항, 고내과의원) 회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이다.

시도사무국장협의회 회장에 본회 박재영 사무국장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9일(목) 제7차 시도사무국장협의회를 열고 회원 정기신고 및 회비와 관련한 실무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사무국장협의회에서는 임원선거가 있었으며 시도사무국장협의회 회장에 본회 박재영 사무국장이, 총무에는 박준수 울산시의사회 사무국장이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05년 6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현숙회원 별세



신현숙회원(포항, 영남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19일 향년 8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故 신현숙회원은 1944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1945년 안동도립병원, 포항도립병원, 1963년 교통부 포항의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포항시 소재 영남의원을 개설해오면서 시민 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박영진회원 별세



박영진회원(포항, 박영진신경외과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 26일 향년 6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故 박영진회원은 1963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1973년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75년 동광병원 신경외과 과장등을 역임하였으며,

1992년 포항시 소재에 박영진신경외과의원을 개설해 오면서 시민보건향상과 참의료인상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강돈규회원 별세



강돈규회원(영천, 강산부인과의원)은 지난 2006년 1월 31일 향년 61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故 강돈규회원은 1970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85년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북의대·계명대·한양대 외래강사등을 역임하면서 후진양성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영천시 소재 강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해 오면서 지역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의료사고분쟁의 해결책, 분쟁조정, 합의, 보상의 모든 것 **의료배상공제**

*보상한도액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면책금(자기부담금) :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특별약관 : 경호비용담보, 벌금담보, 형사방어비용담보, 관습상비용담보, 초빙/마취의담보

가입문의처 :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Tel. 02-794-2480, 6587, 2474(ARS 8) Fax. 02-792-1361

[702-824]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경상북도의회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성명서 · 결의문

•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경상북도의사회 성명서(2005. 3. 18)

• 의료일원화에 대한 경상북도의사회 성명서(2005. 3. 29)

• 친선행사 성명서(2005. 9. 4)

• 항생제처방률 공개의 모순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2006. 2. 15)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경상북도의사회 성명서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번지에서 37번지까지 위치한 우리의 영토다. 독도가 1500여년 전부터 우산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영토가 된 후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생활 터전으로 추호의 의심도 일으킬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여년 간 경상북도와 자매결연을 유지해 온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이라는 해피망측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영토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백주의 날강도 심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수없이 많다. 그런데도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갈수록 신군국주의 망상에 빠져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영토침탈 야욕에 대하여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 다 음 -

1. 시마네현은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즉각 폐기하라.
1. 경상북도가 선언한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 폐기와 단교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1. 정부는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독도를 찾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라.
1. 우리 의사들은 독도 지키기와 독도 보전을 위한 모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2005년 3월 18일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일동

의료는 하나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성명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고대로부터 하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식물을 이용한 생약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통의학을 과학화, 체계화시킨 것이 현대의학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표방하는 한의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의사협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원화 된 의료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정부는 둘로 갈라놓을 수 없는 의학과 한의학을 일원화 시켜 발전시키기는커녕 더욱 더 분리를 조장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한의학계는 겉으로는 전통의학을 표방하면서도 이면으로는 과학화된 현대의학을 흉내내는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과학적인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한약을 임신부나, 소아에게 안전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의료계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오늘 경상북도 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의료일원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정부는 두 개의 의료를 고착화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한의학의 과학화는 곧 의료일원화이다. 정부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책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1. 한의사의 잘못된 치료인식을 지적한 대한내과의사회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1. 한의학계는 더 이상 민족의학이라는 미명 뒤에 숨어있지 말고, 의료일원화에 적극 동참하라.

2005년 3월 29일

경상북도의회 대의원 일동

성명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무모하고 원칙없는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건강은 무너져 가고 있으며 의료환경은 황폐해 가고 있다.

대통령도 머리숙인 엉터리 조제위임제도, 밀실험의 정치의 소산인 약대 6년제, 경영난으로 죽음을 택하는 의사들, 강압과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이제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천박한 시행착오는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경상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깊은 분노를 표하며 한 자리에 모여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권을 지켜내는 선봉에 서고자 한다.

- 다 음 -

1. 정부는 강제적으로 졸속시행한 조제위임제도를 국회자원에서 재평가작업을 하고 전면 재 검토하라!
1. 정부는 임상약사와 약료라는 이름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획책하는 약대 6년제를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획일적인 의료사회주의 정책을 중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의료정책을 실현하라!
1. 의협은 오늘날의 참담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엇을 하였는가? 실의에 빠진 회원들을 독려하고 하나로 모아 단결된 힘으로 대정부투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라!

2005년 9월 4일

경상북도의사회 · 전라북도의사회



항생제처방률 공개의 모순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정부는 2006년 2월 9일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였다.

이는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언론을 통한 의사 죽이기의 일환일 뿐이다.

정부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모호하고 무지한 기준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함으로써 진료의 기본인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개되는 모순 된 의료 정책에 시달려 왔으며, 이번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 없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하는 바이다.

1. 정부는 감기와 상기도 감염의 차이도 모르는가?

상기도 감염(질병코드:J00~J06)이란 상부기도(공기통로)인 비강 구강 인두 후두 및 그 부속의 기관(편도, 부비동 등)의 염증을 말하며,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주 원인이다.

감기란 바이러스에 의한 단순한 상기도 감염을 말한다. 이런 단순한 구별도 못하는가?

1. 세균으로 인한 상기도 감염에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치료하란 말인가?

단순 감기에는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지만, 고름이 흐르는 부비동염, 끓을수도 있는 편도선염, 호흡 곤란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후두염을 상기도 감염의 범위에 든다고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치료하란 말인가?

1. 세균성 감염과 바이러스성 감염을 임상 증상으로 모두 구별할 수 있는가?

검사를 많이 하면 과잉진료로 몰아붙이지 않는가?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감염은 쉽게 구별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때마다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명을 담보하며 치료를 미루란 말인가?

1. J00~J06(상기도 감염)의 진단명을 붙인 의사는 무조건 항생제 많이 쓰는 부도덕한 의사란 말인가?

열나고 기침 나고 목 아플 때 상기도 감염 진단 코드를 붙인 의사는 항생제 많이 쓰는 악덕 의사이고 폐렴(J18)과 기관지염(J20) 코드를 붙인 의사는 항생제 적게 쓰는 훌륭한 의사란 말인가?

1. 감기의 합병증은 무시하고 치료하란 말인가?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감기 끝에는 심내막염 뇌수막염 신장염 중이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따라 온다. 이런 합병증을 무시하고 항생제를 쓰지 말란 말인가?

1. 보험청구시 상기도감염의 합병증과 감기가 상병명으로 함께 올라갔을때 감기로 항생제를 쓴 것으로 통계에 잡혔는지를 명확히 밝혀라?

1. 잘못된 지식, 잘못된 통계를 언론에 공개하여 의사와 환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의사를 천하의 죽일 놈으로 매도해야만 하는가?

정부는 지금까지 수없이 애매한 통계자료와 정책을 발표하여 의사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환자와 의사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진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

1. 항생제 사용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수 있는가?

초기 증상이 상기도 감염 비슷하지만 긴급하게 항생제를 써야하는 질환도 있다. 예를 들어 포도상 구균에 의한 폐렴 같은 경우 긴급하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불행한 경우 발생 시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똑 같은 병이라도 상황에 따라 치료에 많은 차이가 있다. 항생제 처방을 비롯한 의사의 진료권을 국화빵 찍어내듯이 일원화 획일화 시키려는 정부의 처사를 수용할 수 없다. 상기의 공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

2006년 2월 15일
경상북도 의사회

시·군별 병원명단

(2006. 3. 현재)

시군별	병원명	원장명	전화	주소
포항시 (14)	동국대포항병원	배성한	(054) 273-81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
	포항성모병원	장석범 (의무원장)	(054) 272-0151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1
	포항세명기독병원	한동선	(054) 275-0005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5
	포항의료원	변승렬	(054) 247-0551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15
	한동대선린병원	이건오	(054) 245-5000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늘열린동산병원	박영대	(054) 262-077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96-1
	리즈여성병원	배두진 (공동)	(054) 230-5000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3-21
	세명재활의학병원	조종훈	(054) 283-0815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2-2
	사랑병원	문충배	(054) 277-33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5
	여성아이병원	권세일	(054) 255-5000	포항시 북구 우현동 7B 5L
	인성병원	박철균	(054) 274-0733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38-1
	포항삼성병원	양정호	(054) 292-9264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1-35
	포항여성병원	윤철희	(054) 274-77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0-5
	포항E병원	조상희	(054) 277-555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4-6
경주시 (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심재철 (학장)	(054) 770-2398	경주시 석장동 707
	계명대경주동산병원	김종인	(054) 770-9500	경주시 서부동 147-2
	동국대경주병원	이규춘	(054) 748-9300	경주시 석장동 1090-1
	새빛병원	김영길	(054) 749-6666	경주시 노동동 117
	새천년병원	이길호 · 김영수	(054) 776-3601	경주시 성동동 406-2
	안강중앙병원	정수기	(054) 763-800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784-4
	좋은상록병원	김경오	(054) 751-6778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1950-3
	큰사랑요양병원	김영길	(054) 749-6650	경주시 동부동 133-4
	현대병원	김종원	(054) 745-8118	경주시 성건동 211-4
김천시 (6)	김천노인전문병원	-	(054) 435-6005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 97-15
	김천신경정신병원	정근재	(054) 432-5040	김천시 응명동 957
	김천우석병원	조상범	(054) 430-0202	김천시 모암동 140-1
	김천의료원	송달효	(054) 432-8901	김천시 모암동 85
	김천제일병원	강병직	(054) 420-9300	김천시 신음동 462-14
	신애정신병원	-	(054) 435-6009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632-1
안동시 (8)	안동병원	박경찬	(054) 821-1101	안동시 용상동 1592-31
	안동성소병원	박승국	(054) 857-2321	안동시 금곡동 177
	안동의료원	신현수	(054) 858-8951	안동시 북문동 470
	대성그린병원	-	(054) 821-7282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266-1
	류병원	류동근	(054) 851-1000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482
	류사랑병원	류호근	(054) 850-1000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483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	(054) 859-3020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64
	안동여성병원	박경찬	(054) 820-3101	안동시 용상동 1445-1
구미시 (5)	순천향대구미병원	황경호	(054) 463-7151	구미시 공단동 250
	포천중문의대구미차병원	이현우	(054) 450-9700	구미시 형곡동 855

시군별	병 원 명	원 장 명	전 화	주 소
구미시 (5)	고려병원	신 재 학	(054) 453-7575	구미시 원평동 1036-9
	구미병원	장 우 석	(054) 450-1000	구미시 도량동 581-6
	길요양병원	문 원 만	(054) 464-4200	구미시 사곡동 371-2
영주시 (2)	성누기병원	박 시 균	(054) 633-6011	영주시 영주2동 536-4
	영주기독병원	서 익 제	(054) 635-6161	영주시 영주1동 547-2
영천시 (4)	영대영천병원	김 용 진	(054) 338-9000	영천시 오수동 307
	마아정신병원	김 경 승	(054) 336-3311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236-5
	신녕요양병원	정 영 곤	(054) 331-7575	영천시 신녕면 부산2리 946-1
	영천중앙병원	-	(054) 331-5810	영천시 마정동 179-1
상주시 (2)	대한적십자사상주병원	김 원 기	(054) 534-3501	상주시 남성동 33-27
	상주성모병원	황 정 한	(054) 532-5001	상주시 냉림동 350-5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박 신 권	(054) 550-7700	문경시 모전동 188
경산시 (8)	경상병원	정 다 출	(053) 811-7711	경산시 백천동 4-2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정 다 출	(053) 819-0782	경산시 상방동 242-3
	마미안여성병원	이 현 주 (공동)	(053) 813-1100	경산시 증방동 849-1
	부림요양병원	-	(053) 853-1357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821
	신동산병원	유 국 선 (의무원장)	(053) 819-8600	경산시 증방동 848-4
	영신병원	허 영 수	(053) 819-7000	경산시 옥산동 793
	파티마재활요양병원	김 세 현	(053) 810-0001	경산시 평산동 591-2
	하양삼성병원	금 종 명	(053) 857-9114	경산시 하양읍 동서1리 757-3
군위군	군위삼성병원	이 종 택	(054) 383-3531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111-2
의성군 (4)	공생병원	김 선 영	(054) 834-3881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475-3
	성심병원	-	(054) 834-1048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8-11
	영남제일병원	김 인 기	(054) 861-911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3
	제남병원	송 오 달	(054) 832-2036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90-21
청송군 (2)	청송군보건의료원	-	(054) 870-7100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54
	진보병원	-	(054) 874-7717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 66
영양군	영양병원	김 득 수	(054) 682-0727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00-1
영덕군 (2)	영덕아산병원	김 연 수	(054) 730-0151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133-3
	영덕제일병원	-	(054) 732-7717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22-2
청도군 (2)	윤성병원	윤 진 국	(054) 373-7400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558-2
	청도대남병원	남 성 진	(054) 373-0606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00-1
고령군	고령영생병원	-	(054) 955-2661	고령군 고령읍 현문리 201-6
성주군	성주혜성병원	정 해 훈	(054) 932-1212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5
칠곡군 (3)	시몬정신병원	-	(054) 976-0402	칠곡군 왜관읍 금남2리 315-1
	왜관병원	-	(054) 971-1002	칠곡군 왜관읍 왜관10동 174-54
	혜원성모병원	김 의 원	(054) 979-7114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910-12
예천군	예천권병원	권 규 호	(054) 654-6611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60
봉화군	봉화해성병원	-	(054) 679-1234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426-6
울진군 (3)	울진군보건의료원	지 청 현	(054) 783-1250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63-5
	울진의료원	정 태 훈	(054) 785-7000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818
	울진중앙병원	지 용 광	(054) 787-1212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530-48
울릉군	울릉군보건의료원	정 만 진	(054) 791-211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the editor's postscript
편집후기



공자님 말씀에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말을 다 담아낼 수 없고, 말을 아무리 잘 해도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글쓰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글이란 잘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읽어보면 만족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글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책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년 동안 편집위원을 맡아 경북의사회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번 만들다 보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격어 보니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원들로부터 원고를 모으는 일, 사진을 비롯한 자료를 모으는 일, 모은 자료를 편집하고 소제목을 붙이는 일 등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집을 만드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표지 사진은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편집위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원고를 분배하여 밤늦게까지 오탈자를 찾기 위하여 원고를 읽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의 시를 쓰고, 한편의 수필을 쓰고, 한편의 논문을 끝마쳤을 때 뿌듯한 만족감이 생기듯이 몇 달에 걸쳐 기획 편집한 한편의 책이 출판되어 나오면 황홀감이 느껴집니다. 글을 쓸 때보다 읽을 때 그 맛이 진하듯이 한편의 책도 만들 때보다 완성된 책의 책장을 넘길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북의사회지 지령 30호,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회무 보고서에 불과하던 소책자 형태의 회지가 170면을 넘는 어엿한 칼라 책자로 변화하였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특집을 만들기 위하여 좌담회를 하고, 또 그것을 며칠에 걸쳐 원고로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돌아켜보니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북의사회지의 발전에 노력해 주신 회장님을 비롯하여 옥고를 보내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깔끔한 책자를 만들어 주신 선진 애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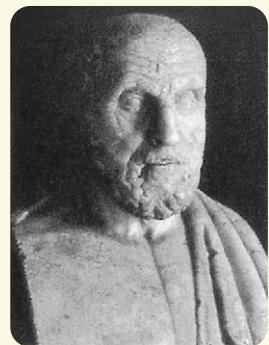
저희들이 열심히 교정하고 확인하였으나 행여 오류나 오탈자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 3

편집위원(정만진, 김광만, 김재왕, 이경수, 이덕영)일동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직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직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GlaxoSmithKline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http://www.gskkorea.co.kr

No.1은 다릅니다 세레타이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선택하는 흡입용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세레타이드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 각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천식치료제입니다.

세레타이드는 기관지 확장과 항염작용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세레타이드는 4세이상의 천식환자에게 효과와 안전성 Profile이 입증되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천식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제, 세레타이드를 선택하세요.

† Based on IMS Monthly Midas. From 2002~Present.

■ 천식전문 사이트 <http://www.asthmacare.co.kr> sponsored by GSK

세레타이드™

크시나포산 살메테롤/프로피온산 플루티카손

지속성 천식치료의 '마스터 키'